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6 Jeonju***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의 미래, 지역화
Local futures, Localization

2016. **10.13.**(목) - **10.14.**(금) 한국전통문화전당
13-14 OCTOBER 2016, KOREA TRADITIONAL CULTURE CENTER

주최   Local Futures
(국제생태문화협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주관 201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목 차

■ 진행프로그램 6

■ 주요인사 8

■ 개최 취지문 18

CHAPTER 01 – 개막식

■ 오창환 201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조직위원장 23

■ 김승수 전주시장 25

■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27

■ 김영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28

CHAPTER 02 – 해외연사인사말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Helena Norberg – Hodge) 33

■ 조나단 다슨 (Jonathan Dawson) 34

■ 조지 퍼거슨 (George Ferguson) 35

■ 레이몬드 엡 (Raymond Epp) 36

■ 잔 보아그 (Zan Boag) 37

■ 하세가와 마사코 (Hasegawa Masako) 38

CHAPTER 03 – 기조강연

■ 공동체 중심의 미래를 향해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 – Hodge) 41

CHAPTER 04 – 주제강연 1

■ 세계를 구하는 것은 지역에서 시작된다 | 조지 퍼거슨(George Ferguson) 53

■ 푸드시스템 '구조적 폭력'의 본질 | 레이몬드 엡(Raymond Epp) 62

■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논산시의 미래 | 황명선 75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 진행 프로그램

10. 13. (목)			
09:00 ~ 09:30	등록		
09:30 ~ 09:41	개막식		2층 공연장
10:03 ~ 10:43	기조강연	· 공동체 중심의 미래를 향해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40')	2층 공연장
10:43 ~ 10:55	휴식		
10:55 ~ 12:05	주제강연 1	· 세계를 구하는 것은 지역에서 시작된다 / 조지 퍼거슨 (25') · 푸드시스템 '구조적 폭력'의 본질 / 레이몬드 엽 (25') ·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논산시의 미래 / 황명선 논산시장 (20')	2층 공연장
12:05 ~ 14:00	점심		
14:00 ~ 17:50	세션 1 '지역의 미래'	발제 조지 퍼거슨 잔 보아그 원도연 좌장 원용찬 패널 유창복 전대욱 김남규	2층 공연장
	세션 2 '로컬푸드'	발제 레이몬드 엽 나영삼 좌장 소순열 패널 송미령 정민철 정천섭	4층 교육실
	세션 3 '지역화폐'	발제 조나단 다슨 김성훈 좌장 유남희 패널 이재민 손현주 차해옥	4층 세미나실
18:30 ~ 21:00	세션 4 '행복담론, 지역의 힘'	발제 하세가와 마사코 배안용 좌장 구자인 패널 엄성복 허문경	한지산업 지원센터 4층 회의실

10. 14. (금)			
09:30 ~ 10:20	주제강연 2	· 새로운 경제를 위한 뉴미디어 / 잔 보아그 (25') · 지역발전을 위한 자금확보 / 조나단 다슨 (25')	2층 공연장
10:20 ~ 10:40	워크숍 종합		2층 공연장
10:40 ~ 11:10	· 특별강연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11:10 ~ 11:50	폐막식	· 폐막식 퍼포먼스 및 폐회	2층 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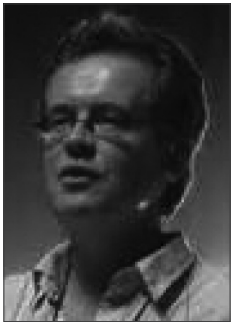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6 Jeonju

■ 주요인사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Helena Norberg-Hodge

- 전 세계 로컬 운동 활동가로서의 선구자
- 국제생태문화협회(ISEC)의 설립자이자 대표
- 1986년 바른생활상 수상(대안 노벨상)
- 저서 : 오래된 미래 · 라다크로부터 배우다(1992년) 행복의 경제학(2012)



조나단 다슨
Jonathan Dawson

- 영국 슈마허 대학 경제학과장
- 아프리카 · 남아시아 등지에서 소규모기업 개발 분야에서 20년간 연구자, 저자, 컨설턴트 활동
- '가이아 에듀케이션' 주요 저자(UNESCO, UNITAR '지속발전가능 교육교재' 채택)



조지 퍼거슨
George Ferguson

- 前 영국 브리스톨 시장(2012-2016), 건축가, 기업가
- 지속가능한 교통 자선단체 'Sustrans' 설립
- 기업가 및 자선단체 'Society of Merchant Venturers' 멤버
-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대표
- 'Order of the British Empire' 최고책임자



레이몬드 엡
Raymond Epp

- 現 일본 나가누마 메노마을 이사(Menno Village Director)
- 現 비폭력경제를 위한 Eschaton 센터 이사
- 공동체지원농법(CSA) 조직(미국 Nebraska, Winnipeg 등)
- 지속가능한 전통 유기농법 연구



잔 보아그
Zan Boag

- 세계적인 New Philosopher 잡지 설립 및 편집장
- New Philosopher : 2013년 설립(Australia) / 분기별 발행 철학, 사회, 문화, 예술, 문학 등 다양한 주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2,000여 곳 이상 배포 2015년 철학서 부문 판매 1위, 구독자 1만 명 이상 (출처 : 페이스북)



하세가와 마사코
Hasegawa Masako

- CSO Network Japan 프로그램 기획자
- 지역공동체 역량평가 도구 개발

■ 국내주요인사



김승수
전주시장

민선 6기 전주시장으로 재임 중이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라는 시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 우선, 인간 중심의 행정을 바탕으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한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실현을 통해 돈보다는 사람을,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육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을 지내면서 전국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두근두근 전주36.5도'가 있다.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전주시의회 4선 의원으로 현재 제10대 후반기 전주시의회 의장과 제7대 후반기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등의 조례안을 발의에 힘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8월 대한국민대상 위원회가 주최한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정부문 대상과 언론인연합협의회, 대한민국신문기자연합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충효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의정활동 공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영배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민선5기, 6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을 연임하고 있다. 성북구는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 슬로건 아래 사회적경제, 마을민주주의 등 함께 행복한 동행(同幸) 패러다임을 지역 정책에 도입하여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하는데 사무총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사회적경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지난 제8회 '다산목민 대상 시상식'에선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주요저서로는 '동네 안에 국가있다'와 '작은 민주주의 사람의 마을'이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

민선5·6기 충청남도 논산시장을 역임하고 있다. 논산시는 '시민참여 소통행정'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타운홀미팅, 주민참여예산제 등 시민중심의 소통·참여플랫폼을 구성해 따뜻한 지역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마을만들기, 친환경급식, 로컬푸드, 에너지자립, 청년창업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공동체 경제'를 적극 육성·추진하고 있다. 한편 '따뜻한 공동체 동고동락'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센터와 경로당을 중심으로 마을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고, 특히 '글로벌인재 해외연수'정책은 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 동창회 등이 교육공동체를 이뤄 학생들에게 글로벌 및 역사현장의 교육기회를 마련해 한국정책학회의 정책대상을 받았다. 현재 한국공공행정학회 부회장으로 재임하며 따뜻한 공동체 모델을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나는 오늘도 가슴이 뵈다', '행정학개론'이 있다.

■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오창환
조직위원장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지구환경과학 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로 재직하여 왔으며 심각한 환경 파괴를 유발하는 새만금 개발에 의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과 지역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중재안 제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환경운동을 이끌었으며 현재 전북환경운동연합의 공동 의장이다. 그리고 현재 전주시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이며 지난 15년 간 전주시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을 통해 전주가 전국에서 민관협력구조가 가장 잘 구축된 지역 중의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허문경
기획운영위원장

전주대학교 연구교수이며 관광학 박사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서 연구와 강의, 지방정부정책에 대한 기획, 자문, 평가 활동을 한다. 논문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사회문화적 효과」, 번역서 『슬로라이프의 달인들 Gross National Happiness를 말하다』 등을 집필했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여사를 전주로 안내한 후,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정을 쏟아왔다.



임경진
위원

30대 초반에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을 접고 2002년 정읍 산내로 귀농한 후, 2003년 장수군 순환농업시범단지 사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때 만든 마을이 '장수 하늘소마을'이라는 귀농자 마을이었으며, 그 이후로 계속하여 마을공동체활동을 바탕으로 한 지역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및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센터장을 역임하고, '전국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거쳐 현재는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임 중이다.



박형배
위원

전주시의회 10대 의원이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북사회문화정책소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전주시 공유경제 촉진조례,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하는 등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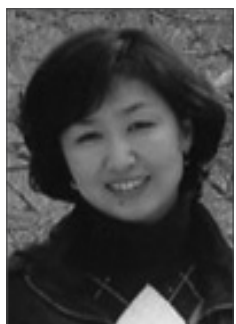
고 은 하
위원

전주지역자활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재주와 능력으로 이웃을 도와 풍족하게 사는 복지세상을 꿈꾸고 있으며, 전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과 연대로 지역사회에 노동 통합형 사회적 경제기업 복합체를 실현하고 공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전북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장 우 연
위원

전주시 정책연구소 도시분야 연구원으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 건축과 도시를 공부하다가 희망제작소라는 시민사회 민간 싱크탱크에서 시민참여 도시계획, 마을공동체,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 중심 연구와 활동을 하였다. 작년부터는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전주시에 와서 지역을 배우며 미래유산, 젠트리피케이션 등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번 행복 의경제학 국제회의에서는 3세션 지역화폐 워크숍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박 현 정
위원

전주시 복지분야 정책연구원. 전주시는 소수자 인권을 기본으로 하되 전주시민 모두의 보편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국가책임의 복지를 공고히 하면서 공동체 활력을 복원하여 관계와 나눔을 통한 복지주체성 또한 확보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는 주민 참여와 성장을 통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부응하여 전주시정책연구소에서는 인권에 기반한 사람중심의 따뜻한 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 소 영
위원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로 설립된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다.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운동, 대중교통과 자전거 활성화 등 생태교통운동, 에너지절약과 가정햇빛 발전소 에너지운동, 원도심교육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 워크숍 참여자



원 도 연
교수

전북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고려대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문화사회학(도시 문화)으로 박사. 전북문화저널 편집장, 전주시정연구소 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장을 지냈고 지금은 원광대학교에서 문화콘텐츠와 사회적경제를 강의하고 있다. 문화도시, 문화산업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사회가 대안적 발전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



원 용 찬
교수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과도한 시장 논리에 묻힌 현재 경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칼 폴라니, 햄릿을 읽다- 칼 폴라니의 경제 사상 이해', '유한계급론- 문화·소비진화의 경제학', '상상+ 경제학 블로그' 등 많은 저서가 있다. 특히, '칼 폴라니, 햄릿을 읽다'는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이 우수학술도서로 선정한바 있다.



유 창 복
자문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을 거쳐, 민·관협력사업 자문 역할을 하는 '협치자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협치자문관은 경제, 교육, 문화, 복지, 환경, 주택, 도시재생 등 부서별로 이뤄지는 민관협력사업 전반에 대해 의제 발굴부터 방향 설정, 정책 설계, 집행 및 평가까지 전 과정을 자문한다. 지역사회에서 다방면으로 왕성하게 활동한 경험을 살려 서울시의 협치시정을 만드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 대 욱
센터장

카이스트 경영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공동체발전센터장, 미래가치와 리질리언스 포럼 공동대표, 한국시스템다이나믹스학회 부회장, KCI 등재학회지 편집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의를 가지고 활동 중이다.

■ 워크숍 참여자



김남규
위원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참여자치연대는 국민 각계 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방권력 및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적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영삼
팀장

한국의 대표적인 NGO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농업분야 실무책임자로 활동하다가 2003년 전북 장수군으로 귀농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도시-농촌간 공존상생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구체적으로 글로벌푸드시스템을 탈출하기 위한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완주군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한국형 로컬푸드를 현장에서 기획, 실행하였다. 현재는 전주시에서 한국 최초의 대도시 먹거리정책, 전주푸드 2025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소순열
교수

서울대학원 농경제학과 졸업하고, 일본 교토대학 대학원에서 농학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일본 교토 대학 및 영국 레스터대학 및 미국 미주리대학 객원 교수로 활동 중이며,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 농림부 중앙농산업혁신전문가 위원이다. 한국사회 농업과 축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미령
센터장

서울대학교 행정학(도시 및 지역계획)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기획조정실장, 농촌정책연구부장 등을 거쳐, 현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지역발전과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 워크숍 참여자



정민철
이사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교사를 지낸 후, 현재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이사를 지내고 있다. 젊은협업농장은 정민철 이사와 그의 제자 2명이 한국 농업 현실과 풀무학교 학생의 진로를 고민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농업을 할 수 있는 농장을 만들어보고자 뜻을 모아 만든 곳이다. 진짜 농업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농사를 지어 먹고 살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다.



정천섭
센터장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이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재단법인으로 전주시에서 전액 출연하는 공공형 거버넌스조직이다.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 시민을 폭넓게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등 전주푸드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전주 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남희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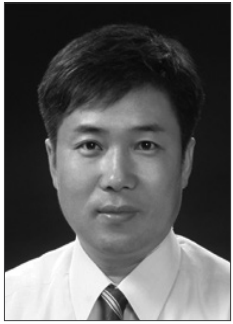
전북대학교에서 농학박사학위 취득 후, 2010년부터 사회적경제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전라북도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장을 역임하고 현재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정부통합중간지원기관을 운영하는 (사)전북사회적경제포럼의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재정위원장,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장 등의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과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북대에서 산학연구처 부처장과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의 보직을 맡아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성훈
부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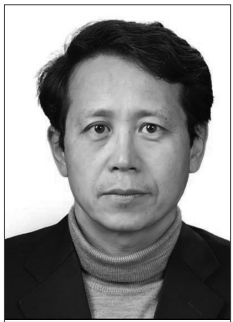
대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민들레협동조합은 의료, 건강,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주민(조합원)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개설 및 운영하는 협동조합인 동시에 기업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활동과 기여를 우선하는 사회적기업이다. 가치있는 일로써 기업이 운영되고 이익이 생기면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재투자 또는 환원한다. 사회적약자를 위한 의료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 워크숍 참여자



이재민
교수

경제학박사이면서 웅지세무대학교 부교수로 재임 중이다. 전북사회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이며, '더불어 함께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에서 활동 중이다.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시장의 지배적 역할과 물물교환이나 교환의 원리가 기본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호성, 재분배, 가정경제 등의 원리가 어떤 사회를 지배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회 내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물물교환의 원리 또한 다른 원리가 우세한 사회 내에서도 종속적인 위치를 차지 하면서 존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경제학(이타적 경제학)이 나아갈 방향 과 대안들을 제시 하고 있다.



손현주
연구원

전북대학교 SSK 개인기록과 압축근대 연구단 전임연구원이며 미래학자이다. 개인기록물과 압축근대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구와 네트워크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해외석학 초빙강연 및 콜로키움 개최, 워크숍 개최 및 현지조사 활동 등을 통하여 전문연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내외부 전문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차해옥
은평e품앗이 대표

서울시 은평구 은평e품앗이 대표를 맡고 있다. 은평e품앗이는 품앗이, 두레, 계와 같은 우리 민족 전통의 상부상조정신을 되살려 상호 신뢰의 지역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회원들간에 누구와도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다자간 품앗이 플랫폼 이다. 물품 공유부터 공간 공유까지 공유경제를 위해 특화된 곳인 은평공유센터 센터장으로, 물건과 재능을 함께 나누는 공유 개념을 도입해 주민들 스스로 공유 경제를 만들어가고 위해 힘을 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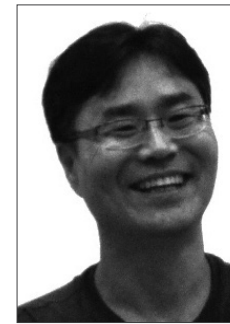
배안용
단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교회 담임목사. 서울시 마을강사이자 마을공동체 '품에'운영 등 10여 년 동안 지역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종로구 행복드림이끄미 단장으로서 개인적 인 행복의 차원을 넘어 모두의 행복이라는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풀어나가려 힘쓰고 있다. 주민이 스스로 만드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종로구 행복드림이끄미의 활동 사례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구자인
센터장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다. '주민이 주인공 이 되는 지역사회'를 지향하며 연구와 현장 활동을 병행해 왔다. 전북 진안에서 10년간 마을만들기, 도농교류, 귀농귀촌, 6차 산업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다가 2015년 3월에 충남으로 이주하였다. 현재, 광역 차원에서 기초 자치단체의 마을 지원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며, 행정과 민간의 칸막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엄성복
시민정책실장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민관 협력기구로 설립된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정책실장이다. 전주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시민정책실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힘의 원천은 시민에게 있고, 시민들의 생각이 지방정부의 정책이 되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추진사업으로는 전주시 행복지수 운동, 청소년 도시정책네트워크, 전문가 중심의 정책개발, 버스개혁시민모임, 생태교통시민모임, 팔달로 포럼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개최 취지문

JEONJU CITY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개최취지문

상업자본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공동체성의 회복을 통한 경제의 지역화입니다. 경제의 지역화를 통해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전주시는 2016년 10월 13일과 14일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를 국제생태문화협회 Local Futures(ISEC),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주최합니다.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The Economics of Happiness Conference)」는 세계적인 지역화운동 단체인 Local Futures(ISEC)에 의해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2015년 9월에는 제6차 회의가 전주시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 성공적인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최기관들은 전주시에서의 연1회 정기 회의를 결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의는 제9차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이자 제2회 전주회의가 됩니다. 작년보다 규모가 확대되었고 '지역의 미래', '로컬푸드', '지역화폐', '행복담론 - 지역의 힘'을 주제로 지역사회의 당면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강연과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일찍이 영국의 경제학자 E. F. 슈마허(Schumacher)는 "인간중심의 경제가 절실히 요구되며 경제학의 당면과제는 성장이 아니라 바로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저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 : 인간 중심의 경제를 위하여(Small is Beautiful : a study of economics as if people mattered)』(1973)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운동의 교과서로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역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혁신적인 경제사상서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금번 회의의 연사들은 E. F. 슈마허와의 인연이 두드러집니다. Local Futures(ISEC)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Hodge) 대표는 E. F. 슈마허의 영향 하에 활동을 시작한 제1세대 환경운동가로서 지난 40여 년간 지역화운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왔습니다.

유럽의 녹색도시로 지정된 영국의 브리스톨(Bristol)시에는 슈마허협회(The Schumacher Society)가 위치하고 있는데, 조지 퍼거슨(George Ferguson)전 시장이 연사로 참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슈마허 칼리지(Schumacher College)의 조나단 다슨(Jonathan Dawson)교수도 참여합니다. 슈마허칼리지가 위치한 영국의 토트네스(Totnes)는 전환마을(Transition Town)운동의 선도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호주의 진보적 잡지 『뉴 필로소피(New Philosophy)』의 잔 보아그(Zan Boag) 발행인, 일본 홋카이도 메노빌리지(Menno Village)의 레이몬드 엡(Raymond Epp) 대표, 그리고 워크숍의 발제자로 참가

하는 일본 CSO네트워크(CSO Network Japan)의 하세가와 마사코(長谷川 雅子)박사도 E. F. 슈마허가 그랬듯이 가장 현장에 적용하기 적합한 형태의 「행복의 경제학」을 탐구하며 지역화운동에 앞장서 온 분들입니다.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를 준비해온 조직위원회 구성원의 다수는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Jeonju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일원입니다. 조직위원장은 전주시장, 전주시의회 의장과 함께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환경 분야 전문가이며, 조직위원들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전주시 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전주시의회 의원 등으로서 전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이들이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의 국장이하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또 하나의 이상적인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1년여의 시간을 회의준비를 위해 애정을 쏟았습니다.

UN의 결의 하에 결성되어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온 'Local Agenda 21' 활동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20여년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주시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지난 2년 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의 개최를 통해 전주시의 시민들은 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이와 함께 'Think Globally, Act Locally(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라)'라는 표어처럼 세계를 품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지역을 위해 행동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역을 위한 최선의 행동은 경제의 지역화입니다.

우리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통해 사람, 생태, 문화, 사회적경제 등 민선 6기 전주시 행정의 중심 가치를 공동주최 기관들과 더불어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Local Futures(ISEC)을 통하여 국제적 연대의 폭을 넓힐 것이며, 이를 사회적경제를 도입한 전국 50개 기초자치단체의 연합회인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공유할 것입니다.

2016년 10월

201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6 Jeonju**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의 미래, 지역화
Local futures, Localization

CHAPTER 01

개막식 인사말

-
- (개회사) 오창환 201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조직위원장
 - (환영사) 김승수 전주시장
 - (축 사)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 (축 사) 김영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개 회 사



오 창 환

2016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조직위원회 위원장

전주에서 개최되는 "제 2차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 참여해주신 국내 외 연사 및 참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복의 경제학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오늘 내일 이틀간 함께 발표와 토의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주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지방정부와 전 세계가 행복의 경제를 위하여 한 걸을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이번 "제 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는 작년 1회 대회에서 최초로 국제생태문화협회인 Local future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개최하였던 성과를 넘어 전주와 지방정부협의회가 Local future와 함께 개최함으로써 국내 의 많은 지방정부가 행복의 경제학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 으며 동시에 우리나라가의 행복한 미래 건설을 위한 주춧돌이 만들어질 것으 로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잘못된 행복 추구를 통해 행복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물질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이러한 경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기 위해,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과다한 음식을 먹기 위해, 우리를 운동하지 하지 않게 하여 우리에게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문화시설을 얻기 위해 무한 경쟁 속에서 돈을 벌어야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과다해 지는 극한 경쟁 속에서 승자는 승자 대로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패자는 경제적인 낙오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인간성은 파괴되고 우리는 행복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과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환경파괴는 점점 대규모화 되어가며 그 결과 인간을 포함한 지구의 생명체에게 큰 위기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국가는 이미 기아와 경제 파탄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북극 의 꿈을 포함한 많은 생명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곧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이러한 위기는 전 파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학자들이 가까운 미래에 생명체의 대 멸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편 으로 필요 없는 물건 구입 및 활동을 위한 과다한 지출로 빚이 늘어나면서 중산층이 파괴되어가고 일부 기업과 자산가들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국경을 넘어 일어남으로서 전 세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끝없는 경쟁 속에 많은 국가에서 농부, 어부, 직장인들이 경제적 고통을 받으면서 세계 경제가 붕괴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이번 "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서는 1 회 대회와 달리 전반적인 행복의 경제학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지방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하려합니

다. 지속가능한 도시에 필수적인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Local Food가 그 한 분야이며 또 다른 분야는 지역경제 순환을 위한 지역화폐 및 기금 조성 방향이며 세 번째 분야는 행복 지표입니다. Local Food 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지역에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면서 지역의 농업과 유통을 활성화시켜 직장을 창출하고 농산물 장거리 유통에 들어가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존하는 종합적 방안이 추구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사용과 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 상품 사용의 활성화와 지역 업체의 경쟁력이 강화하여 지역 경제를 살릴 방안이 추구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기에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 지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리고 그 행복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활발한 토의와 의견 교환을 통해 전주와 모든 지방정부의 행복의 경제학 추구에 기초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헬레나 여사님과 로칼 퓨처 사무국 관련자 분들 그리고 전주 시장님, 지방정부 협의회장과 관련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회의 준비를 위해 십 여 차례의 회의를 주관한 전주시 관계자 여러분과 전문가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대회를 도와주신 여러 단체에도 감사를 드리며 개회사를 마칩니다.

환영사



김승수

전주시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가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에서 그 두 번째 시작을 함께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에도 행복의 경제학을 통해 따뜻하고 정의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전주를 찾아주신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여사님과 녹색생태도시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계신 조지퍼거슨 전 브리스톨 시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계신 레이몬드 앱, 조나단 다슨, 잔보아그, 하세가와 마사코 등 해외인사 여러분과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열정으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사회적경제 활동가와 전문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고나면 바뀌어있는 세상에서 현대인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며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문명은 분명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과연 우리의 행복도 이에 비례하여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양적인 성장을 위해 쉼 없이 내달려온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잃어가며, 다른 이들과의 소통을 차단한 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경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며, 그 근간마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자독식과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시장논리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목하는 '사회적경제'와 '지역화'는 나눔과 협동,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인간적이고 공평한 경제활동을 기본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경쟁 구조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를 보듬으며 거대 기업들로부터 지역 상권을

지켜내는 사회적경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착한경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주는 이러한 사회적경제를 보다 가치 있게 실현하기 위해 담대하고도 가슴 뛰는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공동체, 그리고 지역이 중심이 되어 '엄마의 밥상', '지혜의 반찬', '전주푸드' 등의 새로운 정책 시도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지켜가기 위한 변화의 시도가 반복되고, 한해, 두해, 그 다음 해로 이어지는 켜켜히 쌓이는 시간과 기억의 집합은 도시가 지닌 내적 가치를 성장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통해 전주가 사회적경제와 지역화의 비전을 확고히 하는 자리로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변화시키고 선도해 나가는 영향력있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펼쳐지는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 함께 자리하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막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린 사회적경제의 가치가 값진 열매를 맺고 장밋빛 내일을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땀과 노력으로 다가오는 전주의 천년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반갑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 김명지입니다.

지난해,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통해 국제적 명사와 전문가들과의 소중한 만남이 여전히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올해에도 제 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됨을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만, 어떤 방식과 길을 택해야할지 잘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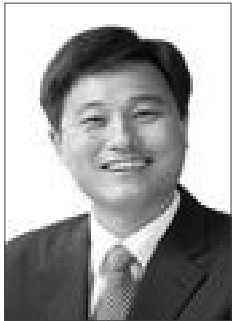
최근 사회적인 갈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묻지마 폭행과 같은 분노 범죄가 많아지면서, 국민의 내면에 자리한 욕구불만과 절망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으로서,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이 야말로 우리가 양질의 행복을 느낄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행복한 경제학은 우리 전주시가 추구하는 사람과 생태, 문화 등 이상적인 가치들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현실적 방식 중 하나로서, 아마도 부단히 연구하고 접목하며 우리 전주시만의 것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까지 방문해주신 명사와 귀빈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러한 국제회의를 통해 소중한 강연과 의견을 듣고 배우며 행복한 전주로서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 사



김 영 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청장 김영배 입니다. 먼저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 저희 협의회 35개 회원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참석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협의회로서,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지역경제를 만들어보고자 2013년 3월 결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협의회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성과가 지역에서 선순환하는 경제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회원 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과 성과를 서로 공유하면서, 특정지역 혼자 잘 사는 방법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길'을 찾기 위해 회원 지자체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적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다양한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압축적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소득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는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지역공동체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사회적 경제와 지역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경제시스템이 이윤창출을 최우선에 두며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적 가치 실현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에 뿌리내린 풀뿌리 경제이자 사람 중심의 경제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민주적인 경제를 지향합니다.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활동하며, 지역문제 해결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경제의 지역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공동체의 경제 조직들이 건강히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함께 잘 사는 건강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로컬퓨처스 대표님을 비롯하여 국내외의 권위있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전통과 문화의 도시, 전주에서 경제의 지역화를 토론하는 <2016 행복의 경제학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의미 깊다고 여겨집니다. 저희 협의회에서도 지역의 경험을 함께 나눌 기회가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암초를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와 위기의 지

역 공동체에게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중요한 행사를 준비해주신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과 노르베리 호지 대표님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 김승수 시장님과 전주시의 리더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경제의 지역화와 지역 간의 연대가 세계화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첫 걸음임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기대하며,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6 Jeonju**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의 미래, 지역화
Local futures, Localization

CHAPTER 02

해외연사 인사말

-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Helena Norberg – Hodge)
 - 조나단 다슨 (Jonathan Dawson)
 - 조지 퍼거슨 (George Ferguson)
 - 레이몬드 엡 (Raymond Epp)
 - 잔 보아그 (Zan Boag)
 - 하세가와 마사코 (Hasegawa Masako)

인사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Helena Norberg
– Hodge

전주시에서 행복의 경제학을 공동 주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 회의는 시장님을 포함한 지역 정부 모두와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고무한 경험 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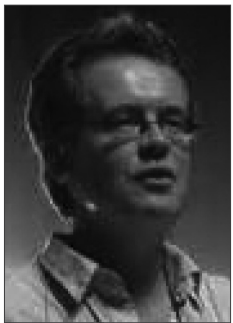
현재 전주시가 이뤄내는 업적은 저를 계속 놀라게 합니다. 전주시 내의 문화에 대한 자신감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관심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지난 40년간 제가 수많은 지역 커뮤니티가 거대한 세계 경제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른 지역의 분야를 창조하고 강화시킬 수 있도록 장려하며 얻은 경험을 귀하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회의에서 알게 될 듯이, 변화한 지역 경제는 튼튼한 지역 커뮤니티와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의 기본이 됩니다. 경제의 지역 세분화는 더 많은 의미 있는 직업을 창출하고 사람들과 더욱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의 그것의 중요함이 명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의 세분화가 이러한 정신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은 말 그대로 행복의 경제학입니다.

귀하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며 이번에도 의미 있고 희망찬 회의를 경험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인사말



조나단 다슨

Jonathan Dawson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주에 초대되어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서 연설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행복으로 가는 여정과 지구의 안녕이 생각하는 만큼 실현되어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믿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우리의 몸과 감정이 학습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매일 발견합니다. 어떠한 지식이라도 현실적으로 주로 개념에 그치고 머리로만 이해된다면, 실제로 매우 피상적인 지식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20년간 계획적 공동체(생태 마을) 세 곳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 공동체들은 상호협력의 가치와 분명하고 이해심이 많은 소통 그리고 정신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곳입니다. 이 시기 동안 저는 세계생태 마을 네트워크의 회장으로서 지낸 바 있으며, 전 세계 생태 마을 공동체를 방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또한 저는 초기 경력 동안 아프리카 시골에서 15년을 보냈습니다. 이 같은 경험들로 저는 다양한 문화적 표명의 아름다움과 행복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안녕으로 가는 독특한 길에 대한 통찰력에 대해서도 매우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녕으로 가는 내적인 여정에 매료됐지만,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세계에서 지속가능성으로의 전환이라는 외적인 여정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본이 근본인 세계, 특히 공동체의 유동성 접근 방법과 지역적으로 부를 순환시키는 방법이 공동체가 힘을 갖는데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다양한 공동체 금융 모델과 공유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의심할 바 없이 한국에서 개발된 모델에서 배울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인사말



조지 퍼거슨

George Ferguson

지난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영국대사관과 함께 전주시를 방문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승수 전주시장님과 직원분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브리스톨은 유럽 녹색 수도 2015(European Green Capital 2015)로 선정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가 되려는 열망을 더욱 강화하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행복한 경제를 만드는 데 중심이 되는 것으로, 이 좋은 경험을 가능한 한 많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브리스톨은 2012년에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시장을 뽑기로 했으며, 직접선거로 시장을 선출하는 영국의 네 주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저는 건축가이자 도시계획가, 사업가, 양조업자, 영화관 소유자, 사회적 기업가로서 특별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시와 도전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고자 하며,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편협한 관점으로 부를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고 있기에 전 세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거대한 작업에 대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전주시의 역사적 건축물과 예술품, 공예품을 살펴보는 즐거운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 음식과 음료, 무엇보다도 전주시의 미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사말



레이몬드 엡

Raymond Epp

시장님, 지방자치 공무원 여러분,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를 살아있게 하는 식품을 재배하는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먹는 것은 정치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먹을 때 마다, 땅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선택을 합니다. 산업 사회에서는 시장 경제를 통해 먹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됩니다. 먹는 것은 사업다 하더라도, 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구조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 거래입니다. 누구도, 만일 그렇다. 저녁 밥상을 쳐다보며,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밥상에서 입으로 들어가기 전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동했는지 알고 있을까요? 누가 이를 키웠을까요? 농업인들이 적정 금액의 보수를 받았을까요? 농업인이 파는 먹거리를 어떤 회사가 샀을까요? 토양은 잘 관리되고 있을까요? 누가 먹거리를 이동시켰을까요?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했을까요? 여러분이 지불한 금액의 어느 정도가 실제 농업인에게 돌아갔을까요? 현대 식품 체제의 대량적 성격으로는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답을 모르는 것은 우리가 먹기 위해 식탁 앞에 앉을 때 마다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체제를 지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체제가 인간과 지구의 삶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파괴 행위에 하루 3번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가운 소식은, 삶은 이러한 방식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 식품은 본 식품 체제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농장과 식탁 간의 거리를 좁힘으로서 도시인들은 식품을 재배한 사람들과 재 연결 될 수 있고, 또한 먹는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먹거리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땅을 돌보고, 서로를 돌보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동반자 의식, 결속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먹는 데서 오는 만족감은 음식을 먹는 행위 뿐 아니라, 건강, 완전함, 안녕을 의미하는 "샬롬(히브리어로 평화)"을 촉진하는 새로운 세계를 모두 다 함께 만든다는 것을 아는 데서도 비롯됩니다.

저는 실수가 많은 실천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경험을 공유하고, 여러분들께도 많은 것을 배우길 원합니다. 전주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합니다.

인사말



잔 보아그

Zan Boag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이 모이는 이번 회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환경, 전 세계와 우리가 사는 지역의 관계, 미디어가 우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유산 등 인류 역사에서 매우 중대한 시점에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단지 전주시민뿐 아니라 현시대 세계시민을 아울러 미래의 세계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저는 회의에서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나눌 모든 대화를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다른 대표자들 및 참가자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견해와 관점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우리는 모두 선생이자 동시에 학생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가 생각해 낸 아이디어가 공허한 미사여구에 그치지 않도록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느긋하게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우리의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인사말



하세가와 마사코

Hasegawa Masako

금번 2016년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회의를 주최하는 Local Futures와 전주시 및 전국사회연대지방정부협의회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과 그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는 많은 일본인들에게 지금까지의 가치관과 삶, 그리고 사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다음 세대에 물려줄 사회는 이대로 괜찮은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발 밑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동료들도 동일본대지진의 복구지원을 위해 후쿠시마의 지역재건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의 상황은 일본 전국에 공통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와 같았고 따라서 여기에 대처하는 전략도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와 동료들은 다양한 지역에 적용가능한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참여형 지역만들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현재 저와 동료들은 지속가능한 지역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를 활용한 워크숍을 일본 각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이웃간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서로 의지하며 사는 곳이야말로 행복한 지역이며 오래도록 살고 싶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저는 일본의 경험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다만 이와 동시에 전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배우는 기회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6 Jeonju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의 미래, 지역화
Local futures, Localization

CHAPTER 03

기조강연

■ 공동체 중심의 미래를 향해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 – Hodge)

공동체 중심의 미래를 향해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Helena Norberg – Hodge)

지난해에는 전 세계에서 엄청난 사회적 격변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폭력의 대두는 미국, 프랑스, 터키를 포함한 여러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그 동안, 지구는 계속 뜨거워졌고 기후 변화가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명백했습니다. 여러 나라는 여전히 재정 위기의 여파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제의 안정은 요원합니다.

더 넓고 깊게 살펴보면, 전 세계적인 성장이 위와 같은 문제 및 그 외의 다양한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여전히 더 세계화된 경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계속된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대서양 양안간 무역투자파트너십(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과 같은 몇몇 새로운 국제적인 무역 조약이 진행되고 있거나 비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협정을 통해 세계화의 길을 더욱 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에 대항하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며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경제' 연합의 경제학자와 정책 분석가, 전 세계의 풀뿌리 공동체 그룹으로 구성된 이 운동은 기업들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생태학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길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협력 및 경제적 상호 의존이며, 다른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지역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계화된 경제

TPP나 TTIP와 같은 협정은 무역 및 재정 규제 완화를 위해 고안된 과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국제적인 무역이나 투자의 필요성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 은행이 자유롭게 통제력을 행사하도록 해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 지역, 공동체가 현장에서 어떤 종류의 무역과 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식 소유자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회사는 자신들의 결정이 공동체, 환경, 재정 안정, 심지어 우리의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하거나 경시합니다.

소위 '자유무역' 협정 및 그 외의 국제적 조약은 보통 대기업을 선호하며 다국적 기업이 최고의 투자처로 여기는 곳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부여하는데, 여기서 최고의 투자처란 가장 낮은 월급을 지급하며 가장 낮은 작업 표준 및 환경 규제를 누릴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유무역' 시대의 결과로 이윤은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집중되며 다른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만 합니다.

국제 무역 협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는 대기업과 은행의 요구를 묵인하도록 강요 받고 있습니다. 여러 협정에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 조항이 삽입되어 있으며, 국내 규정으로 인해 이윤이 감소할 경우 개인 기업이 정부를 고소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스웨덴의 에너지 회사인 스웨덴 전력 주식회사(Vattenfall)은 ISDS 조항을 이용해 후쿠시마 사건 이후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려는 독일 정부의 결정에 대해 47억 유로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대 담배 회사인 필립 모리스(Phillip Morris)는 공중보건 목적으로 담뱃갑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제정한 호주 정부를 고소했습니다.

한 국가에서 사업하는 작은 기업들은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다국적 기업은 세금을 피하고자 자산과 이윤을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수는 줄어들고 시민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능력은 약화됩니다.

'자유무역'은 기업이 원하는 대로 사업장을 옮길 수 있으므로 고용은 점점 일시적이며 불안정해집니다. 전 세계의 산업화된 나라들에서 직업이 있는 사람들의 실급여는 줄어들고 있으며 많은 노동자는 결국 여러 직업을 가져야만 합니다. GS(Global South)(역자 주: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및 중동 지역으로서 사회경제학 및 정치적으로 Global North와 분리된 지역)에서 노동자들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 점점 더 외국계 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또는 국가 경제가 몰락하면 노동자들은 별수 없이 더 낮은 급여와 더 악화된 작업 환경을 강요 받게 되며 심지어 다른 나라에 이주하거나 난민이 되기도 합니다.

기업이 주도하는 무역을 떠올려 보면 노동력 착취, 어장 남획, 아프리카 지역에 퍼지고 있는 넓은 지역에서의 수출용 작물 단일 재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계 시장의 주된 생산품은 우리가 입거나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아닌 돈 그 자체입니다. 매일 수조 달러가 국제 화폐 시장에서 유행을 바라며 투자되고 있으며 또 다른 수조 달러는 원자재 및 주식 시장에서 투기적인 단기 무역에 집중됩니다. 이 시스템의 불안정성은 2008년의 가슴 아픈 경제 위기 때 명백히 드러났으며, 이 시기에 많은 사람이 직장과 집을 잃고 국가 경제 전체가 심각한 채무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실패는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으나, 정치 지도자들이 제안한 해결책은 이제까지 해온 일을 더 큰 규모로 하는 것에 불과했으며, 이 해결책이란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를 더 성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역과 금융에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고용을 증대하고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믿고 있으며, GDP를 올리는 것이 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들은 거대 기업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게 하거나 다른 거대 기업을 끌어들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장려책을 내놓습니다. 동시에,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합병하거나 경쟁 상대를 사들이며 결국 가장 큰 기업들이 시장을 효과적으로 독점하게 되었고, 이제 몇몇 기업들은 국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세계 경제는 그저 불안할 뿐입니다. 현재의 글로벌 성장 모델은 소비를 더 증대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으며 이는 유한한 지구에 있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소비와 폐기물로 인해 이미 여러 생태계가 파괴되었으며 우리 삶의 지원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가 서식지를 집어삼키고 기능을 저하시켜 셀 수 없이 많은 종이 위협을 겪고 있거나 이미 멸종

했습니다. 경제 성장은 가장 기본적으로 점점 더 먼 거리의 무역을 필요로 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많은 운송 수단을 의미하게 되므로, 결국 여러 환경 오염이 발생합니다. 기후 변화는 현재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이며 온실가스 배출은 급격한 감소가 필요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세계화는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도록 강요합니다.

소위 '개발도상국'인 대부분의 나라는 사실 화석 연료 사용의 생태학적, 문화적, 경제적 비용의 일부를 절약하기 위해 재생 가능한 원천을 사용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제 개발은 단일 경작된 식량과 천연자원 추출, 제작한 물품의 수출에 대부분의 초점을 맞춘 세계화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토지, 광물, 목재에 대한 권리는 그 진정한 가치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종종 외국 기업들에 팔리며 광범위한 벌목과 환경 오염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외부의 도움과 투자는 석유, 가스, 석탄에 기반을 둔 에너지 및 운송 인프라로 귀결됩니다.

세계화에 초점을 맞춘 개발 지원에 있어 가장 흔한 쟁점은, GS의 '개발도상국'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말로 투자와 무역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1950년 이래로 세계 무역은 11배 증가했지만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현대화된 영역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약속과 함께 살던 곳에서 쫓겨나지만, 결국 그들은 도시의 빈민가에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 신분, 자존감은 떨어지며 범죄와 폭력, 사회적 불안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GN과 GS 모두 지역 경제가 붕괴하고 있으며 공동체에 대한 현실적인 자각도 대부분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직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대 도시에서의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활동에도 초점을 맞춥니다. 운송 수단은 도시 지역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더 작은 규모의 도시나 시골 지역은 돌보지 않습니다. GN에서 기업화된 대형 마트 체인은 지역 상권을 약화시키며 많은 경우 문을 닫게 합니다. 우체국과 같은 중요한 서비스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기반을 둔 서로 상호 의존하는 관계는 익명성을 띤 개인주의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분열되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서양식 학교에 다니며 '개발'과 '진보'의 미덕을 찬양하고 있으며, 소비문화의 이상화된 광고와 미디어의 이미지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그들의 역할 모델은 더 이상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친족이나 이웃이 아닌 인쇄된 슈퍼모델과 남성적인 스포츠 스타가 되었습니다. 현재 외떨어진 시골조차도 도시의 소비문화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살에서 살아남기 위한 문화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은 우리 경제가 세계화되지 않고 지역과 밀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호 의존과 자유를 지원하는 지역화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책 및 풀뿌리 영역에 있어 행동을 취해야 할 여러 가지 부면이 있으며, 저항과 재생을 수반하는 활동을 촉진해야 합니다. 지역화는 마을에서 모든 경제적 생산을 하거나 국제 무역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화는 사회가 무역의 규칙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저항

저항은 경제의 세계화를 멈춰 기업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생태학에 대해 그리고 경제에 대해 잘 알도록 교육(eco-literate)('환경'과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 해야 합니다.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하는 것부터 모든 나라의 수도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이득을 위한 로비에 이르기까지 다국적 기업이 이득을 얻기 위해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방향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은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개인은 보통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매우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관점에서, 우리의 주된 문제는 풀뿌리부터 권력의 밑실에 이르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무역' 협정은 다국적 은행 및 기업이 정부와 미디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정부들이 이러한 협정을 위해 협상하고 서명할 때 기업의 이득이 아닌 사람들과 지구의 유익을 대변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폭로해야 할 네 가지 주요 글로벌 무역 조약이 있는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다자간 서비스 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대서양 양안간 무역투자파트너십(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이 그것입니다. 이 네 개의 협정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지만, 협상 과정은 공개되지 않으며 심지어 정부 대표자들도 종종 제외됩니다. 협상 테이블의 대표자들은 대개 다국적 기업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다국적 기업과 은행을 보면 이러한 움직임을 멈추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첫 발은 '탈퇴 전략'으로, 국가들이 여러 소규모 그룹으로 모여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수입을 관세로 제한하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주의는 다른 나라의 시민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으며, 도리어 과도한 힘을 가진 다국적 기업과 은행으로부터 지역의 자원을 지켜내며 직업을 보호합니다. 이렇게 하여 사회가 사업의 규칙을 만들어내며,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과 투자자가 정부를 좌지우지하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이젠 분위기 전환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999년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WTO에 대항하는 역사적인 저항이 발생한 이래로 G8부터 세계경제포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주요 국제 무역 회의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위자는 때때로 수십만 명에 이르며 예전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과정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NAFTA는 비교적 저항이 적었습니다. 현재, 기업의 협상가들은 TPP를 이용해 예전과 같이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려 하지만, 이제는 우려를 표하는 시민들뿐 아니라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로부터도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시민 운동으로 대중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정책 입안자들은 압력을 받고 있으며 협상에서 비밀에 부쳐진 상세 내역을 선거 전까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저항의 분위기는 지구와 시민의 안녕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앞으로의 무역 결정에서 대충 살펴보고 넘어가는 일이 없게 만듭니다.

재생

경제를 바꾸는 것은 단지 기업의 비대한 힘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재건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시 연결해 주는 것이 있는데 특히 필수품의 거래에 있어 그러합니다. 즉, 서로에게, 공동체에게,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모든 세계에 연결된 관계를 재생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대안을 고안하고 실행하기 위해 생겨나고 있는 풀뿌리 노력이 수없이 많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화가 사람과 지구 모두에게 광범위한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재생에 대한 움직임

서두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전 지구에서 지역화를 위한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화로 인해 광범위한 유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은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서 돈을 순환하게 합니다. 지역의 사업 연합체는 서로를 연결해주며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북아메리카의 BALLE(Business Alliance for Local Living Economies)는 가장 큰 연합체 중 하나로 80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3만 개 이상의 개인 사업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BALLE는 회의를 개최하여 작은 사업체를 어떻게 시작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도움을 베풀고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기업 주식이나 카지노에 투자하는 것의 대안으로 지역 금융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용조합과 지역 은행은 지역 공동체에 투자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으며 지역의 주식시장과 주식 퇴직연금에 개발되고 있습니다. 점유운동(Occupy movement)으로 인해 거대 은행의 불공정하며 심지어 불법적인 처사에 새로운 주의가 기울여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돈을 더 작은 공동체의 금융 기관에 맡기도록 하는 캠페인이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월가의 은행들에서 4백만 개 이상의 계좌가 빠져나갔습니다.

브라질의 포르탈레자에서는 가난한 파우메이라 지역의 주민이 공동체 은행을 설립했으며, 이 은행은 지역의 필요를 위해 지역 주민이 이끌고 관리합니다. 이 은행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 왔으며, 은행이 생기기 전에는 주민들이 필수품의 20%를 파우메이라 지역에서 구매하였지만, 15년 뒤에는 93%가 공동체 내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개개인 및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교과 과정이 생겨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점점 더 많은 학교가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을 수업에 넣고 있으며 이러한 '숲 학교'에서 아이들은 야외에서 서로 그리고 자연과 교감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숲 학교의 개념은 1927년에 위스콘신에서 탄생했으며 스칸디나비아와 영국에 전파되었고 매우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버몬트주의 ROOTS(Reclaiming Our Origins through Traditional Skills) 학교는 청소년과 성인이 황무지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제공하며,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많은 대안 학교는 일반적으로 경제의 운행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며, 엄격한 방식 및 주류를 이루는

수업 방식을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대안학교에는 슈타이너 스쿨과 발도르프 스쿨, 몬테소리 스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나 공동체 구성원에게 배우는 홈스쿨링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GS의 일부 지역에서도 교육이란 문화적 전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 현장에서는 공동체가 소유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생겨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이 사용할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값싸게 생산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주의 포트 콜린스는 600kW의 "태양 정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도의 다나이 빌리지는 "마이크로그리드"로부터 태양 에너지를 얻어 350개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프로젝트의 이점은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재생 에너지 자원의 사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바로 그 장소에서 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송전 중 소실되는 일이 없고 송전 인프라를 확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더 간단히 에너지 사용 비용을 조절할 수 있으며 멀리 떨어져 있는 전력회사에 기댈 필요도 없습니다. 지역 투자자들은 생산한 것에 여유가 있다면 재정적 이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잡지 등 지역의 미디어 수단과 같이 공동체에 기반을 둔 것들은 사람들을 다시 연결해주며 자기 주변에 대해 배우게 도와줍니다.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은 인도의 하라나,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브리티시 콜럼비아의 파웰 리버까지,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호주의 바이런 베이에 이르기까지 GN과 GS의 여러 도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국에서는 기업 광고를 내보내지 않고 공동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행사를 지원하고 지역 사업을 무료로 광고해 주기도 합니다. 텔레비전은 대부분 거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점유되어 왔지만 여전히 독립적인 채널을 유지하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미국에서 링크 TV(Link TV)는 시청자의 기부에 의해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의 직설적인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이웃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사람들이 모이고 사회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여 공동체와의 소속감을 새롭게 해 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의 공공디자인프로젝트(Project for Public Spaces (PPS))는 공공 장소를 활기차게 하려고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유대를 강화하고 이웃 관계를 다시 활성화하는 데 박차를 가해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 음식

앞서 언급한 공동체 사업은 생태계와 인간의 필요 사이에 균형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역화로 인한 여러 분야의 이익 중 음식과 농사에서보다 그 이익이 더 명백하게 나타나는 분야는 없을 것입니다. 음식은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매일 필요한 것이므로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돌아서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지역 음식은 간단히 말해 지역을 위해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음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식의 거리'는 비교적 짧으므로 화석 연료의 사용과 환경 오염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 관련 이익은 또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단일 재배로 생산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땅에서 경작하

는 돈이 되는 작물 및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파괴합니다. 하지만 지역 시장은 농부들이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며 야생 작물과 동물이 깃들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에 더하여, 다양한 작물을 경작하는 농장은 단일 문화에서 사용하는 중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토양 약화의 주요 원인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화는 유기농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기 쉽게 해주며 작물은 해충의 침입에 훨씬 덜 민감합니다.

지역 음식 시스템은 경제적인 이득도 있는데 소비한 돈의 대부분이 기업이라는 중간 상인이 아닌 농부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작고 다양화된 농장은 광대한 단일 재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기 때문에 지역 전체의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농장의 일꾼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중장비와 그에 사용하는 화석 연료에 돈을 쓰는 것에 비해 지역 경제 및 공동체에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며, 전자의 경우 중장비 제조사와 석유 회사가 거의 즉각적으로 돈을 뽑아가지만, 일꾼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지역에서 사용됩니다.

지역 음식은 항상 글로벌 음식보다 훨씬 신선하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또한, 지역 음식은 저장소나 첨가제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가장 잘 맞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며, 유통기한, 세계 시장의 급격한 변화, 실어 나르기 얼마나 좋은 것인가가 아닌 맛과 영양이 우선시됩니다. 동물을 사육하는 것과 작물 생산도 함께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동물들에게 더 건강하고 인도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게 해 줍니다.

사람들이 지역 음식에 더 의존하면 식량안전보장은 전 세계적으로 더 강화될 것입니다. 몇몇 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은 사라지고, 음식을 관리하는 일은 여러 갈래로 분산될 것입니다. 만약 개발도상국이 GN 시장을 위해 비싼 작물을 재배하는 대신 지역의 필요에 가장 잘 맞는 작물을 재배하고 지역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면 고질적인 기아 상태가 해결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된 연구는 다양화된 작은 규모의 농장이 대규모의 단일 재배보다 경작 단위당 더 높은 총 생산량을 기록한다고 밝혀줍니다. 또한, 글로벌 음식은 비용이 많이 들며 대부분의 비용은 대형 마트에서 표시된 가격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글로벌 음식에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세금에 포함되어 살충제와 생명공학 연구에 사용되며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운송비, 의사소통, 에너지 인프라를 지원하고 제3세계 경제를 파괴적인 글로벌 시스템으로 끌어들이는 외부의 도움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글로벌 음식에 드는 환경 관련 비용을 내고 있으며 앞으로 등장할 세대에게도 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 음식을 구매하면 과도한 운송비용, 낭비되는 포장, 광고, 화학 첨가물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신선하며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에만 돈을 내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음식에 사용하는 돈은 거대 농업 기업이 아닌 근처의 농부와 작은 상점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므로, 그들은 글로벌 시스템에 갇혀 있던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우리에게 더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문화 만들기

구조적 관점에서 보면 지역화는 글로벌 소비자 문화라는 단일 문화의 압력에서 벗어나 개인 및 문화의 자유를 증진합니다. 공동체와 자연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함으로 마음속 깊이 안정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화는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태학적 뿌리와 공통의 인간성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넓은 안목은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으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시장 근본주의자에게만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스템은 눈이 가려진 채 운영되어 왔으며 가장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광범위한 파괴가 자행되었습니다. 결국, 단 하나의 실행 가능한 길은 더 크고 비인간적인 범위로 나아가며, 부와 권력은 더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에서는 글로벌 경제와 사회적, 생태학적인 파괴 사이의 연관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항과 재생을 향한 움직임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을 잘 알게 되면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분노와 대립이 아니라 넓은 범위에 걸친 시스템의 변화를 평화롭게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인, 거대 기업의 운영진, 은행가들과 같은 어떤 한 그룹의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 성장 모델을 촉진하는 경제 전문가들은 숫자로 표현된 세상과 돈의 흐름을 읽도록 교육받았으며 그들의 추상적 모델이 가져오는 현실의 사회적, 생태학적 결과는 보지 못하도록 가려져 왔습니다. 거대 기업과 은행의 운영자들은 단기적인 이익과 성장 목표를 이루기 위해 투기적인 시장에 지배를 받아 왔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를 염려하는 소비자, 세금 납세자, 시민도 운영자들의 선택이 에너지에 집중하고 직업과 영혼을 파괴하는 경제를 만드는 많은 숨겨진 방식들을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

인식은 불길처럼 번질 수 있으며, 자신들의 잘못된 추측에 완전히 묻혀 버리는 경향이 있는 정치와 경제 지도자들과나 소비주의에 완전히 물든 사람들을 꼭 설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재정적 및 시간적 압력은 어마어마하지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며 현실을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녀의 학교를 개선하거나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며 영적 및 윤리적 가치를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제기되든 모든 문제의 공통점은 경제 문제로 귀결됩니다.

광범위하며 연합된 운동을 조직하기 위해 큰 그림, 광범위한 분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 희망, 창의성을 사용해 새로운 세계, 행복의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경쟁, 탐욕, 고립, 심지어 자기 거부를 촉진하는 현재 시스템을 뒤로하고 떠나야 합니다. 지역화를 통해 우리는 더 인간적인 범위에서 인간적인 속도로, 상호의존과 다양성의 아이디어를 통해 우리의 경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참고 문헌

Barbieri, K. (2002) *The Liberal Illusion: Does Trade Promote Peac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Bhaduri, A. (2007) "Development or Developmental Terrorism?",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17 February.

Bodley, J. (2008) *Victims of Progress*, 5th E, Lanham: AltaMira Press.

Ellwood, W. (2010) *The No-Nonsense Guide to Globalization*, Oxford : New Internationalist and London:Verso.

Foster, J. B. and Clark, B. (2012) "The Planetary Emergency", *Monthly Review* (<http://monthlyreview.org/2012/12/01/the-planetary-emergency>)

Heinberg, R. (2011) *The End of Growth*, Gabriola Island BC: New Society Publishers.

Holt-Giménez, E. (2013) "Land Grabs Versus Land Sovereignty" *Food First Backgrounder* 18(4) (www.foodfirst.org/en/Land+grabs+vs+land+sovereignty)
"Pitfalls Abound in China's Push From Farm to City", *The New York Times*, 13 July (<http://www.nytimes.com/2013/07/14/world/asia/pitfalls-abound-in-chinas-push-from-farm-to-city.html>).

McKibben, B. (2007) *Deep Economy*, New York: Times Books.

Mitchell, S. (2013) "Locally owned businesses can help communities thrive — and survive climate change", *Grist* (<http://grist.org/cities/locally-owned-businesses-can-help-communities-thrive-and-survive-climate-change/>)

Rosenthal, E. (2008) "Environmental cost of shipping groceries around the world", *The New York Times*, April 26.

Seabrook, J. (2004) *Consuming Cultures : Globalization and Local Lives*, London: New Internationalist.

Shuman, M (2012) *Local Dollars, Local Sense: How to Shift Your Money from Wall Street to Main Street and Achieve Real Prosperity*. White River Junction: Chelsea Green.

GRAIN (2014) *Hungry for land : small farmers feed the world with less than a quarter of all farmland*. (www.grain.org/e/4929)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6 Jeonju**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의 미래, 지역화

Local futures, Localization

CHAPTER 04

주제강연 1

-
- 세계를 구하는 것은 지역에서 시작된다 조지 퍼거슨(George Ferguson)
 - 푸드시스템 '구조적 폭력'의 본질 레이몬드 엡(Raymond Epp)
 -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논산시의 미래 황명선

세계를 구하는 것은 지역에서 시작된다

조지 퍼거슨
(George Ferguson)

시대를 거스르는 경주

1983년에 저는 젊은 건축가이자 환경 캠페인 운동가로서 '시대를 거스르는 경주(Races against Time)'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행복을 주제로 하는 회의에서 굳이 언급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33년간의 삶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과거 매우 명백하게 보였던 근본적인 도전들에 대처하는 것에 거의 발전이 없었으며, 저는 이 사실에 대해 실망을 느끼긴 하지만, 동시에 그리 놀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성장과 탐욕의 결과로 점철된 세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 세계를 구하고자 한다면 개인과 지역의 안녕으로 주의를 돌려야 하며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전히 낙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책의 서문에서 저는 "우리가 어디로 달리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잠깐 멈추어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이 좁은 시야로 경주를 계속하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썼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마하트마 간디의 "많은 사람은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올바르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을 별주고 싶어 한다. 자신이 올바른 것과 수년을 앞서가는 것에 대해 절대 사과하지 말라.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자기 생각을 말하라. 자기 생각을 말하라. 당신이 소수라 할지라도 진실은 여전히 진실이다."는 말을 인용하여 저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이 시절 제가 인용한 두 번째 인물은 1774년부터 1780년까지 브리스틀을 위해 의회 의원으로 일했던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입니다. 약 250년 전에 버크는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없으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실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발언은 항상 제 삶을 인도해 왔으며 제가 죽는 날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저는 이를 깨닫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 진심으로 믿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철학이 발전하는 데에는 이러한 생각이 기저를 이루고 있다고 더욱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경주"는 원자력과 에너지, 기후변화, 운송, 경제 및 평등, 농업, 제3세계, 평화에 대한 에세이 모음집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과거에는 거리가 우리의 놀이터였으나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 거리를 빼앗겼으며, "우리는 우리 손으로 도시의 즐거움을 많이 빼앗았다. 우리는 아름다운 빌딩을 교통섬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었으며, 도보는 차량의 편리를 위해 자리를 내주었다."고 썼습니다. 저는 "지역 공동체에서 보행자 등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대표자와 함께 진실한 논의를 통해 지역의 결정을 내릴 때 우리 모두를 더욱 유익하게 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체론적 접근법 채택

저는 대부분의 논제와 마찬가지로, 운송 수단을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왔으며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데 집중함과 동시에 이동을 강요하는 것들을 줄이고 낭비와 불필요한 짐을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공동체를 강화하여 더 광대하고 집약된 산업의 유행으로 인해 파생된, 많이 이동해야 하는 필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건축가로서 예전에는 각 지역의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했으며, 그렇게 할 때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재료와 보편적인 해결책을 들여오지만, 결과는 그리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멀리 운송하는 것이 진정 필요한 것이며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정치인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단 하나의 질문만을 던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해야 하는 자문은 거기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저는 브리스틀의 선출된 첫 시장이 되기 30년 전에 "정치적 의제는 늘 그렇듯 힘 있는 자들에 의해 나오며, 그들이 성장과 생산성, 인플레이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고 썼습니다. 저는 오만한 장관들과 시장들이 '성공'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 늘 세계 인용한 GDP의 불명확한 경제적 수치로 제가 한 말을 더 잘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이 전 세계의 성장과 부에 집착한 결과로 우리 존재의 지속성은 규칙을 벗어나 버렸고 게으른 미디어는 더 중요한 건강, 행복, 성취 대신 성장과 부의 수치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은 바로 사람들이다!

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영국왕립건축학회(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RIBA)) 회장을 지냈으며, 도시계획학술원(Academy of Urbanism(AoU))의 설립자이고, 최근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브리스틀의 첫 번째 선출된 시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초점을 맞추는 일에 종사한 RIBA에서 건축가들이 목적을 상기할 수 있게 하려고 제가 설정한 구호는 '어리석은 것은 바로 사람들이다.' 였습니다. 도시계획학술원을 설립한 목적은 도시계획을 단지 특정 장소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술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분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브리스틀의 첫 번째 선출된 시장으로서 제 목적은 도시를 이끄는 힘의 초점을 시민의 삶의 질에 맞추는 것이었으며, 지역에서는 시민 사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국가의 정부를 정의하는 정당 정책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정한 권한을 가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단지 비참해지려고 하며 그렇게 되도록 행동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모든 활동을 통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도시는 모든 감정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대해 불평할 것이 없다면 목적은 사라지고 매우 불행해질 것입니다!

브리스틀 - 변화의 시험대

이제 2012년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도시이자 50년간 거주한 브리스틀을 계몽된 도시 변화의 시험대로 만드는 제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스틀이 시장을 선출하기로 한 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무소속 후보를 선출한 단 하나의 영국 도시가 되어 자주성을 보이기로 결단했던 순간은 정말 환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 편은 브리스틀의 시민사회 참여라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열정적이며 많은 재능을 가졌고 일상적인 삶의 방식을 저항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브리스틀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으며, 70대 이상의 노인층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브리스틀은 이렇듯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 덕분에 영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가 되어 유럽 녹색 수도 2015가 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브리스틀 파운드(Bristol Pound)

브리스틀은 여러 독립적인 사업체로 유명하며, 이렇듯 혁신적인 도시로 명성을 쌓게 된 데에는 여러 실험적인 사업 중 하나인 브리스틀 파운드의 사용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국 체인과 다국적 기업이 브리스틀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에 사회적 기업이 지역 사업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 8월에 브리스틀 파운드가 시행될 당시, 저는 만약 시장에 당선된다면 시장 봉급을 브리스틀 파운드로 받을 것이며 지방세도 브리스틀 파운드로 받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공약 덕분에 현재 많은 지역 기업에서 이 상호 보완적인 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도시의 기업에도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브리스틀 파운드가 지역 경제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를 고취하는 데에는 상징적이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럽 녹색 수도 - 변화를 위한 촉매제

유럽 녹색 수도가 된 2015년에는 우리가 하나의 도시로서 매우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브리스틀이 모두에게 더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사람을 참여시키고 특히 아이들을 참여시키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조직이 실제로 참여했으며,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시험적인 사업을 시작하며 미래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상을 통해 우리가 당면한 도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브리스틀 시민과 공동체가 전례 없이 큰 규모로 도전에 맞서 일어났으며, 함께 모여 아이디어와 자원 및 전문 기술을 공유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고 유연성을 갖추게 되어 장래에 유익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2015년에 영국에서 가장 환경친화적인 도시로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은 탄소 배출을 적게 하며 유연한 도시를 만드는 명확한 정치적 합의와 함께, 브리스틀이 유럽에서 가장 환경친화적인 도시 중 하나임을 국제적으로 알린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이 일을 즐겁게 수행했으며, 저는 우리가 모두 장래를 낙관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아이디어, 공약, 행사, 프로젝트, 사람의 도움을 통해 브리스틀이 유럽 녹색 수도가

될 것이며, 많은 경우 공식 프로그램에서 떨어져 독립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인지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독자적인 개성이자 브랜드를 고안했는데, 이는 한 지붕 아래 모든 자원과 사람을 모아 전체의 총합보다 더 큰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유네스코가 브리스틀을 학습도시(City of Learning)로 선정했으며, 현재 다양한 활동과 조직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말씀드리며, 여기에는 브리스틀 시가 소유한 브리스틀 에너지(Bristol Energy)와 브리스틀 폐기물(Bristol Waste) 회사도 포함됩니다.

브리스틀에 기반을 둔 단체는 도시 전체에서 브리스틀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단순한 범위의 브랜드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브리스틀에 대한 것으로,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토론이든 공동체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이든 친환경 제품 구매를 약속하는 것이든 간에 그들에게 지속 가능성이 의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인터뷰는 유럽 녹색 수도 상의 목적 및 믿음에 대한 것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장기적인 책임을 공유하는 장이었습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시민 사회

브리스틀이 녹색 수도가 제시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녹색 수도가 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브리스틀 녹색 수도 파트너십(Bristol Green Capital Partnership)으로, 250개의 열정적인 조직으로 이루어진 편안한 네트워크에서, 800개 이상의 회원 조직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녹색 도시 파트너십이자 시민 사회의 대표자로 변모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조직들을 위한 사례들을 모으고, 더욱 강화된 협력과 종합적인 자원 및 전략의 영향을 통해 지속가능성이라는 긴 도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변화의 범위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BGCP는 강력하며 지속 가능한 모델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로 인해 각 지역에 권한을 부여하고 풀뿌리 운동을 통해 생각하는 지도력과 결합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녹색 수도 프로젝트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5년에 5개의 테마를 지정했습니다. 이 5개의 테마는 자연, 운송, 에너지, 자원, 식품이며, 파리 COP21에 참석하기 위한 목표로, 우리의 열망을 명확히 언급하여 2050년까지 탄소 없는 도시가 되려는 더 큰 열망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자연 : 우리의 열망은 브리스틀을 야생동물로 가득 찬 삶과 사람들이 연계된, 자연이 풍부한 도시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운송 : 우리의 열망은 8km 이하로 이동할 경우, 이동의 4/5는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으로 하여 브리스틀이 세계를 선도하는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에너지 : 우리의 열망은 브리스틀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분야에서 영국의 첫 번째 도시가 되는 것으로, 스마트한 에너지 효율성, 충분한 난방 및 100% 재생 에너지 사용을 선도하며, 저탄소 분야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여 브리스틀과 전 세계를 돕는 것입니다.

자원 : 우리의 열망은 순환경제 사업 모델을 도입하는 데 여러 사업이 뛰어들도록 하고,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며 재사용 및 재활용하여 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 브리스틀을 세계를 선도하는 순환경제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식품 : 우리의 열망은 브리스틀을 2020년까지 영국의 지속 가능한 식품 수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도전은 모두가 참여하도록 돕고, 이러한 작은 변화를 통해 브리스틀을 더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Do15 in 2015는 브리스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도시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지속할 수 있게 하는데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5년 한해에만 5만 명의 사람들이 고기는 적게 섭취하고 나무를 더 심으며, 더 걷고 지역에서 쇼핑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지속 가능한 변화를 가져오리라 약속했습니다. 이 5만명 중 많은 사람은 자신들이 한 약속의 표시로, 특별 제작해 빛과 소리가 나는 커다란 녹색 버튼을 달았습니다. 이 버튼을 단 사람들이 계속 도시를 돌아다닌 덕분에, 이 버튼은 유럽 녹색 수도의 해의 진정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버튼은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약속하고 미소 짓게 하려고 고안되었으며, 분명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버튼은 인기가 너무 많아 스케줄을 관리하기 위해 달력을 만들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젊은 브리스틀

많은 사람, 프로젝트, 파트너가 도시 전체에서 캠페인이 잘 진행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자선 단체인 젊은 브리스틀(Young Bristol)의 #do15 Creative Outreach Team이 20개의 공동체 행사를 진행했고, 브리스틀의 14개 이웃 파트너십(Neighbourhood Partnership) 영역에서 창의적인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창의적인 '게릴라 브랜딩(Guerilla branding)'은 브리스틀의 여러 이웃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도록 격려했으며, 삼각형 천을 사용해 신분을 알려, 약속의 '장식 깃발'이 되었습니다. 또한, Do15 in 2015는 온라인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Do15는 수천 번이나 리트윗되었고, 퀴즈를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뒤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인기가 많았습니다.

스쿨 프로그램 - 교실에서 지속가능성을 삶에 적용하기

내셔널 스쿨 프로그램(National Schools Programme)은 브리스틀 2015 Ltd의 가장 성공적인 스토리 중 하나였습니다. 2015년에 3만 명의 브리스틀 학생들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시험 삼아 운영해 보았는데, 지금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학교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유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지속가능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앞에 놓인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세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7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Key Stage 2)가 특히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제 및 오래갈 수 있는 환경친화적 활동을 잘 받아들입니다. 브리스틀과 같이 면적이 넓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도시에서 미취학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가까워지기 어려운 공동체 내의 여러 가족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90%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지속가능성이란 주제를 수업에 포함시키기 원하지만, 76%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브리스틀 2015 내셔널 스쿨 프로그램(Bristol 2015 National Schools Programme)은 교육 과정을 도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지원하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학교가 더 환경친화적이 되게 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내셔널 스쿨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교사들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5개의 주요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브리스틀에 특화되어 있지만, 모든 분야를 어디에서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주제와 교육과정의 목표에 사용될 수 있는 수업의 기획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으며, 자연, 운송, 에너지, 자원, 식품의 다섯 가지 지속가능성 주제에 근거해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 기획 또는 '지속가능성 워크숍'은 기후 변화에 대한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수업에 더 환경친화적인 삶을 포함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속가능성을 단지 교과목에만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는 브리스틀의 아드먼(Aardman)이라는 사람과 제휴하여 개발한 Sustainable Shaun이라는 게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Green for Good'이라는 상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는 학교 건물을 개선하고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 15가지 지속가능성 도전을 완수한 모든 학교에 트로피를 수여했습니다. 우리는 Eco-Schools라는 국제적인 상을 만들어 학교들을 도와 이러한 지역적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의 중심에 녹색 원칙을 심도록 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언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전방위로 건강한 학교(Healthy Schools)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는 특히 이 분야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학교 수상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식사, 운동, 전방위적인 신체 및 정신 건강과 안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브리스틀 방식(Bristol Method)

이 글에 제시하고 싶은 다양한 방식이 많이 있지만, 유럽 녹색 수도 상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상은 유럽의 가장 환경친화적인 도시들이 전 세계의 다른 모든 도시들과 지식을 공유하여 지속가능성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브리스틀 방식은 이렇게 하려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브리스틀 방식은 도시를 더 푸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조언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 한해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더 지속가능성 있는 도시로 변모하면서 얻은 교훈을 다른 도시들이 적용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브리스틀 방식의 각 분야는 특정 주제를 다루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돕고 있으며, 브리스틀을 통해 사례 연구를 하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각 독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종합적인 조언과 제안이 포함됩니다. 브리스틀 방식은 브리스틀 2015 Ltd(Bristol 2015 Ltd)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약 60개국의 독자가 살펴보았으며, 우리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올리고 다른 도시들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브리스틀 방식은 28개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다섯 개의 주요 주제인 자연, 운송, 에너지, 자원,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경제와 같은 다른 유용한 분야도 있습니다. 저는 브리스틀 방식이 가능하게 한 수많은 기여자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 없이는 브리스틀에 대한 스토리를 이처럼 실용적이고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공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8개 전체 분야를 살펴보실 수 있는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bristol2015.co.uk/method/>

GDP에 대한 우리의 집착

2015년 3월에 저와 함께 전주를 방문했던 브리스틀 녹색 수도 파트너십 대표인 브리스틀 행복 도시(Bristol Happy City)의 리즈 자이들러(Liz Zeidler)가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끝맺고자 합니다.

지난 60년간 세계는 우리 사회에 "번영"과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 GDP 성장이라는 성배를 좇아 왔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전 세계의 경제 생산량을 다섯 배 이상 끌어 올렸으며, "선진국"에서는 거의 30년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안녕"과 "행복"의 지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Wilkinson & Pickett, 2009), 불평등은 늘어나고,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지구가 기능하게 하는 깨끗한 공기, 물, 숲 등의 천연자원으로 이루어진 전 세계 60%의 생태계는 상태가 악화되거나 오용되었습니다. 행복으로 이끄는 길로 여긴 GDP의 성장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초점은 모든 인류가 찾고 있는 행복과 안녕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21세기의 첫 10년은 이미 흘러갔으며, 전 지구적인 생존과 경기 침체는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점점 늘어나는 "행복"에 대한 언급은 많은 사람에게 허황된 것이 아닌 기쁜 소식처럼 들렸습니다. 2009년에 많은 사람은 사회 전반에 걸쳐 행복이 정말 중요한 것인 양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들과 정치인들, 사상가와 사업가들, 심지어 경제학자들도 다른 모델, 다른 지표, 다른 목표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으며, 우리가 확연히 경험하고 있던 결말로 이끄는 시스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 많은 수는 국제적으로 또는 국가 내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만 논

의되었으며, 그 속도와 논제는 정부, 학계, 사업 분야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행복'이란 매우 개인적인 것이고 지역에 관계된 일이며,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모두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속할 수 있는 번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난 50년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에 대해 사람들은 놀라고 있지만, 이 시기에 행복과 안녕은 거의 발전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두 부면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꾸준한 번영과는 대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더 불행해져야 하며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항상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필수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끝없이 반복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GDP의 성장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의 중심에는 모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이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면, 우리가 원하던 더 많은 물질을 실제로 가지게 되었을 때 더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며,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은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소비에 있어 지속적인 성장(즉 GDP 성장)을 가져올 수 없으므로, 이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시스템에 계속 무언가를 더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체 시스템은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광고, 경쟁, 계층적 조직 모델, 대립을 일삼는 정책, 생활 TV, 전자 기기와 그 외 '장난감'들의 소비, 모든 미디어에서 생산하고 그려내지만 실제로는 이를 수 없는 삶 등이 있습니다. 이 목록을 계속 더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에 사로잡혀', 이전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소비자가 되기에 충분한 불만족을 조금씩 인위적으로 맛보고 있습니다. 행복은 항상 지평선 너머에 나타나며 더 많은 '물질'이 행복으로 가기 위한 길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전제조건입니다. 이 완벽한 '부정적인 심리학'은 우리 사회 시스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행복 증진과 영속적인 경제 성장은 서로 관계가 없지만, 건강 및 교육, 환경, 범죄와 불평등의 감소는 행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관 관계는 두 가지 자연스러운 관계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는 더 행복한 사람들이 천연 자원을 덜 소비하고 더 많이 배우며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갖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더 건강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적고, 복지 정책에 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Lyubomirsky, 2008).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회를 개선하고 주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많은 사회적 문제를 상당수 줄여줍니다. 이는 단지 상상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란 단지 즐거운 결과나 심지어 '단지' 사회의 궁극적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둘 다 행

복에 포함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행복이란 우리가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도전을 이겨내는 길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 빈곤이나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 "선진국"의 세계에서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늘어나는 부와 더 많은 소비를 통해 행복이 가능하다는 추측을 버리고 행복으로 가는 진정한 길을 찾는 데 주력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당연히, 행복한 마음으로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행복의 재료가 무엇인지 묻는 여러분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글래스고(Glasgow)의 도심 지역, 보츠와나(Botswana) 도시 지역, 팔레스타인, 폴란드, 브리스틀에 있으며, 그들의 대답은 매우 비슷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 친구, 공동체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소유물과 목적, 가치에 대한 감각이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외부로 눈을 돌려 보면,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서로 유대를 맺고 함께하는 기회를 얻고 적극적으로 되고 배우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성장하고 타인을 돕고 도움을 받는 것들 모두가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가 안녕에 대한 이론에 있어 대부분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 무엇도 많은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삶의 방식은 탄소 사용을 줄이고 비교적 적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의 중심에 잘못 위치한 매우 단순화한 수치인 GDP가 우리의 행복, 안녕, 평등, 공의, 심지어 장기적인 생존을 위협에 처하게 될 정도로 시스템을 왜곡해 왔던 것은 아닙니까?

모두에게 좋은 사회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저는 지역의 미래(Local Future), 행복 도시(Happy City), 그리고 행복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주 컨퍼런스 덕분에 개인과 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도록 더 지적이고 세심하게 성공의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넓힐 수 있는 전환점에 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아이들로부터 인식을 넓혀가기 시작하여 결국 이러한 아이들이 해결책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에게 한 나무를(One Tree per Child)'과 같이 비용이 적게 드는 여러 실험적인 사업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브리스틀의 시장으로서 제 추진력이 되고 있으며,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더 나은 도시와 세상을 만드는 데 공동체가 공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또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푸드시스템 '구조적 폭력'의 본질

레이몬드 엡
(Raymond Epp)

인간 삶의 신비는 사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는 이유를 삶에도 있다. 인간이 무엇으로 살 것인지 분명한 생각이 없다는 것은 사는 데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땀 땀어리들로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지상에 남기보다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도스토옙스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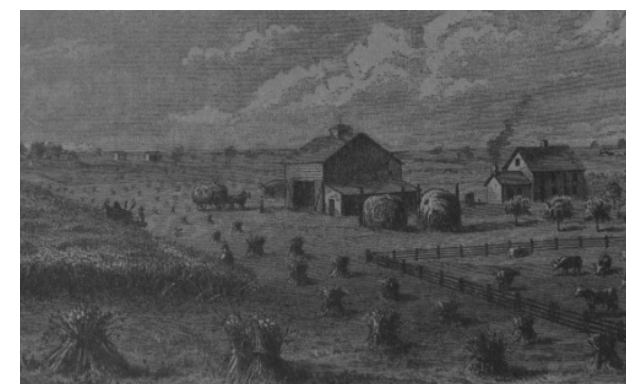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주최자 분들과 헬레나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분명히 특별한 선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이야기들이 농업의 지배적인 시스템에 저항하고 인간과 토지를 돌보는 농업 문화를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 제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가 읽거나 쓰기는커녕 말할 수도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제공합니다. 헬레나님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는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매우 고무적입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여러분을 통해 더 배울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로컬푸드 관리일을 하면서 구조적 폭력과 사회 변화를 위한 비폭력 저항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 프리젠테이션은 푸드시스템의 구조적 폭력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의 삶에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푸드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비폭력 사회 변화의 교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구조적 폭력은 본질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시스템은 우리를 압박해서 삶을 더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고 사람들은 단지 살아있기 위해서 분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 폭력의 매력은 부분적으로 그 단순성과 마음을 사로잡는 성질에 있습니다. 서양화와 도시화의 매력은 사람들을 과도한 현대적 삶에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수 특권층이 꿈을 차지하는 반면 대다수 사람들의 꿈은 공허한 약속으로 채워지게 하였습니다.

세계화의 근원은 17세기 영국의 식민주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현대 산업 푸드시스템의 근원은 19세기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럽과 미국 투자자들은 대규모 교통과 통신 네트워크에 투자했습니다. 유럽인들이 도시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농촌의 삶을 포기하면서 급증하는 도시 인구에 필요한 생필품 생산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소외계층의 관점에서 현대 산업 푸드시스템 맨 초기부터 이것이 구조적 폭력 행위였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구조적 폭력은 부당한 이

익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합니다. 시스템을 지배하는 이들이 대중에게 추상적인 고귀한 목표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언젠가 보상받게 되리라는 희망으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게 됩니다. 19세기 미국의 경제적 후원자들은 미국 서부의 위대한 도시가 위대한 새 제국의 중심에 있게 되길 꿈꿉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도시를 둘러싼 땅이, 실은 전 세계가, 이 도시에 찬사를 바치게 되길 꿈꿉니다(윌리엄 크로넨, 자연의 대도시: 시카고와 위대한 서부: 노턴 W.W. & Company, 1991, p. 41). 미국은 광대한 숲과 엄청난 광물 자원이 있는 풍부하고 비옥한 땅의 나라입니다. 경제적 후원자들은 내륙의 광대한 수로가 교역을 위해 신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크로넨p. 36). 시카고는 위대한 도시 그리고 제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시카고의 탄생과 먼 도시를 위한 상품 생산지로서 현대 농업의 탄생은 이들 경제적 후원자들의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위대함이라는 꿈, 아니 새 제국이라는 꿈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이민자들을 결속시키는 정신적인 동기로 작용했습니다. 21세기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면, 당시 관점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걸림돌이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풍부한 자연을 사용했습니다. 산업 푸드 시스템의 경제학과 임업 경제는 본질적으로 조직적 절도였습니다.

시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그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외딴곳의 광대한 가족 농장은 철도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철도는 가축과 곡물을 멀리 떨어진 시카고의 시장으로 운송했고, 그곳에서 다시 동부 연안과 유럽에 위치한 시장으로 운송했습니다. 시카고 서부 토지에 새로운 농장과 마을을 건설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네소타, 위스콘신, 그리고 미시간에서 방대한 삼림이 벌채되었습니다. 대륙 정복에 해당하는 관점은 불가피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존 가스트가 그린 이 그림은 당시의 정신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토지 정복은 프로비던스의 행위였는데, 백인 정착민들이 문명과 기술 발전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져오는 데 참가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천사가 줄이 매달린 전화선으로 농부들과 먼 곳에 있는 도시와 유럽의 시장을 연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천사는 여신임을 나타내는 흰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진보와 문명의 빛을 가지고 옵니다. 천사가 오기 전에는 어둠을 볼 수 있고, 어둠 속에서

거친 자연과 도망치는 원주민들이 보입니다. 결국, 이들은 그림 밖으로 모두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천사의 이름은 콜럼버스라는 이름의 여자 이름인 콜롬비아입니다. 콜럼버스는 노예 교역과 식민주의를 발견하고 미국에 소개한 것으로 명성을 얻은 인물입니다. 몇 년 전 저는 홋카이도 대학에서 외국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리젠테이션에서 이 그림을 사용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몬드 씨, 그 천사가 우리나라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천사와 유령의 존재에 대해 많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관력 있는 나이지리아 학생이 인정하듯이, 이 천사는 미국의 서부 연안을 찾은 후에 은퇴하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대화와 개발의 천사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전 세계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도시에 건강과 안녕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일 중 일부분은 이 천사를 폭로하고 위대한 것에 대한 유혹을 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현대화가 모은 인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주민과 자연에는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병들은 부동산 소유자들을 미국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무단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임무에 배치됐습니다. 원주민들은 땅은 소유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땅은 소속감을 느끼는 곳이라고 여겨졌으나, 이러한 생각은 땅은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과 상충했습니다. 인간과 땅의 관계에 대한 원주민들의 생각은 현대 경제학적 개념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1890년 12월 운디드니 학살"〉

따라서 원주민들은 현대화 사업에서 구성원으로 더는 간주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없어져야 했습니다. 미국 원주민들은 인간이 아니라 야만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원주민 대량학살이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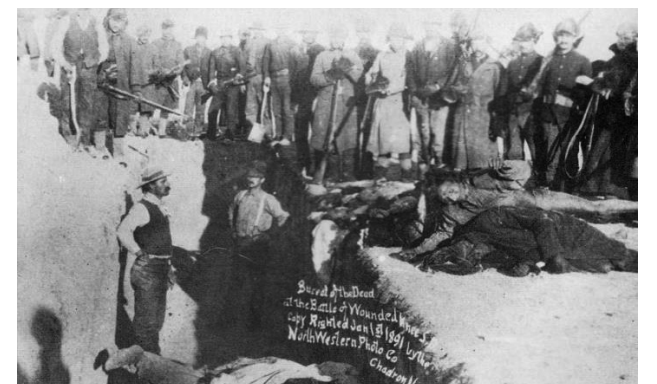
모든 시대를 망라해 권력자들은 시스템의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을 막기 위한 폭력을 정당화할 방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단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대화 시대에는 20세기 후반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야만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반체제 인사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테러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전쟁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연합과 풀뿌리 운동으로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나중에 좀 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7년에 이르자, 미국의 교통, 식품 가공,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투자자들은 미국의 곡물과 고기가 전 세계 시장에 도달하는, 상품 시장 세계화라는 이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세계화는 새로운 발상은 아니었습니다. 강대국들과 이제는 기업들도 힘이 있는 자들이 불균형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의 협력을 구할 새로운 방안을 항상 마련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 미국에서 이러한 농업 관점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지금 한국의 상황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전 USDA 직원이자 토양학 교수인 F. 킹은 토양 비옥도가 무제한적이라는 만연한 발상이 재앙을 부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은퇴하자마자 전 세계에서 오랫동안 농업이 존재하고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1908년 킹 박사는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을 여행하면서 2천, 3천, 심지어는 4천년이 지나도 토지 건강이 악화되지 않는 상태로 농부들이 동일한 토지에서 곡물을 수확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발견은 저서 "4천 년의 농부들: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의 영원한 농업(Farmers of Forty Centuries: Or Permanent Agriculture in China, Korea and Japan)"에 기록됐습니다. 그는 이들 농부의 방법과 방식에 "매일 놀라고, 교훈을 얻고, 감탄한다"고 썼습니다. 그는 저서의 마지막 장을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획기적인 저서를 통해, 그는 만약 미국 농업이 이 지역에서 시행되는 올바른 농업 관행에 노출되었다면 미국의 농업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바랐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유기농 농업이 미국과 영국에 확대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책은 아직도 출판되어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이끈 발상은 모든 사회를 위한 공동의 진보와 선의에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가정합니다. 현대화 사업은 동시에 시스템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지역, 전통적 담론과 삶의 방식을 약화시킵니다. 이 시스템을 이끄는 원칙 몇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장 어딘가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인류"를 위한 식량 생산 장려. 이러한 시스템은 농부들이 전문화 되길 독려합니다. "비교우위"라는 말은, 특정한 작물을 재배할 선천적 능력이 있는 국가가 삶의 필수품을 사기 위한 외화를 벌기 위해 이러한 작물을 시장에 판매하는 데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거리 두기. 산업 시스템에서 농부와 먹는 사람들은 공간적으로, 이념적으로, 심리적으로 서로로부터

분리되거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더 효율적인 생산 수단을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은 먹을 것에 대한 자신들의 선택이 푸드시스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식사할 때마다 땅이 경작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란 어렵습니다. 도시가 농부, 농지, 그리고 기후변화 방향과 가지는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농업은 친밀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농부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먼저 식량을 제공하고 남는 것으로 교역하는 것입니다(브루스터 닌, 땅에서 입으로 From Land to Mouth).

자연의 풍요로움에는 제한이 없다.

부의 창출 수단으로서 사유화. 펜으로 원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소작농들이 생존을 위해 의지했던 공유지를 없앤 토지법이 탄생했습니다. 더 최근 맥락에서는, 물의 소유화 그리고 종교에 대한 지식재산권 법이 공유지에 담을 두르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단일 세계 시장으로서 세계. 상품이 전 세계를 더 쉽게 이동하게 하려고 무역 규칙, 식품 안전법, 지식재산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각국 정부들 역시 시민이 자금을 대는 군사 보호와 세계 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 외국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모든 가치의 중재자이다. 다시 말하면 그 무엇도 신성시되지 않습니다.

기술 촉진. 기술은 기계만이 아닙니다. 기술에는 기계도 포함되지만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방안을 찾는 기법과 방법도 포함됩니다. 자크 엘렐이 지적했듯이, 기술은 개인과 사회로서 우리가 일을 하는 수단에 중점을 두게 하고, 더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빠른 속도와 효율성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대화와 진보가 본질적으로 바람직하다. 현대화와 진보가 바람직하다는 추정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스템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점 때문에 근본주의자들, 독단주의적인 종교와 비슷합니다. 전통적인 농업 관행, 종교적 신념, 그리고 농촌생활은 퇴보와 진보의 걸림돌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현대화라는 “종교”로 개종하거나 뒤처지거나 제거되어야 합니다.

개발. 개발은 훨씬 뒤에 나타난 발상이긴 하지만, 다름 아닌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선이라는 보편적인 담론의 개념을 현대화와 공유합니다. 유엔 현장 입안자들은 20세기 초 2차 세계 대전의 폭력이 보호주의로 인해 야기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세계 평화를 향한 길은 모든 사람이 “역사와 무관하고 탈 지역화된 보편성”으로 결속되는 구조를 장려하는 것입니다(볼프강 작스, 행성의 변증법 Planetary Dialectics, 96). 개발은 이러한 지적 구조 중의 하나입니다. 개발이론은 모든 국가가 개

발 과정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일부는 선두자들이고, 또 다른 일부는 멀리 어답터이며, 또 다른 이들은 뒤처져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모든 국가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화를 장려하는 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세계화와 개발이라는 지배적이고 보편적인 비전에서 단절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폭력을 장려한다고 비난하길 원할지도 모릅니다. 해리 S. 트루먼이 1945년 취임 연설에서 개요를 밝힌 것처럼, 개발 담론은 세계 평화와 번영이 모든 국가의 생산 증가를 위한 것이며, 생산 증가 수단은 자본 투자와 기술 이전을 통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 이전과 자본 투자가 평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는 어떠한 종교나 문화적 전통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개발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형태를 만들려는 문화적 담론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방식에 대해 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문화와 종교적 전통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보편성이라는 헤게모니와 별도로 대안적인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러한 담론을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개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술 이전과 자본 투자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게 아니면, 성경 구절에서처럼, 빈곤한 자, 약한 자, 고아,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일들을 하면서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생활과 존재의 새로운 방식을 고려할 작은 여지가 생깁니다. 자신들의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담론을 숙고하는 힘없는 자들이 진실을 말하고 현실을 드러내면서 대중 담론에서 보편적 시스템에 대한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불의의 구조가 옹호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이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세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시편 82장).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대 푸드시스템에서 벌어지고 일들을 적절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분명한 반박 담론으로, 지배적인 담론 지지자들이 우리를 비판하는 것처럼, 세계화와 개발에 반대하는 것은 보호주의와 폭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과 다국적 협력이라는 이데올로기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인, 더 정의롭고 살만한 세상을 향한 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계 근간 흔들기

어떠한 문화와 농업이라도 그 근간은 그곳의 토지와 사람들입니다.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건강은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토지가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느냐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생산량 증가는 이익을 위해 상품이 생산되는 시스템에서 빈곤층이 식량을 제공받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국적 협력으로 지배되는 글로벌 푸드시스템은 자선 단체가 아닙니다. 생산량 증가는 사람들에게 식량 공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토지가 얼마나 잘 관리되는가? 토지가 공정하게 분배되는가? 사람들은 잘 먹고 있는가? 농장과 도시 간 관계는 어떤가? 음식이 농장에서 식탁으로 이송되는 방식은 우리 농장들의 건강과 우리 도시들의 정신적 안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토지의 건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시스템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매일 21,000명이 배고픔으로 사망하고 8억 5천만 명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장과 생산성을 자랑하는 나라인 미국에서는, 7명 중 1명이 식량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4천 6백만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피딩아메리카의 밥 에이킨CEO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자녀들에게 음식을 사줄 것인지 아니면 공과금 납부, 임대료 납부, 의약품 구매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굶주리는 미국: 일곱 명 중 한 명 푸드뱅크로 연명”, 2014년 8월 17일 USA 투데이 기사, 2016년 8월 17일 접속).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기술(예를 들어 생명공학)이나 더 많은 자본 투자를 확보하면 해결될 수 있는, 농업 생산량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굶주림의 원인은 복잡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굶주림은 전쟁, 부당한 토지 소유, 가뭄,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강제 이주 등으로 야기됩니다. 여기에 식품 가격을 인상시키는 원자재 투기인 바이오 연료 생산과 선진국과 투자 회사들의 “토지 횡령”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 반드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일본의 여러 정부기관이 지지하는 “토지 횡령” 사업들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잠비크 프로사바나 사업은 천4백만 헥타르 규모의 농업 사업으로 2008년 이래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초기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 진행되고 사업 파트너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윈윈 상황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인프라 개발을 위한 원조를 이미 약속했었고, 이토추와 같은 기업들이 일본과 기타 시장에서 판매할 상품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좋은 거래였습니다.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는 헥타르당 1달러에 임대될 예정이었고 토지 면적은 일본의 전체 농업 토지 면적의 세 배 이상이었습니다. 현실은 그 토지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잠비크 농부들은 삿포로와 도쿄를 찾아와 2백만 명 이상, 어쩌면 4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토지, 지역사회와 연결성, 그리고 삶과 지속성의 원천을 잃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모잠비크에서는 80% 이상이 농부입니다. 자본 투자가 반드시 굶주림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투자와 어떤 기술이 인간의 자유와 더 완벽한 안락으로 이어질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굶주림이 우리가 당면한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비만과 당뇨, 심장병, 그리고 암 같은 비만 관련 질병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전 세계 국가들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규모의 섬나라에서는 비만율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좀 더 인구가 많은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가 최근 미국을 추월해 세계에서 비만 발병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비만을 증가는, 멕시코의 전통적 농업을 지원했던 보조금이 철폐되고,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멕시코 시장에 가공식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비만율은 22%로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하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정책을 포함한 무역협정은 외국 기업들이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위한 식품 공급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서양 음식 광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국가의 식생활 습관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또한, 땅, 공기, 물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토양은 다양하여서 토양에 대한 문제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농기구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토양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토양 통기와 물 침투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물의 유수와 토양 침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또한, 산업 농업 생산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연간 화석연료 소비의 10%가 질소 비료 생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료 생산은 농업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합니다. 또, 많은 농업 화학제품들이 화석연료에서 합성됩니다. 비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아산화질소도 지구 온난화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국제 곡물 무역 역시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맨체스터 가디언은 2008년 국제 해상화물이 11.2억 톤, 그리고 항공수송이 6억 5천만 톤의 탄소를 배출하지만, 유엔의 기후 변화 논의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적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원자재 교역도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에서 공개적인 감시망을 벗어났습니다. 이러한 탄소배출량을 포함해서 온실가스배출량 감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역적이고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농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탄소배출이 감소하고, 유기물이 토양에서 증가함에 따라 토양 탄소격리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농지에서 농업 비료와 화학제품이 흐르면서 땅과 지표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미시시피 강 어귀 멕시코 만에 죽은 지역(dead zone)이 형성됐고, 지역 어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는 도시 거주자들을 위한 정수 비용을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 도시인 디모인에서는, 농장주의 농지에 있는 배수 토관에서 화학제품이 침출돼 강으로 흘러들어가 시의 상수도를 오염시킨 데 대해 농부를 고소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학제품과 대규모 폐쇄 가축 시설 그리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콩 단일재배로 인한 상수도 오염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 농업은 농부들이 생존을 위해 효율성과 농지 규모 확대 압박을 상품 시장에서 받게 되면서 농촌 지역에 파괴적인 사회학적 영향을 미칩니다. 농업에서 발생한 기술 변화에서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초기에는 육체노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소규모 기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 뒤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 개발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결과, 농부들이 처음으로 농업을 시작할 때 들어가는 필요 자본 비용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게 되면서 농업 진입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게 됐습니다. 농업에 남아있는 농부들이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기계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는 농업 인구와 농촌 사회에서 고령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경제학 논리에 따르면 농부들은 계속해서 규모를 확장해야 합니다. 더 넓은 토지 면적에서 생산 비용을 줄이려고 자본 투자 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게 경제적 관점에서 합당하지만 이런 관점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시장 통일성 요구는 농부들이 거의 어쩔 수 없이 종자 종류, 화학제품, 그리고 비료를 포함한 동일한 농작물 생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 지역 경제 밖에서 생산되며 의존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최근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종자 개발로 종자 기업들이 종자에 대해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이 유전자 변형 기술을 사용해 생산된 종자를 더는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최종 사용자 합의는 통제의 수단입니다. 이 합의는 종자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어느 종자 기업의 임원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종자는 소프트웨어이고 우리는 종자를 소유한다.” 만약 종자 특허가 일반적이게 된다면 농부와 농부들의 국가조차도 종자 기업들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컴퓨터도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농지도 종자가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생물에 특허 출원을 반대하는 것은 희망의 표현입니다.

산업 농업의 심리학적인 영향은 또한 농부와 농촌 공동체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기술적 변화, 정책 변화, 그리고 기업의 농업 및 농산업 투자는 인간을 소모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제학적 용어로 농부를 생산자, 농장을 생산 단위라고 일컫게 되면 부도로 인한 농장 자살과 농장 손실에 대해 훨씬 더 쉽게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업적 세계관에 따르면 소규모 농장의 제거는 사회가 대량 소비 사회를 향한 단계로 움직이면서 발생한 진화적 과정으로 간주합니다. 이 시스템은 인간의 노동을 비하하고, 농업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며,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며, 어떻게 해서든 생산이 이루어지는 한 농부가 살든 죽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립된 개인주의와 무책임성을 제도화하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저는 캐나다, 미국, 그리고 일본 3 개국에서 살면서 농부의 삶과 농촌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목격해왔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들, 생태학적인 문제들, 권력과 통제의 사회학 및 정치/경제적 문제, 그리고 이 시스템으로 발생하는 정신/심리적 문제의 엄청난을 지켜보면서 압도당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시스템에 속해 있으며 이 시스템은 우리 모두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조직적인 문제입니다. 과거에 인간은 특정한 이데올로기와 세계관을 바탕으로 구조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시스템은 유용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으나 이제 우리에게 맞서며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 시스템은 우리의 충성심을 요구하고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지속되고 농촌 공동체와 인간의 삶이 파괴되면서 이익을 얻는 기업과 기관들이 실제로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몬산토, 마루베니, 이토추, 바이에르 케미컬, 신젠타, 존 디어, 그리고 기타 많은 기업들이 이 시스템이 지속되면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듣게 된 주장은, 세계의 구원이 이 시스템의 지속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역적인 지속 가능한 농업을 향해 간다면 세계가 굶주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이미 굶주리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인간이나 인간이 살고 있는 특정한 곳의 안녕을 돌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경제 구조에 관한 담론을 지배하게 된 기업들은 법적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이윤을 극대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대량 소비 사회에 살고 있는 순종적이고 무지하고, 소외되고, 고립된 개인에게 이 시스템의 비용을 전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전가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업들이 전통적인 공동체와 농촌 생활을 파괴하면서 본질적으로 대량 소비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인 우리가 무

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푸드 시스템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 팔 상품을 재배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식량을 재배하기 위한 것인가? 사람들을 세계화된 생산과 소비 시스템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자유롭게 해서 토양을 관리하고,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역 기반 경제를 새롭게 하기 위해 서로 연대해 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가? 저는 우리가 지역 경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숙고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향해 노력할 것인가? 현대 기술 사회에서는 마치 공동체 삶을 설계할 수 있다는 듯이 지역화의 방법과 기법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인간을 돌봄과 사랑하는 것이 지역화에 대한 발상보다 우선시돼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다 지역화와 로컬 푸드라는 발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공동체의 파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이상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일본에는 공동체 지원농업(CSA) 연구 단체가 있는데, 저는 지난 2년간 이 단체에 참여해왔습니다. 대부분CSA의 기법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기법을 다 알게 되면 누구라도 공동체 지원 농업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CSA 운동의 선구자인 트라우거 그로는 25년 전 소규모 그룹에게 회복력 있는 CSA 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초 저는 같은 곳을 방문해 미국 공동 추수 농장CSA의 댄 군트너와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마가렛은 27년 전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CSA에서 새로 온 농부들이 바뀌고 있다고 애석해 했습니다. 그가 시작했을 때는, 산업 푸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정당한 푸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중점을 두었습니다. 최근CSA 회담에 참석한 후 댄과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편리한 가정 배달과 신선함을 가장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우면서 CSA가 마케팅 기법으로 변하고 있는 것 이었습니다. 댄에게 충격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한 농부가 회담에서 “나는 내 회원들을 몰라도 상관없다” 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농부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회원들과 연결됐고 회원들이 “그들의” 농장을 온라인으로 방문할 수 있게 농장 주위에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사람들간 접촉은 줄어들었고 가상 농장 방문은 실제로 농장을 방문하는 것과 다릅니다. 디지털 시대에 “공동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은 사람들이 공동의 신념을 공유하고 식량 재배의 기쁨과 어려움 그리고 땅에 대한 애정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경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1 세기 비폭력 사회 변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살아있는 정신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공적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굳건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몇몇 사람들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간디는 억압받는 사람과 억압하는 사람 모두 신의 자식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양쪽 그룹의 사람들을 모두 약탈하기 때문에 굴욕감을 주는 구조에 비협조가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믿었습니다. 진실된 것을 위해 비폭력적으로 고통을 참으려는 의지

가 시스템의 폭력을 드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이 친구가 될 수 있는 맥락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비협조는 저항을 의미하지만, 마을 경제를 새롭게 하는 복원 프로그램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장식 문명 위에 비폭력을 건설할 수 없다... 내가 구상하는 농촌 경제는 착취를 완전히 멀리한다. 그리고 착취는 폭력의 본질이다. 따라서 비폭력이 될 수 있기 전에 농촌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농촌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물레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

- 간디Gandhi, 간디, 비폭력에 대해서 Gandhi on Non-Violence, p. 54

행동원칙으로서 물레는 인간과 땅의 공동체 연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착취 시스템에 대한 지지와 의지를 철회하는 수단입니다.

체코 극작가인 바츨라프 하벨은 독창적인 에세이 "힘 없는자들의 힘(the Power of the Powerless)"에서 전체주의적 시스템 내에서 시스템의 약속과 사람들의 경험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시스템이 약속한 작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사람들이 거짓을 살기를 멈추고 진실 속에 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실 속에 살기"를 통해 하벨은 평행한 정치적 경제를 만들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람과 땅을 착취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은 다른 방식의 가능성이 알려지게 되면 권위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벨은 이를 "모든 사람의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푸드 시스템의 본질에 대해서 숙고할수록 이 시스템이 전체주의 논리와 유사점이 많다고 더 확신하게 됩니다. "전 세계를 먹이는"송고한 임무의 책임을 진 우월한 푸드 시스템을 만든다는 생각과, 올바른 것을 기반으로 법을 만들지 않고 권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지식재산권법과TPP같은 무역협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 논리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입니다. 전체주의 시스템은 또한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면서 삶을 지배합니다. 농업 산업화와 개발 과정에서 이 점이 적절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대라는 공동의 결속력을 부수게 됩니다. 농촌 지역에서 고립과 외로움을 만들어내고 도시에서 고립과 외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공동의 의식이 사라지면 서로를 신뢰하기 힘들어집니다.

우리 존재에 두려움이 깃들게 되면 마비되기 쉽고, 살고 존재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아마도 세계화로 인한 거대한 두려움 중의 하나는 뒤쳐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고립된 개인이 세계화된 식품 경제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일 것입니다. 정치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 시스템이 논리에 호소로 변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화는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이해는 끝이 없는 활동이다. 지속해서 변화하

고 변동하면서 우리는 이해를 통해 이 세상에서 편안해지려고 노력한다. 이해는 끝이 없다. 인간이 살아있는 특별한 방식이다."전체주의 이데올로기는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밭아래 땅을 보살피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극복됩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폭력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이면 서도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저는 로컬 농업을 새롭게 하려고 일하는 공동체 사례가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워크숍 세션에서 공동체 지원농업 사업의 조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농장에서 식탁으로 이송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기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있는 베이커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네 명과 함께, 평화의 방식과 사랑의 힘에 대한 헌신에 뿌리를 둔 지역 경제를 만들면서, 살아있는 정신성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을 고안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톨 그래스 프레리 브래드 컴퍼니는 26년 전 시작했습니다. 위니펙에 있는 작은 기독교 공동체 회원들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일하고 빵을 굽고 싶다는 바람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유기농 농법을 사용하는 지역 농부들을 지원하고, 농부들에게 그들이 생산하는 곡물에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고, 직원들에게 좋은 임금을 주며, 영양가 있는 빵을 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들렸고 비즈니스 컨설턴트들은 우리가 하려는 일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농장 위기로 농부들이 땅에서 쫓겨나고 부도와 자살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곡물을 제분할 적당한 규모의 제분소를 매입했지만, 농부들로부터 곡물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캐나다 곡물 구매자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밀 위원회에서 우리의 불법 행위를 알아차리기 전까지 법을 위반하면서 2년 동안 농부들로부터 곡물을 구매하고 농부들에게 곡물 시장가의 최대 4배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적당한 규모의 제분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규모의 경제 이론을 다룬 경제 교과서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밀가루의 비용 계산을 시작했을 때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미국 기업들은 매니토바의 모든 제분소를 사들였고 폐쇄했습니다. 우리가 매입한 상대적으로 덜 비싼 제분소는 우리가 농부들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급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미국 밀가루 공급자들로부터 사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밀가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이라는 E. F. 슈마허의 발상은 공동체 규모의 비즈니스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또, 저는 간디의 글을 생각했고, 우리 베이커리에 대한 TV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면서 제가 제분소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꽤 망설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제분소의 경제적 힘과 제가 경제학 교수들에게서 배운 규모의 경제와 상충되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 제 머리가 아직도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작은 제분소는 아마 캐나다판 간디의 물레일지도 모릅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곡물에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고 직원들에게 평균 이상의 임금을 주고 위니펙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베이커리는 매년 150톤의 밀가루를 제분하고 6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로컬 비즈니스의 중대한 질문 중 하나는 소유와 지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유자로서 우리가 맨 초

기에 묻는 중대한 질문 중 하나는 이 베이커리가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입니다. 벤 앤 제리스처럼 팔리게 될까? 벤 앤 제리스는 지역 농부들을 지원하는 버몬트의 로컬 기업이었지만 세계 최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인 유니레버가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주주는 인근에 거주해야 한다는 소유자 합의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자본이 지역 공동체에 남고 소유자들을 볼 수 있으며 그들이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위니펙을 떠날 때 저는 제 소유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베이커리는 국제 지속 가능한 발전 연구소와 다양한 로컬 커뮤니티 서비스 어워드에서 주는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초기 소유자 중 한 명인 폴 링글은 톨 그레이스의 핵심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화해에 관한 것이고 우리 세상에서 화해를 실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땅, 그리고 시골과 도시 사이의 화해이다. 우리는 모든 이들의 축복과 존경에 초점을 둔다." 이 베이커리는 위니펙과 매니토바주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톨 그레이스가 시작된 이래로, CSA가 시작됐고,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위니펙 프리 프레스 기자가 위니펙의 사랑받는 베이커리인 "톨 그레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취재하기 위해 4월 일본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위니펙에서는 "톨 그레이스"가 모든 이들의 베이커리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톨 그레이스는 자신의 안녕뿐만 아니라 그들이 비즈니스가 의지하는 농부들과 땅을 비롯해 도시의 안녕을 추구하려는 소유자들의 바람에서 시작됐습니다.

지역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신성의 정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생각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행동은 저항과 갱신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존재의 핵심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와 떨어져서는, 그리고 도시 거주자와 농부들, 우리 모두에게 돌보도록 맡겨진 땅과 관계에서 떨어져서는 우리가 누군지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깊은 의미를 바탕으로 우리는 로컬 푸드 시스템과 푸드 경제를 새롭게 하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임무를 함께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고 땅을 돌보고, 생명의 선물을 주신 신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논산시의 미래

황명선

충청남도 논산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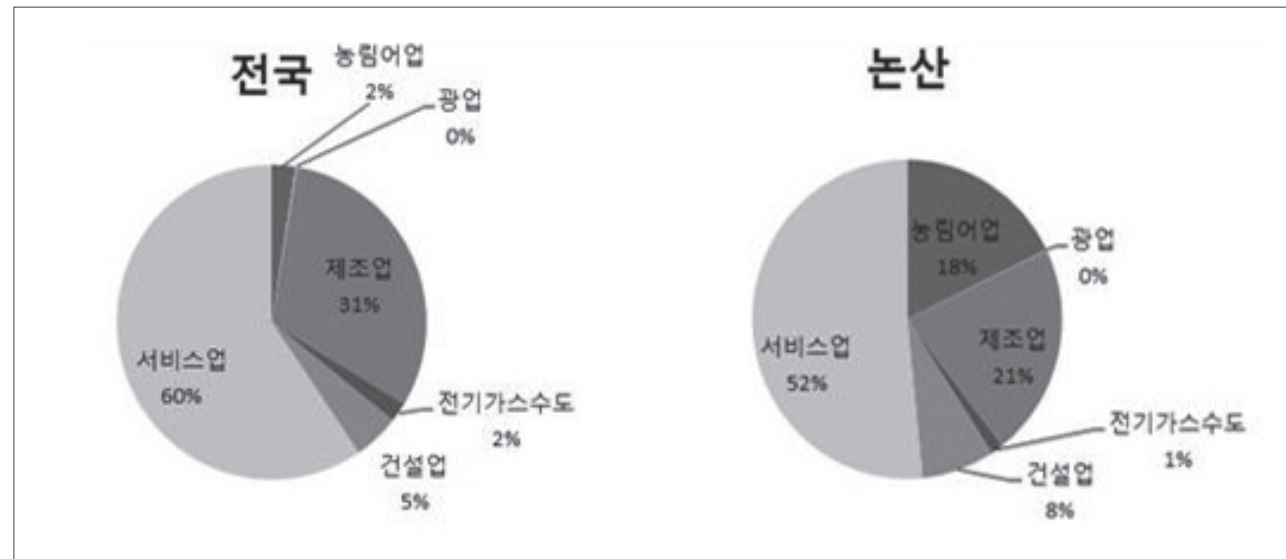
1. 들어가기

논산시는 대한민국의 중부지역인 충청남도의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어 남쪽은 전라북도와, 서쪽은 대전광역시와 접하고 있다. 총 554.81km²의 면적에 임야 42.5%, 전답 37.6%(과수원 포함)가 차지하고 있어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토지이용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12월 현재 12만7천735명이 살고 있다. 행정구역은 2읍 11면 2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논산시의 위치와 행정구역〉

전 세계적으로 모든 농촌지역이 위기이듯이 논산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1965년 25만9천여 명이던 인구는 50%이상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1.6%에 달하고 있다. 지역총생산의 경제활동별 비율을 전국과 비교하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는데 이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상업 및 사회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느 농촌과 마찬가지로 논산은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감소에 따라 상업서비스와 함께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사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또 다시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 침체의 악순환에 진입하였다.



〈논산시의 경제활동별 GRDP와 국가 GNP와의 비교(2012년)〉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을 이룬 대부분의 국가들은 출산율의 저하로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인구절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농촌지역은 스스로 존립할 수 없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대면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산업화를 통해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농촌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도시로 동원한 탓에 농촌지역의 인구는 감소하였고 지역의 잠재력은 점점 약화되었다.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개발사업은 다른 지역에 팔 수 있는 것을 만들어 팔고 벌어들인 그 화폐로 지역에 필요한 것을 외부로부터 사들이는 이른바 '화폐적' 발전 전략을 구사하였기 때문에 농촌의 지역경제는 도시경제에 종속되었고 산업구조는 파편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반에서 자가발전에 필요한 사회역량은 점점 약화되었다.

논산시는 이러한 지역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의 활성화, 공동체경제의 육성, 공공서비스의 강화 등을 시도하고 있다.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경제를 통해 순환하는 지역경제구조를 만들며, 공공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인구감소와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아 인구감소, 삶의 질 저하, 지역침체가 다시 인구감소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내발적 지역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2. 주민자치의 활성화

주민자치는 행정력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당면문제를 발굴하여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일에 지역의 자원을 동원하여 순환경제에 기여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주민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기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 발전의 근간이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1995년 6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함께 지방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제도를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논산시는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계층별 '타운홀 미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지난 6월 11일, 여성의 경우 지난 6월 13일, 청장년의 경우 지난 8월 26일 각 계층 5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타운홀 미팅'에 참여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발굴, 정리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의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시설과 문화공연의 확충, 진로교육을 포함한 교육여건의 개선,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확인하였다.



〈2016년 타운홀 미팅, 청소년(좌), 여성(우)〉

논산시는 20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오고 있었으나 읍면동에서 발굴한 사업의 대부분은 도로개설 및 포장, 농수로 정비,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와 같은 시설 위주의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당면과제나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과는 거리가 있었다. 2016년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주민참여예산제를 연계한 주민참여예산 발굴사업발표회를 추진하였다. 즉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발적 노력으로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 사업을 내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지난 1월 읍면동 순회교육을 거쳐 각 읍면동은 위원회를 정비하고 분과를 편성하여 매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며 7월까지 사업을 발굴하였다. 이후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와 조정을 거쳐 지난 8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5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할 사업을 발표했다. 이 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1개면, 주민상 1개면 및 1개동, 자치상 2개면이 우수 읍면동으로 시상했는데 논산시는 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상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주민참여예산도 차등하여 증액 배정할 예정이다.



〈2016년 주민참여예산 발굴사업 경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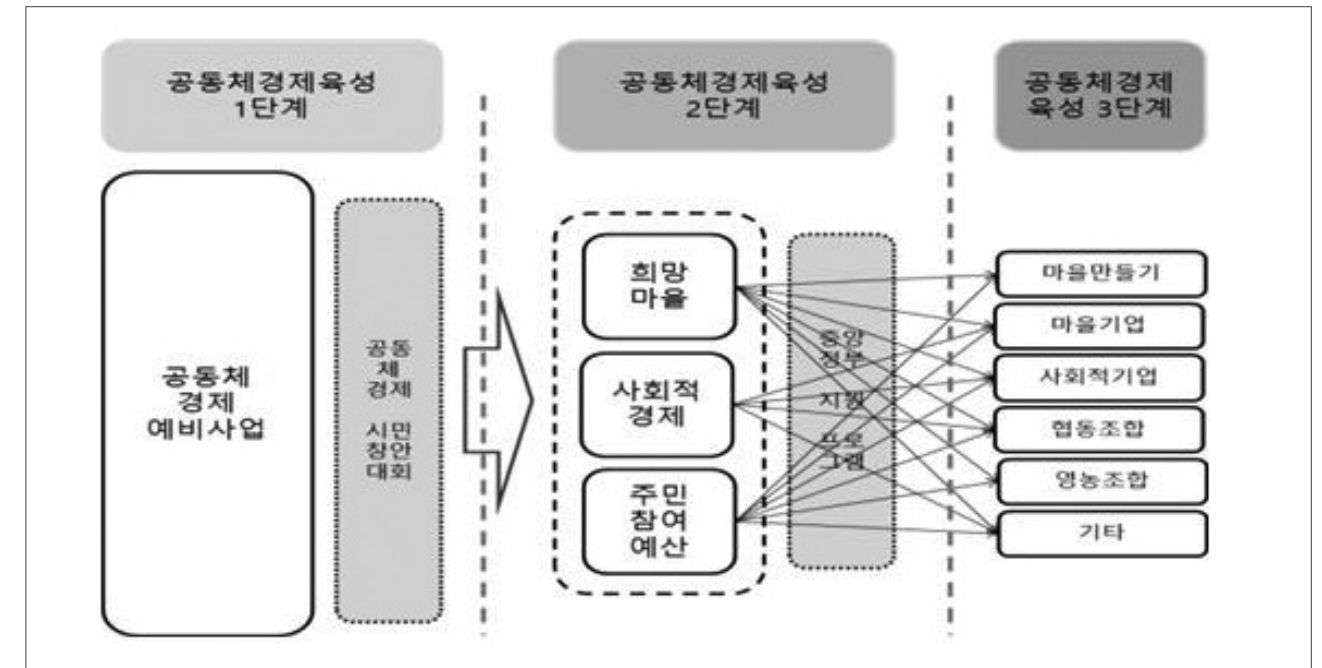


시민들은 '타운홀 미팅'과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정과 지역발전에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확인하였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은 행정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3. 공동체경제의 육성

두 차례 경제위기를 겪은 대한민국은 2006년 사회적기업육성법과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자활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정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지원과 노력이 일자리 창출에 중심을 두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된 활동기반을 갖추는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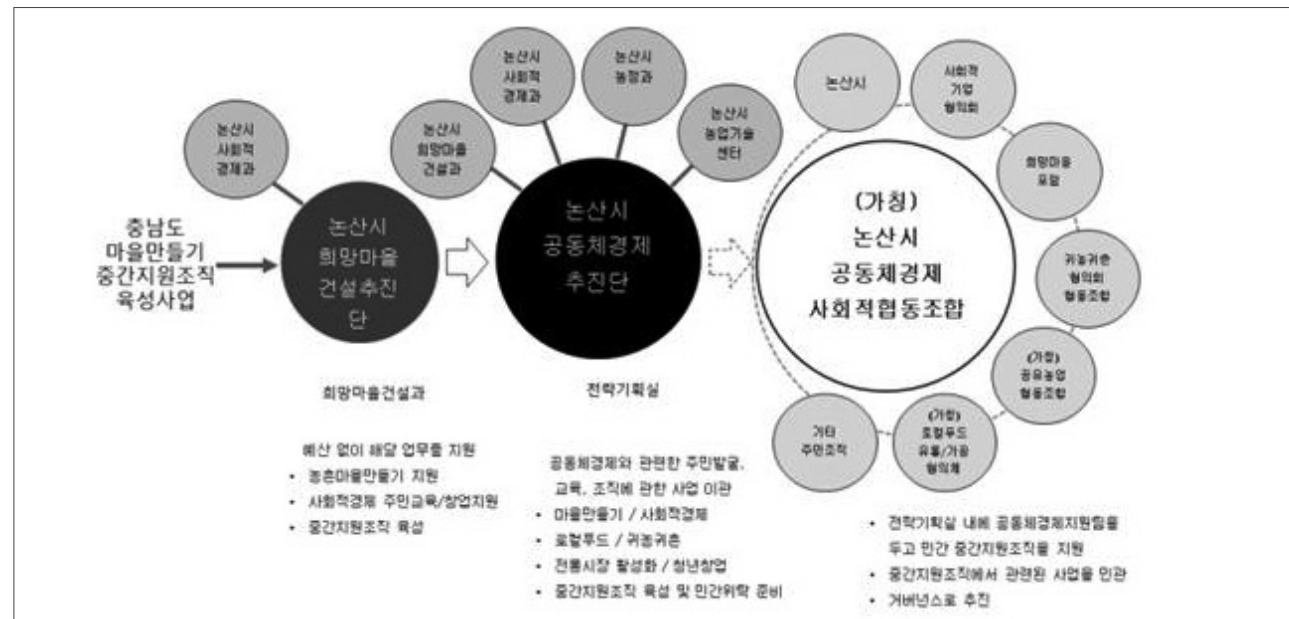
논산시는 1990년대 후반 시작된 도시와 농촌의 마을만들기운동과 마을사업을 사회적경제와 접목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를 육성하고 이러한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호혜, 나눔, 배려가 우선시 되고 물질과 자본이 순환하는 지역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논산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를 통합, 추진하면서 공동체경제를 육성하고 있다.



〈논산시의 공동체경제 육성체계〉

공동체경제 육성사업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주민들의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와 요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예비단계로 적절한 주민조직의 사업구상에 대해 학습활동, 선진 사례 견학, 시제품 개발, 예비창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소액을 지원한다. 2단계는 1단계의 주민조직이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진입할 수 있는데 1단계 활동의 결과에 따라 마을기반, 사회적경제기반, 주민자치 기반에 따라 발전되고 구체화된 주민활동이나 기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단계는 적절한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을 연계하여 건실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역량단계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역량에 맞추어 자발적 활동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 활동과 사회적 경제활동이 어우러져 따뜻한 지역사회가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논산시는 이를 위해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의 전문가 5명, 활동가 3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전략기획실 내에 공동체경제추진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차후 공동체경제추진단은 민간중심의 중간지원조직으로 발전시켜 행정과 분리하여 민관협치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공동체경제추진단은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 주민 발굴과 조직, 주민조직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주민조직 간의 교류와 협력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에너지 자립, 진로교육 및 학교밖 청소년 교육, 대안여행 등 지역사회에서 취약한 분야의 주민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논산시 공동체경제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육성 방안〉

공동체경제는 외부로부터 벌어들이는 화폐에 집중한 그 동안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으로 들어온 화폐가 다시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즉 지역경제의 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 과거의 지역경제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순환하였다. 농민들은 농산물을 전통시장에서 나와 팔았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하였기 때문에 지역의 돈은 전통시장에서 순환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창업이 이루어졌고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전통시장의 쇠퇴는 파편화된 지역경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논산시는 이러한 전통시장의 기능을 복원하고자 한다. 논산에는 호남선의 개통에 따라 활성화된 오랜 역사를 가진 화지중앙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을 활성화하기 중소기업청의 골목형시장 육성사업과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근의 중교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을 확충할 예정이다.



〈화지중앙시장의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시장환경개선안(좌)와 주차장 정비사업안(우)〉

4. 사회서비스의 강화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되면서 사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 적절한 인구밀도가 유지되어야 공공 및 사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인구밀도가 낮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 분야인데 농촌지역은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교육환경이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어려워졌고 더 나은 질의 교육환경과 서비스를 찾아 농촌지역의 젊은 가구는 농촌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낮은 질의 사회서비스는 농촌의 인구 이탈을 부추기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논산시는 열악한 사회서비스를 도시에 비해 모자람이 없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 번째는 청소년교육 분야이다. 2016년 상반기 관내 12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663명 전원은 3박4일간 중국 상해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항일운동의 거점이었고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부각하고 있는 상해라는 도시에서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과거의 올바른 역사인식의 바탕 위에서 진취적인 미래를 탐구하기 위한 실질적 학습활동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논산시는 기존의 제주도 수학여행 경비와의 차액을 지원하고 수차례 상해 답사를 통해 견학코스와 학습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 논산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단체, 동창회 등과 협력하는 협치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까지 한명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성과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청소년 해외연수를 위한 고교동문회장 간담회(좌)와 윤봉길기념 공원 견학(우)〉

또한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를 추진할 계획인데 직업흥미검사, 진로전문가 상담, 직업인 및 대학생 멘토링, 직업체험 활동을 이루어진다. 이번 진로직업박람회에서는 과거와 달리 도시형 직업 뿐 아니라 농민, 농산물 유통회사 CEO, 농촌지도사, 사회적경제 활동가 등 농촌지역사회에도 필요한 직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 사업을 기획하는 청소년 정책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강화의 두 번째 대상은 어르신들이다. 농촌지역의 경로당을 실질적인 복지서비스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동고동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고동락 사업은 논산시청의 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 보건소가 동일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통합,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선 19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과는 경로당을 독거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른바 그룹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19개 마을에서 110여명의 독거노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호응으로 45개 마을이 추가 신청을 한 상태이다. 평생교육과는 경로당에서 한글교실과 작은 마을도서관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있다.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19개 마을 이외에 3개 마을이 추가신청을 하여 총 22개 마을, 286명이 참여하고 있다. 보건소는 시범마을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카드를 만들어 기본적인 건강상태와 발병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건강상담을 추진하는 마을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동고동락 사업 설명회(좌)와 독거노인 그룹홈 (우)〉



〈마을한글학교 입학식(좌)와 마을 건강관리프로그램(우)〉

동고동락 사업으로 예산투입 위주의 노인복지사업을 기존의 행정서비스와 마을의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관계망 중심으로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다. 이후 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여 509개 경로당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강화의 세 번째 대상은 청년층이다. 다른 농촌지역과 같이 논산도 일자리 및 문화서비스의 부족, 육아,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의 미비로 청년들의 지역사회 이탈이 심하다. 논산시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중심으로 보람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창안대회를 개최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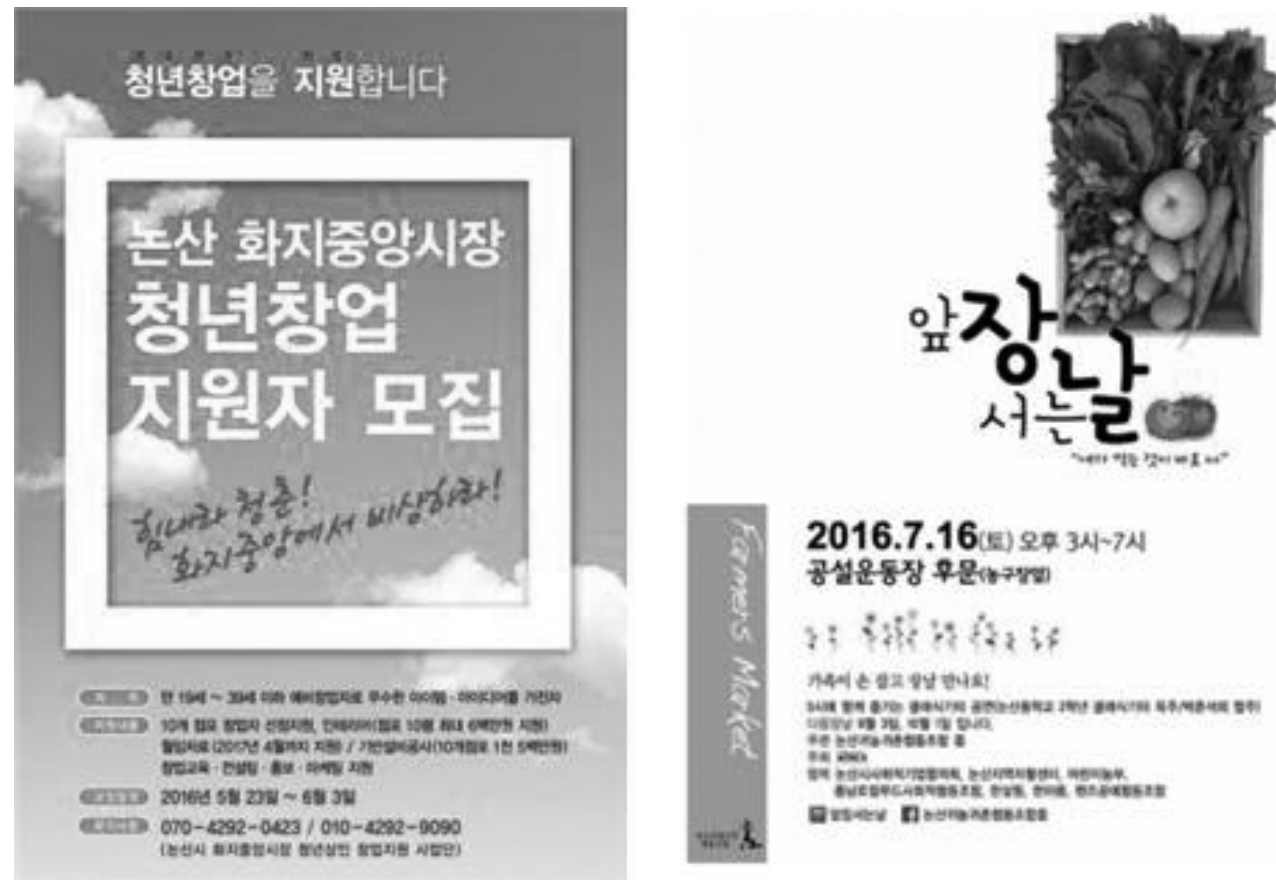


〈시민창안대회 수료식(좌), 청년창업활성화 간담회〉

또한 논산 화지중앙시장의 쇠퇴한 상권지역에 비어있는 상점을 활용하여 청년상인을 육성하는 중소기업청의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여 10명의 청년상인이 10월 중순 개업을 목표로 빈점포를 개조하고 상가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청년 귀농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귀농귀촌협동조합의 직거래 장터를 지원하고 있다.

4. 나아가기

주민자치의 활성화, 공동체 경제의 육성, 사회서비스의 강화라는 기존의 '화폐적'지역개발에 대안적인 지역발전의 시도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의 어두운 터널을 빠르게 빠져나오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것은 선부른 판단일 것이다.



〈화지중앙시장 청년상인모집과 귀농귀촌협동조합의 직거래장터 포스터〉

현재의 논산시의 사회, 경제구조로 볼 때 여전히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율은 높아질 것이며 지역의 인적, 물적 자본의 역외 유출도 상당히 유지될 것이다. 이는 어쩌면 논산의 지역사회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임계치 이하의 경제구조, 사회구조로 이행되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산시는 다른 지역, 특히 도시와의 연계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도시로부터 인적, 물적자본과 그리고 건강한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무형의 사회적 자산을 수혈하지 않는다면 이 위기를 탈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베이비부머와 청년들을 중심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귀농 및 귀촌학교, 귀농인의 집의 조성, 귀농귀촌멘토링 등 귀농귀촌과 관련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시흥시와는 도농상생사업을 통해 시흥시의 귀농귀촌 희망자를 논산시에 우선적으로 유치하면서 논산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시흥에서는 식량복지를 구현하는 사업과 같이 식량, 주거, 일자리 등의 사회 서비스를 양 지역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시흥시도 '인구절벽'이라는 가까운 미래의 위기를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논산시는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세계화와 자본주의적 지역개발에 의해 빼앗긴 지역

주민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되찾고자 하는 논산에서의 ‘따뜻한 지역공동체’의 실험이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농촌의 위기, 논산시의 위기는 전 세계 농촌 및 지역의 위기와 같은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논산시의 실험이 지구 공동체의 행복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6 Jeonju**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의 미래, 지역화
Local futures, Localization

CHAPTER 05

워크숍 1세션
'지역의 미래'

-
- 세계를 구하고자 한다면 지역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조지 퍼거슨(George Ferguson)
 - 지역의 미래 : 윤리 및 새로운 경제를 위한 뉴미디어 잔 보아그(Zan Boag)
 - 2000년 전주의 세 가지 변화와 전주의 미래 원도연
 - 협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하여 유창복
 - 지역공동체 회복력의 제고를 위한 지역화 전대욱
 - 지역, 지역사회 인식의 재구성 필요 김남규

워크숍 1세션 '지역의 미래'

- 민선6기 우리 시의 중요한 가치인 생태도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해외 전문가, 국내 유관단체 및 현장기업가 등과 상호 비전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場(장) 마련
-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행복의 경제학'의 가치를 공유하고 관심을 제고하여 시민의 인식을 확산 발전시키기 위함.

■ 진행 순서

시간		구분	내용
14:00 ~ 14:10	10'	개회	개회인사, 발제 · 토론 · 사례발표자 소개, 내빈소개 워크숍 진행방법안내
14:10 ~ 14:40	30'	발제 1	세계를 구하고자 한다면 지역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조지 퍼거슨 前 영국 브리스톨 시장
14:40 ~ 15:10	30'	발제 2	지역의 미래 : 윤리 및 새로운 경제를 위한 뉴미디어 잔 보아그 호주 New Philosophy 설립자
15:10 ~ 15:40	30'	발제 3	2000년 전주의 세 가지 변화와 전주의 미래 원도연 원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15:40 ~ 15:50	10'	휴식	
15:50 ~ 16:50	60'	종합토론	유창복 서울시 협치자문관 전대욱 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공동체발전센터장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16:50 ~ 17:40	5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발제 · 토론 · 사례발표자와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7:40 ~ 17:50	10'	마무리	마무리 및 기념사진 촬영

좌장 원용찬(전북대 경제학과 교수)

세계를 구하고자 한다면 지역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조지 퍼거슨
(George Ferguson)

우리는 교훈을 얻기 위해 역사를 공부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모든 사람에게 손해가 아닌 이익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제일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우리와 우리 주변의 커뮤니티와 도시를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증가하고 있는 자가용에 대한 의존성에 대해 먼저 논해볼까 합니다.

자가용은 우리의 애인이고 상전이며, 동시에 도시의 골칫거리입니다. 다른 유수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교통이라는 주제를 다른 것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는 해도, 우리는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데 집중하는 동시에, 쓸데없이 무언가를 수송하는 것을 줄이면서 폐기물이나 경제적으로 불필요하게 지워지는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가용을 대체할 방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집중화된 산업으로 생긴 부작용의 하나인 필요 없는 출퇴근을 줄이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소규모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굳이 음식이나 폐기물을 멀리 옮겨야 할까요?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물은 더 신선하고 유통과 포장에 있어서도 덜 소모적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할까요?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전주의 역사 거리와 같이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를 이용하여 멋진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해결하고자 수천,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서 이것저것을 옮겨오고 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기술에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의사소통의 최소화가 아닌 기술의 발전이 지역을 더욱 활성화하지만, 이것이 과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립을 의미할까요? 저는 50만 인구의 도시의 시장으로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자립적인 지역의 사업과 계획을 보좌함으로써 지역 밖, 그리고 외국에서 유입되어 오는 시장을 대체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이는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유일무이한 특색을 지닌 지역, 그리고 바깥세상과 충분히 연결되어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역적 또는 세계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싶다면 과연 어떠한 요인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역의 미래 : 윤리 및 새로운 경제를 위한 뉴미디어

잔 보아그
(Zan Boag)

우리는 각 지역에서 경제, 정치, 사회, 환경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많은 경우가 윤리를 도외시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윤 추구가 우선시되면 어떤 고통이 뒤따릅니까? 모두 나열하자면 너무 길어지지만, 사람부터 시작해서 관계, 환경, 그리고 각 고유한 문화의 특징까지 모두 문제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의 중심에는 윤리가 자리 잡고 있으며, 사업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적인 두 잡지로, 전 세계 18개국에서 16,000개 이상의 이야기를 담은 출판물이 광고 없이 배부되었으며, 둘 다 상을 받았습니다.
- 지식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 서점
- 윤리적인 생산 과정을 거친 유기농 차 라벨

두 잡지는 상업적인 시각이 아닌 생태학적 및 사회적 관점에서 우리 시대의 중요한 논점을 논의하는 포럼을 제공하며, 각호는 기술의 역할, 교육의 목적, 행복 추구, 진보에 대한 현대의 관점과 같은 어려운 논제를 동시대의 시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수준의 논의와 토론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광고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독립 서점은 지식인이 모이는 장소이며, 과거 및 현재 사상가의 책을 제공하여, 고대 로마 학자인 세네카(Seneca)와 최신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책이 공존하며, 데이빗 스즈키(David Suzuki)의 옆에서 라오 츠(Lao Tzu)의 저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서점은 보유하고 있는 책들 및 이 서점에서 구할 수 없는 책들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연애소설, 최신 스티리, 증명도 되지 않은 최신 유명인사의 전기는 독립 서점에서 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최근 우리는 윤리적인 생산 과정을 거친 유기농 차 라벨을 생산하며, 이 라벨은 우리 서점 및 우리와 협력 관계를 맺은 다른 독립 서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차와 좋은 책이 훌륭한 조합이라 생각하며, 우리를 긍정적인 토론으로 이끌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도와줍니다.

세 가지 사업 분야에서 모두, 우리는 얼마를 벌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업을 하는가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며, 사회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받은 인가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윤리적으로 사업해야 합니다. 우리를 포함해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구라는 행성의 관리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의 거주자에게 물리적인 환경과 문화적인 부분 모두를 건강한 상태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탐욕과 무절제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윤리가 더 중요합니다.

먼저, 윤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 사업을 윤리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 사업이 윤리적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 사업 관련 결정을 할 때 이윤 추구보다 윤리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왜 중요한가?
- 윤리가 아닌 이윤 추구를 위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 사업이 윤리적이면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

사업 윤리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고 칭찬할 때 생겨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열쇠는 미디어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국제적인 잡지를 출판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글로벌 미디어의 작용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본질적으로 생각과 행동을 정의하므로, 윤리적인 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생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미디어가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며, "부에 대한 목록"이 아닌 "윤리적인 목록"을 추구하고, 가난하며 불행한 자들이 아닌 탐욕적이며 무절제한 자들에게 수치를 주어야 합니다.

미디어는 기사, 이미지, 동영상, 소셜미디어 형태로 소비하는 콘텐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구에 사는 인류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지역적, 지방적, 국제적 커뮤니티에 중요한 여러 문제를 나름의 관점으로 그려낼 힘을 갖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는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한 영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죽음과 파괴를 축하하는 대신, 생명과 재생을 축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방향을 바꾸고자 한다면, 또 우리가 물려받은 것을 미래 세대에 전해줄 기회가 있다면, 사람들이 소비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고 적절한 분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음식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소비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말하자면 미디어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저는 새로운 방식의 생각을 위해 뉴미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방식의 생각은 미디어가 수행하는 역할에 의문을 갖는 것으로 시작하여, 미디어 생산 및 소비의 건강한 습관을 촉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유명인사의 소문 이야기나 다이어트 방법과 같은 것만 소비한다면, 다른 방법들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미디어 생산 및 소비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만 궁

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며, 여기에는 미디어에 광고를 싣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 변화도 포함됩니다. 담배 광고가 금지되고 몇몇 나라에서 술과 도박 광고를 금지한 것처럼, 지구를 파괴하는 행동을 조장하는 여타 광고의 범위도 살펴봐야 합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현재의 거만한 행로를 바꾸려면, 학교에서 미디어 소비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미디어 소비에 대한 논의를 미디어에서 가지며, 사회와 지구의 미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정보와 생각을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주의 세 가지 변화와 전주의 미래

원도연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1.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을 열었던 전주의 세 장면

민선 2기를 맞은 전주시는 2000년을 전후로 세 가지 중요한 사업을 기획했다. 당시 이 세 가지 사업은 전주시의 예산규모나 정책적 중요도에서 최우선 사업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사업은 이후 15년간 전주를 대표하는 상징사업으로 발전했다. 그 세 가지 사업은 전주시청 앞 광장조성, 전주천 생태하천 만들기 사업, 한옥마을 재생사업이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명백하게 전주의 도시적 정체성을 생태도시, 문화도시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적어도 민선 2기 이전에 전주시의 도시개발 전략은 '확장과 개발'의 관점에 서 있었다. 1960년 124,352명이었던 전주의 인구는 1980년 367,037명, 1990년에는 516,965명, 2000년에는 615,804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전주의 도시목표는 늘어가는 인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고, 그 결과 도시는 '확장과 개발'의 목표를 견지할 수 밖에 없었다.

전주의 도시성장이 가속되는 2000년 전주시가 기획한 세 가지 사업은 각기 이런저런 저항에 부딪혔지만 전주시는 이 사업들을 밀어부쳤다. 전주시청 광장조성 사업은 주차장으로 쓰이던 시청 광장에 잔디밭과 소나무를 식재한 시민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10억원이었다. 시민들이 활용하는 주차장을 없애면서 심각한 주차문제와 교통혼잡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비교적 소극적인 저항으로 멈췄다.

전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00년 전주시가 '고향의 강을 회복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강살리기 사업에 착수하면서 시작되었다. 전주시는 125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한벽교에서 서신교에 이르는 총 연장 13km 지점을 복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2002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진 복원사업 중 첫 번째는 하천수를 확보해 전주천에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주변의 오염원을 제거하고 정화시설을 설치해 지천의 오폐수가 전주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했다. 이 사업 역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과정과 효용성에 대해 의문이 있었지만 당시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수행되었다. 전주 한옥마을은 두 사업에 비해서는 강력한 저항을 받으며 시작되었다. 지역주민들은 지원은 없고, 보전만을 요구하는 한옥보전지구 지정에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현대적 개발을 요구했다. 주민들과의 갈등은 4개월 이상 지속되었지만 전주시는 이 사업을 강하게 밀어부쳤고 지금 이곳은 전주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도시재생지역으로 성장했다.

2. 2000년 세 개의 '씬(scenes)'과 2016년 전주

2000년에 시작된 이 세 개의 장면은 전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도시의 '씬

(scenes)'은 도시의 현장과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씬은 단순한 경관을 의미하는데 그치지 않고 도시주체들의 유사한 가치관과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응집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도시의 씬(scenes)은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고 어메니티(amenity)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도시 공간이면서 사회적, 문화적 소비를 만들어내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전주시청 앞 광장의 변화와 전주천, 한옥마을의 변화는 2000년 전주가 지향했던 도시공동체의 미래를 상징했다. 전주천은 조성 이후부터 전주시민들의 소중한 공간으로 발전했고 한옥마을은 개발이 아닌 보존과 활용의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이후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슬로시티라는 도시전략으로 변화했고 2014년 민선 6기 이후 전주시의 발전전략이 생태, 문화도시로 전환하는 기반이 되었다.

2014년 이후 민선 6기 전주는 또다른 시험대에 서 있다. 민선 6기의 전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도시발전의 방향에서 중요한 개념은 시민, 참여, 현장, 따뜻함, 지속가능, 생태, 환경, 사회적 약자 등이다. 이러한 개념은 넓게는 여성성, 모성, 감성 등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태적, 감성적 개념은 그동안 전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시를 지배했던 개념들 즉 혁신, 경쟁력, 산업, 일자리, 기업유치, 개발, 예산확보, 성장동력, 전략산업 등의 개념과는 철학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민선 6기를 상징하는 사업은 그동안 한국도시가 보여주었던 '개발과 성장'의 관점과는 다른 것이었다. 엄마의 밥상, 임대아파트 문제, 대형 쇼핑몰에 대한 정책적 전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내버스 파업 해결 등의 시책은 확실히 전주의 도시적 지향이 생태적 도시환경에서 삶의 질과 복지의 차원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3. 지역학과 전주의 미래

전주시의 이러한 도전은 결코 만만치 않은 숙제를 남기고 있다. 전주천과 한옥마을의 변화를 환영했던 시민들은 도시가 더 이상의 '확장과 개발'을 중단하는 것을 비판하고 대기업의 쇼핑몰 건설을 제어하는 행정에 대해 모두가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생태적이고 아름다운 도시의 감성적 욕구와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특히 부동산에 대한) 사이의 간극은 도시의 미래에 새로운 갈등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전주의 도시인구는 2000년 61만5천명에서 2010년까지 불과 3만여명이 증가했을 뿐이며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불과 6천여명이 증가했을 뿐이다. 그리고 2015년 전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는 12.1%를 기록하고 있다. 이 도시에서 더 이상의 택지개발과 도시의 확장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점에서 전주는 지금 전환기에 서서 갈등하고 격동하는 도시다. 과거 20년 전의 폭발적인 도시성장기와는 달리 내적으로 뜨거운 격돌이 벌어지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다. 그 한편에는 도시의 생태적 발전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새로운 도시지향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여전히 도시의 성장과 개발을 추구하는 토지자본가와 지역사회의 파워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성장연합(Growth coalition)이 버티고 서 있다. 수십년간 도시개발의 의제를 장악해왔던 토지기반의 엘리트 연합은 여전히 강고

하게 지역사회의 개발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의 지역학은 그런 점에서 도시의 미래를 두고 좀 더 포괄적이며 정치경제학적 관점에 입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지역학 또는 전주학은 지나치게 과거지향적이며 역사적인 관점에서 있었다. 그러나 지금 전주는 도시의 미래를 둘러싸고 첨예하고 격렬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전주는 과거와 미래가 부딪치는 현장이다.

4. 공동체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의 도시적 고민이 폭력적이거나 물리적인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내적으로 격렬한 갈등이 있을지언정 도시가 처한 현재의 인구적, 물리적 조건이 스스로 '확장과 개발'을 용이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주는 이제 한국의 도시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저성장시대에 맞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저성장시대를 이끄는 근원적인 힘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높은 소득과 빠른 발전이 아닌 적정한 소득과 편리한 변화가 도시발전의 목표이자 시민적 행복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고 성장의 한계에 부딪친 지금, 미래사회의 발전은 기술혁신이나 노동의 유연성이 아닌 협동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다. '사회적'이라는 말은 관계를 의미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지만 세상이 다 돈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들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까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것이 유익할까. 노인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들이 세상에 유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역할(일거리)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는 바로 이 지점에 놓여져 있다. 시장경제와 달리 사회적 경제는 역할에 주목한다. 어린이집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양보하게끔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엄마놀이를 시키면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자기의 장난감을 기꺼이 양보한다. 집에서 엄마가 나에게 했던 양보와 헌신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선하고 사회적인 자아가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순환경제의 회복이다. 지역순환경제는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이러한 지역순환경제의 모델이 완전히 사라졌다. 동네 양복점과 쌀집, 두부가게, 동네빵집, 다방은 몽땅 한꺼번에 망했다. 동네마다 들어서는 대형마트 하나면 동네 경제는 6개월 안에 모두 망가졌다.

시장경제에서 쓰디쓴 실패를 맞본 전북과 전주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사회구조는 바로 이 지역순환경제의 모델이다. 사회적 경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GRDP의 상승이 아니라 순환경제의 실현이다. 공유경제의 핵심은 선순환이다. 성장의 한계에 부딪친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바로 그 요구와 필요를 서로간의 협동을 통해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협동과 공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그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공유경제는 개인의 소득을 높여주지는 않지만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 언제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왔던 전주가 이제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순환경제의 생태적 모델을 향해 나가고 있다.

협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하여

I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정책의 융합적 실천을 중심으로

유창복
협치서울추진단장

마을은 이미 '대세'가 되었다. 특히 지난 민선 5, 6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마을공동체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한 덕택에 마을은 이제 시대적인 화두로 등장하였다. 양극화와 빈곤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안정망에 대한 해법으로 지역사회의 마을공동체가 거론된다.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사회의 명백한 징후적 현상들이 빈발하면서, 안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마을공동체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기초는 물론이고 유력한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형편과 요구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공동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일상적 관계망 형성을 촉진하는 기초적인 정책에서부터 사회적경제 및 도시재생 정책 등을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기존의 전통적인 공공정책의 과제들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추진하는 등 광폭의 혁신 행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자치단체 중심의 과감한 정책 추진은 공공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기대하게 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염려를 낳기도 한다. 이른바 '칸막이'행정이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부서독립형'행정 관행이 혁신정책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혁신정책이 성공하려면 행정 자체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마을지향적(지역 기반형) 혁신정책인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세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정책의 협치적 진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기해 본다.

마을공동체 정책, 주민의 등장과 공론장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마을공동체 정책에는, 일반 주민들이 동네의 다른 주민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고, 일상의 소소한 필요를 함께 해결해보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속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지역사회에 남아있던 공동체적 기반을 모조리 붕괴시켜온 한국사회에서, '이웃관계망'의 회복은 무엇보다 우선하고 절실한 기본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소소한 생활의 필요란 영유아 돌봄에서 초등 방과후, 이웃동아리에서 마을축제로, 아이들 간식 꺼리 모임에서 동네 어린이집 급식을 감당하는 마을기업에 이르기까지 등 실로 다양하지만 대체로 작은

규모로 동네 이웃들이 함께 할만한 일거리들이다. 이러한 개인의 생활상의 필요를 이웃들과 함께 해결하다보면, 동네 수준의 일로 확장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몇몇 이웃들의 끼리끼리 모임에서는 엄두도 나지 않던 과제가 술술 풀리고, 당연히 문제해결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듯 나의 필요가 이웃의 필요로, 나아가 동네의 필요로 확장되면서 문제해결의 범위와 수준이 향상됨과 동시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작은 의견의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일 전체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소소한 다툼이 회복 불가능한 갈등으로 발전하기 일쑤다. 관계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다. 차이의 존중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며, 차이를 넘어서는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는 집단적 공리(다중지성)가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른바 '공론장'(公論場)이 펼쳐지고, 공론을 통하여 민주적 숙의를 이루어내는 소통의 문화가 관건이 된다.

이렇게 친밀권(親密圈, intimate sphere)의 영역에서 개인들의 시급하고 절실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등장한 이웃들의 작은 관계망(주민모임)¹⁾은, 동네와 지역사회의 좀 더 폭넓은 범위에서 공감되는 의제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된다. 이는 공론(公論)과 숙의(熟議)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공공적 의제가 형성되는 과정이며, 동시에 공공적 주체가 등장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른바 지역사회의 공론이 형성되고 갱신되는 공공권(公共圈, public sphere)의 형성을 의미하며, 이 공공권의 영역에서 주민이 시민성을 획득하고, '시민력'을 향상시켜 간다.

최근 '마을계획'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러한 공론장의 설치와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²⁾ 마을계획은 행정동 단위로 이루어지는 마을계획과 주민들의 자연스런 관계망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 수준의 마을계획으로 구분되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계망을 기초로 해서 지역사회의 주민 주도적인 실행력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마을공동체 정책의 진화이다. 아울러 이는 '주민자치'의 토대를 다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적경제, 문제해결의 경제화

이웃 관계망을 중심으로 일을 해가다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좀 더 넓은 동네

1) 서너명에서 여나쁜명에 이르는 정도의 이웃들 간의 친밀한 관계

2)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커뮤니티 기반의 계획수립 방법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다. 최근 수원시와 서울시가 마을계획 프로그램을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관계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가기도 하지만, 예기치 않은 소통상의 갈등으로 난관에 봉착하기도 한다. 내 일이고 친밀한 이웃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부담없이 나선 일인데, 어느덧 '부담'이 된다. 몇몇 주도적인 사람에게 일이 몰리고 심지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 몰리기도 한다. 주민 몇몇이 벌인 일이 잘 되도 걱정이다. 수공업적인 방식으로는 일이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마을살이의 지속가능성은 마을관계망이 '경제화' 될 때 비로소 달성된다. 관계망으로서의 마을살이는 대체로 경제적인 활동으로 진전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야 몇몇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시스템의 힘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제각각 형편대로 역할이 분담된다. 역할에 대한 보상 역시 경제적인 소득(활동비, 급여 등)으로 주어짐으로써 참여에 대한 '보람과 인정(認定)'이 명료한 물질적인 형태를 띠게 되어, 관계망이 안정화되고 지속가능한 틀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마을기업은 이러한 마을관계망을 경제적으로 담는 그릇이다. 마을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을 기업이라는 구조화된 시스템으로 담아내는 그릇이 바로 마을기업이다. 그래서 '마을이 잘 되어야 마을기업이 잘 된다.' 이는 초지(草地)가 풍성해야 양(羊)들이 번성하는 것과 같은, 상식과도 같은 말이다. 마을살이가 활발하고 마을관계망이 튼실해야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마을기업이 튼튼하게 제대로 서게 된다는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그동안 마을기업은 마을이 없는 상태에서 마을도 만들고 마을기업으로 생존도 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사실 이는 마을기업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회적경제가 도입되는 과정이 그러했다.

이제는 '수요와 구매력'으로 초점을 이동해야 한다. 생산이 소비를 창출하던 시대도 아니고, 개별 기업의 힘으로 수요를 개척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독점경제의 사회이다. 그래서 사회적기업들은 공공적 책무를 가지는 정부의 조달시장을 우호적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한다. 하지만 입찰제도의 난관(경쟁입찰), 공급능력의 한계, 제조업 비중이 낮고 사회서비스 비중이 높은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업종분포 성격상 그리 실효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는 못하다. 마을기업은 더욱 어렵다. 마을기업은 대체로 마을이라는 협소한 시장을 전제로 출발하므로 경쟁적 시장의 원리로 자립하려는 시도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미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치고 들어와 동네빵집, 구멍가게, 미장원 이 모두 체인화되고, 대형화되니 버틸 재간이 없다. 함께 텃밭 일구는 심정으로 초지(草地)를 조성해 나설 필요가 있다.

도시에서는 구매력이 큰 장점이다. 공동구매, 호혜적 공유, 윤리적 소비 등의 가치로 공감과 협력을 토대로 하는 구매력을 조직화해야 한다. 이렇게 마을과 지역에 형성되는 수요와 구매력의 힘은 마을기업은 물론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훌륭한 구매력의 배후지가 되어줄 것이다.

그동안 초지가 없는 상태에서 양들을 맨땅에 풀어 건초를 대주고 육성했다면, 비록 듕성듬성 이지만

이제는 초지가 제법 형성되어가고 있다. 이를 더욱 확대하고 연결하여 마을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그동안 마을기업들이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경험을 쌓아온 것도 희망이다. 하지만 그러느라 힘을 다 쏟아 소진의 위기에 처해있기도 하다.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건초에 의존하려는 습성이 생길 위험도 있다. 전환해야 한다. 양들을 초지로 유도하고, 생초에 익숙하도록 연착륙 전략을 세워야 한다. 초지를 확대하고 양들을 초지로 유도해야 제대로 된 마을경제의 생태계가 가능하다.

도시재생, '재생적'재생을 위하여

요즘 도시재생 정책은 '토건'이 '재생'으로 확장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것도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 정부가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신속하게 자기변신을 꾀하고 있는 듯하다. 재생이 화두가 되는 것은 토건과 개발의 시대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바람직한 전환이다. 하지만 현실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 개발이야 밀천을 댈 건설자본과 용적율을 결정하는 행정, 설계를 맡은 건축전문가가 합심하면 되는 일이다. 지으면 무조건 팔리는 시대였으니 말이다. 아니 짓기도 전에 도면만 보고도 서로 사려고 장사진을 치던 때 아니던가.

재생은 주민이 그대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노후한 주거시설을 고치든 개축을 하든 쓸만하게 손 보고, 아이들 키우고 어르신들 돌보면서, 함께 지내와 편안한 이웃들과 그럭저럭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려면 바로, 오래 살 주민이 있어야 한다. 그 주민이 오래 살 마음을 내고, 오래 살 방법을 함께 궁리하고 도모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재생은 '주민'으로 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노후한 주거환경의 개선이 다가 아니다. 커뮤니티 공간 지어주고 마는 일은 더더욱 아니다.

그렇지만 요사이 재생의 현장에 '주민'이 없다. 오래 함께 살 궁리를 내놓고, 함께 해결해 보자며 나서는 이가 없다. 당연한 일이다. 집을 재테크 용도로 '투자'한 주인들에게 여기서 함께 오래 살자하면, 안 그래도 개발붐이 사그라들어서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 심란한 터라, 타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다. 세 들어 사는 주민들이야,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고 언제 철거되나, 철거되면 어디가나 걱정인데, 궁리고 도모고 전부 가당치 않다.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서울살이라는 것이, 십여년을 살아도 앞뒷집에 누가 사는지 알 수 없고 알 이유도 없어진 지 오래 아닌가.

그럼 재생정책은 '그 주민'을 등장시키는 일로부터 정책이 짜여지고, 행정과 전문가가 '지원'하는 모양새로 움직여야 하는데, 여전히 행정과 전문가가 앞서고 그 계획에 주민을 '참여'시킨다. 하지만 이는 참여가 아니라 실재는 '동원'이다. 행정과 전문가의 역할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재생의 주체인 주민 주체가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세우기보다는, 마치 주체가 있더라도 한 듯이 계획을 짜고 밀어부친다는 것이 문제다.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의 미래, 지역화

방향은 재생이라고 하면서 방식은 여전히 토건개발이다. 정책제안서와 사업계획서에는 재생의 훌륭한 언어들이 가득 하지만, 정작 실행의 전략은 토건적 개발방식 그대로이다. 그러니 엇박자가 나고, 제대로 된 재생의 성공모델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것이다. 토건개발이 재생으로 연착륙하려면 기존의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토건시대에 익숙했던 행정 관료들이 그들과 오랫동안 함께 일해 온 전문가들과 토건시대의 행정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여 재생을 하려할 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진정한 의미의 재생과 주민주도의 원칙은 행정혁신이 전제가 되어야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

우선 입구전략이 절실하다. 다각도로 노후도를 측정하고 재생지 선정여부를 가름하는 정밀한 쇠퇴지수를 개발하여 적용하지만, 주민을 재생의 주체로 세우는 계획은 없다. 개발방식에 익숙한 PM과 엔지니어링 회사가 투입되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대표와 협의하지만, 요식행위에 그치는 수준이다. 결국은 PM이 판단하고, 엔지니어링회사가 도면 잡고, 행정은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집행한다. 후보지를 선정할 때 객관적인 쇠퇴지수를 기준 삼는 것은 좋다. 하지만 선정 이후에는 주민들이 하나 둘 나서고, 이웃으로 마음을 모으고, 함께 살아갈 방안을 궁리하고 도모하는 '예측가능하지 않은 과정'을 아주 세심하게 지원하며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주민이 등장하면, 등장한 그 주민들이 절실하고 시급한 생활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자구적(당사자적) 실행에 나서고, 스스로 이후의 행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로 되지 않는다. 훈련된 주민활동가들과 주민들과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있는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세심하고도 지속적인 '촉진'(facilitating)이 필요하다. 재생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그 촉진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출구는 당연 '자립화'이다. 계속 오래 살고 싶은 주민들이 실제로 오래도록 계속 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오래도록 함께 산다는 것은 집수리는 물론이고, 아이들을 챙기고 어르신을 돌보며, 몇몇 주민들은 동네를 위해서 일하면서 먹고살 수도 있고,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도 갖추고 등등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서비스 '공급과 공유'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공유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의 마을기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 모든 마을의 시설과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개선시키는 관리회사도 꾸려져야 한다. 즉 영국의 개발신탁(Development Trust)과 같은 공동체이익회사(CIC, community interest company)나 미국의 공동체개발회사(CDC,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처럼 공동체 기반의 조직(Community Based Organization)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미리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야 행정이 직접적인 지원을 종료해도 주민 스스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결국 재생은 입구와 출구전략을 분명히 하고, 세심하고 인내력 있는 촉진체계를 전략계획으로 담고 있어야 한다.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6 Jeonju

그래야 재생다운, '재생적 재생'이 가능하다.

[지역재생의 전략계획 개념도]

전략단계		입구전략 (예비 사업장)	촉진전략 (본 사업장)		성장전략 (자립화 사업장)
			전기	후기	
추진목표		주민의 등장	주민의 연결1 [계획]	주민의 연결2 [실행]	마을 자립화
사업내용		· 주민모임 신규 형성 촉진 · 마을/사정/문화/청년/50+ 등계 영역의 기존의 민간 주체초대 ·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 민-민 협력 촉진	· 의제설정 프로세스 통한 활성화계획 수립 · 대표성 있는 주민조직 (주민협의체) 구성	· 활성화계획의 실행 계획 수립과 추진 체계 설계 · 활성화사업 실행 · 활성화사업별 컨설팅 시스템 운영 · 자립화전략 확정	· 자립화전략 실행 · 자립인프라 구축 · 행정과 주민자립 기관 (CDC 등)과의 협력체계 재구성
추진체계 (중간지원조직)	광역센터	· 촉진전략 수립 · 현장 PT팀 운영 및 슈퍼비전	· 현장지원센터 총괄지원 · 출구전략모델 검토 및 추진계획 실행 · 교육 및 실행사업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 자립모델 구축지원 총괄 · 출구전략 평가와 지원계획 갱신
	현장센터	[예비사업장 프로젝트팀] · 주민활성화 사업 (교육, 공모 등) · 리더 발굴 및 양성 · 민간주체 코디네이팅&네트워킹 · 구청 등 민관협력 조정	· 의제프로세스실행/촉진->주민의제 수립과 활성화계획 수립 (PM, 엔지니어링) · 주민리더 발굴 -> 대표성 있는 주민 협의체 구성 · 구청 등 민관협력 조정		·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설립과 운영지원 · 지역단위 마을경제네트워크 구성 (CIC) · 마을관리회사 설립운영 (CDC)
지원기관		· 모니터링과 환류시스템 구축 및 실행 · 교육 매뉴얼 작성 및 지원 · 사업모델 연구 및 실행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출구전략 모델 연구와 사업화 계획 및 실행 · 전략적 사업(사회주택, 주거관리 마을기업, 사회서비스회사, 커뮤니티공간 운영 매뉴얼 등) 개발 및 지원			

마을 - 사회적경제 - 도시재생 정책의 융합

마을공동체 정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필요를 도출하고 함께 협동적으로 해결해가는 힘을 키우는 일이다. 사회적경제란 주민들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들이는 노력이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운영 원리이자 시스템이다. 도시재생이란 이러한 주민주도의 운영원리와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휴먼웨어를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촉진함으로써 내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인 삶의 터전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마을공동체 정책은 도시재생 정책의 주체를 형성하는 '입구'에 해당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 정책은 마을 및 도시재생 정책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운영원리를 제공한다. 또한 마을공동체 정책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으로 재구성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마을공동체 정책의 '출구'는 도시재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하드웨어에 대하여 도시재생 정책이 가진 부동산, 건축, 금융 등의 전문적 영역의 정책 수단과 자원은 마을공동체 정책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민선 5, 6기를 지나오면서, 마을,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의 정책은 대단히 활발하게 추진된 결과, 그 부작용 또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칸막이'현상이다. 단체장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여 부서별로 열성적으로 추진하다보니 그 부작용은 더욱 강화된다. 정책 추진 초기에는 세 정책 모두 기초를 닦는 데 치중하느라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지만, 일정 정도 정책의 틀이 갖추어지고 확대 추진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난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 현상은 중복이다. 중복은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낳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성과주의로 말미암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 특히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공모식'보조금지원 방식에 의존하다 보니, 이른바 '공모제 피로도'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엄격한 보조금 관리제도 때문에 복잡하고 실효성 없는 행정 절차와 서식에 치이고, 형식적인 성과증명 요구에 몰려 정책의 목표와 취지는 퇴색하고 형식적인 성과 만들기에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드세다.

행정은 부서마다 독립적인 정책과제를 수행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 원인이나 해결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행정자원을 종합적으로 결합하여 투입하여야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생긴다. 이른바 '칸막이'행정의 오랜 관행을 허물고, 특정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협업하는 '정책통합'이 절실하다. 관-관 사이에 칸막이를 헐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단계에서 유관 부서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각 부서의 역할분담 체제를 기획해야 한다. 실행단계에서는 참여 부서들의 공동실행단(협동형 워킹그룹)을 가동하여 통합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에도 행정 못지않은 칸막이 현상이 있다. 물론 의제 영역별로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생긴 현상이지만, 시민단체(사회)가 행정을 견제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분과별 칸막이를 그대로 답아온 측면도 없지 않다. 올바른 협치를 위해서는 이른바 '민간 칸막이'를 넘어서야 한다. 시민단체(사회) 각각의 전문 분야별 활동을 융합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제 분과주의 칸막이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더욱 내밀하게³⁾ 소통해야 한다. 개인과 단체, 영리와 비영리, 광역과 기초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하는 '시민행동형'실천을 할 때, 민간 내부의 칸막이를 넘나드는 융합적 경험이 촉진될 수 있다.

협치의 기본 원칙

협치란 행정이 공공정책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공공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시민(자치)력을 성장시키자는 것이다. 시민참여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관행과 제도를 시민참여형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시급하고 절실한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 결정과 실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협치를 추진해가는 기본원칙을 장소기반, 관계지향, 시민주도, 세 가지로 압축해본다.⁴⁾

'장소기반'과 지역사회 토대 구축 장소란 시민이 일상을 영위하는 삶을 의미한다.⁵⁾ 학교와 구멍가게, 어린이집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웃들이 지나며 마주치는 골목과 거리, 주민이 대면관계를 형성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이루어지는 '동네'를 말한다. 바로 일상의 장소인 동네(지역)가 정책의 주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문제의 복잡성이 포착되고 정책의 구체성이 감지된다. 장소기반은 공공정책이 탁상공론을 피하고, 전문가주의의 협소한 진단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길이다. 무엇보다 해결해야할 문제의 당사자가 살고 있는 곳이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모이는 곳이다.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원이 연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의제 중심적인 접근이 문제해결의 주체와 만나지 못한 채, 당위 확인과 계획짜기에 매몰되는 우를 범하기 쉬운데, 바로 장소에 기반을 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의제'에서 '장소'로 정책의 초점이 이동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사회 시민의 연결망이 형성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내는 경험과 방식이 쌓여간다.

'관계지향'과 시민력의 강화 정책은 가시적인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지만, 그와 함께 추구되어야 하는 목표가 바로 관계지향이다. 시민이 속속 등장하고, 등장한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면 '시민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민(주민)은 '친밀한 관계'(親密圈, intimate sphere)속에서 쉽게 등장하고, '공공적인 공론'의 과정(公共圈, public sphere)에서 성장한다. 모든 공공정책, 특히 협치 지향적 정책은 시민(주민) 주체를 얼마나 잘 등장시키고, 등장한 시민을 연결시켜 관계를 형성했는가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형성된 관계가 지속적이려면, '공적 주체'(시민성)로 성장하는 경험을 쌓아가야 한다. 참여한 시민이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공감하고 토론하면서(숙의), 결정을 합의해 가는 '공론장'을 통해서 비로소 '공적 결정의 권한'을 실감하고 공적 주체로 성장한다.

'시민주도'와 협치 행정 정책추진 과정에서 시민이 얼마나 주도성을 발휘하고 문제 해결의 경험을

3) 내밀한 관계란 '내재적'동반관계를 의미한다. 특히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주된 활동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감시와 청원 및 입법지원 활동 등이었다면, 이제는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공공정책의 과제로 조명하고,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함께 문제해결에 나서는 동반관계를 시도해야 한다.

4) 이에 반해 관치(官治)는 장소기반/관계지향/시민주도에 대응하여, 속도(장소 소멸)/효율성(관계 소멸)/관주도로 특징지을 수 있다.

5) 공간(space)이 추상적인 의미라면, 장소(place)는 구체적인 의미이다. 즉 특정의 지리적 위치성을 가지고, 그 장소를 둘러싼 사람들의 관계와 사연들이 묻어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얻는가가 중요하다. 이는 정책의 주체인 행정이 시민의 주도성을 얼마나 잘 촉진하고 수용하는가와 직결된다. 민-관의 협력적인 문화와 제도로써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행정은 시민과 잘 협력해야 하지만 협력할 시민이 늘 준비되어있는 건 아니다. 우리 행정의 역사상 시민은 오히려 통치의 대상으로 취급되어왔으니 어찌면 당연하다. 때문에 행정은 협력할 시민을 등장시키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까지도 임무이다. 그동안 행정이 공공정책을 주도해왔고, 여전히 엄청난 규모의 행재정적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능동적으로 협치에 나서야한다. 선제적으로 협치지향적 행정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공동체 회복력의 제고를 위한 지역화

전대욱

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공동체발전센터장

"Think globally, Act Locally"의 바른 해석 : 행동은 (내가 살고 있는 범위에서) 작게 할 수 밖에 없지만, (이 사회의 시스템)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21세기를 맞은 시장경제 시스템의 특징은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경제는 효율성이라는 최우선의 덕목 하에서 지역과 국가를 통합하는 보다 큰 거래의 장을 만들었다. 이후 시장과 기업은 점점 거대해지고 시장의 경제주체인 개개인은 점차로 작아져만 간다.

개인은 이 거대사회에서 거대 생산체계의 작은 한 부문으로 치부되었고, 점차 분업화된 직종 하에서 특정한 일이 마치 본인의 전문분야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다. 이는 마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바람직한 시민의 모습이 그저 개인의 전문분야에 열심히 종사하여 시장에서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고, 그렇게 번 돈의 일정 부분을 세금과 기부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면 마치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다 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러나 2005년 미국 뉴올리언즈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동 시기의 쿠바를 비교해보라. 미국의 경제붕쇄 이후 전세계에서 GDP가 가장 낮은 나라가 된 쿠바에서는, 카트리나보다 더 강한 허리케인이 닥친 2008년에도 거의 사상자를 내지 않았다. 전세계에서 GDP가 가장 높은 미국에서 수천명이 죽거나 다친 이 대형재난의 결과를 보고, 쿠바 사람들에게 그 비결을 묻자 그들은 "미국 사람들은 단지 세금을 낸 것으로서 사회적인 책무를 다 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한다. 부자인 미국에 없지만 가난한 쿠바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날 아파트에 살면서 매우 편안함을 느낀다. 그곳은 나만의, 익명의,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며,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고 더러운 물을 하수도에 흘려버리면 된다.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물이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가 없을까? 나는 내 전문분야에서 하루 종일 충분히 일했고, 그렇게 번 돈으로 수도요금과 세금을 충분히 내기 때문에 사회적인 역할을 다 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평생을 열심히 일했지만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루 아침에 실직을 당하는 경제위기 사태를 경험해왔다. 평생을 성실하게 시장에서 장사를 했지만 그 노력과 무관하게 더 이상 전통시장에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열심히 절약해서 만든 저축은 거대금융시장의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날라가기도 하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인근 국

가의 AI 발병소식에 반토막이 나기도 한다. 내가 살던 집은 전세값이 터무니없이 올라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해도 감당을 하지 못하고 내 의지와 무관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현실에 직면하기도 한다.

내 의지와 노력 따위는, 거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아주 미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개인은 시스템의 흐름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우리의 지역사회도 거대시장의 흐름에 편입되어 내 의지나 노력과 무관하게 내 인생을 결정해 버리기도 한다.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인 투표 역시 내가 한 표 더 찍는다고 해도 별로 영향을 줄 것도 없고, 투표를 하지 않아도 당선자나 그 정책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의민주주의를 살면서, 거대시장경제에 살면서 개인은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한국사회는 과거와 달리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그럴수록 더 행복하지 않은 헬조선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는 무엇인가?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사회라고 말하고 싶다. 거대사회에서 내 자신이 그 흐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는 불행하다.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쉬고 노는 것 외에는 별로 즐거움도 낙도 없다. 소비만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사회에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다시 내가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작은 범위에서의 삶을 찾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과 거대사회라는 2원화된 세계에서 개인과 거대사회의 중간자적인 작은 연대를 만드는 것, 그 거대사회의 어떠한 변화에도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와 비슷한 운명을 가진 이들끼리 운명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힘을 합쳐 대응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것, 비록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냥 당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선택, 연대 그리고 공동체, 작은 결사체를 만드는 것, 더 이상 내 뜻을 대신할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직접 실현시키기 위한 작은 연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작은 연대는 내가 살고 있지만, 거대사회가 이미 잡아먹어버린, 지역이라는 상실된 공간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내가 쓴 수돗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너무 거대해졌지만, 적어도 우리 동네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확 바꿔놓을 무엇인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를 막는 것은 스스로의 의지로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는 것이고, 연대를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열광으로 이끄는 것이다.

쿠바의 사람들은 단지 세금을 다 낸 것만으로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다했다고 보는 미국사람들과 달리 지역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자세가 바로 지역공동체의 힘, 즉 "지역공동체 회복력(community resilience)"이라고 말했다. 비록 개인은 독립적인 개체이지만 사회라는 시스템 전체를 생각하면서 그 개인의 행동을 지역적으로 조직화하는 연대가 힘을 창출한다. 그 힘이 바로 가

난하지만 쿠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작은 개개인들, 이들은 거대시장과 대의민주주의 하의 거대국가에서 자기조직화하지 못하고 국가와 거대시장에 의존적으로 탈자치화 되어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만든 자치적인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구성원간 수평적 융합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대안을 만드는 힘(resourcefulness)을 창출한다. 이 작은 공동체는 사회 속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구성체(module)로서 그보다 큰 범위의 사회와 관계(bridging)하고 위계(linking)됨으로써 지역공동체들의 연대로 구성된 큰 유기적인 관계망은 바로 자연생태적 건강함을 지닌 사회생태계가 된다.

이러한 모듈화된 작은 지역공동체들의 자치적이며 유기적인 시스템의 구성을 우리는 "회복력이 있는 사회시스템(resilient society)"이라고 부른다. 작은 결사체들의 연대를 통해, 역량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전체를 생각하며 스스로 국지적 행동을 자기조직화하면서 새로운 자원과 대안을 창출하는 이 사회적 자본은, 쿠바와 같이 대형재난이 닥쳐도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 원동력을 갖게 하며, 몬드라곤과 같이 전 유럽이 경제위기로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때에도 실업자를 별로 양산하지 않아 지역경제가 별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결국 우리가 만드는 연대경제(soildarity economy)나 지역공동체는 바로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 힘으로써, 우리는 이를 "공동체 회복력(community resilience)"이라고 부른다.

지역화(localization)은 이렇게 거대화된 사회 속에서 상실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결사체적 경제거버넌스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의 전통시장에 있는 소상공인은 모듈화된 지역경제에서 공급자이지만 그 댁가로 받은 돈을 다시 소비하는 수요자이기도 하다. 마치 생태계에서 한 개체는 피식자이자 포식자라는 사실이 먹이사슬을 통해 물질과 에너지를 순환하게 만드는 것처럼, 경제계에서도 한 경제주체는 공급자이자 수요자가 될 때 가치가 순환되고 확대재생산된다. 오늘날 지역경제가 몰락하기 시작하는 것은 거대화된 시장과 무관하지 않다. 거대화된 시장과 기업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수요자를 흡수함으로써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공급자이자 수요자인 다중역할을 상실하고 지역경제의 가치순환 고리는 깨지게 된다. 지역화는 이렇게 지역경제를 모듈화시켜서 다시 순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생태적 건강함을 회복시키는 것이며, 경제적 먹이사슬에 있는 경제주체들의 운명공동체로서의 경제거버넌스를 창출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회복력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우리가 말하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는 바로 우리 삶과 직결된 작은 지역에서의 결사체를 말한다. 그리고 이 결사체는 전통적인 우리 마을에서 보던 것처럼 자연자원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 심지어는 생산시스템까지 한 마을이 공유하던 그 거버넌스가 있기에 가능했고, 그 거버넌스 안에서 주민들은 서로간에 복잡한 이해관계망을 형성하면서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구성하였다. 이것은 생태계가

며,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이 말한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거버넌스이다. 이러한 경제거버넌스는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비극으로 치닫기 쉬운 공유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가운데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공유자산의 회복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수평적이며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바로 공동체 회복력을 만드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연대경제와 궁극의 안정경제(steady-state economy)로 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회복력이 필요하며, 공유자산의 회복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유기적 거버넌스, 그리고 경제공동체로서의 결사체를 만드는 것이 이러한 회복력을 만드는 방법이다.

따라서 전주시의 공동체 회복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역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과 각 지역공동체가 공유하는 공동체 자산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수평적 관계 하에서 자치적으로 경제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단지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마을공동체와 같은 결사체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유된 자산을 형성하고 이를 공동관리하는 자치적인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며, 이러한 공유자산과 거버넌스는 시민들을 하나의 큰 유기적 관계망으로 엮어 지역정체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것이 결국에는 지역의 경쟁원천이 될 것이다. 아울러 그 이후에는 그 결사체들이 단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봉사활동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 운명공동체로서 전주시의 모듈화된 연대경제를 자기조직화하는 이해관계망을 엮어나가는 생태계의 구성원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역화의 참된 의미이며, 지역공동체 회복력을 갖추는 길이다.

지역, 지역사회 인식의 재구성 필요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지역'이란 말이 나오면 과연 우리사회에 '지역'혹은 '지방'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수도권에 모든 권력과 자본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권한은 미약하고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미래란 정치·경제적으로 지역의 권한을 찾는 것, 지역이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지역화 논의에서 이런 구조적인 정치·경제의 문제가 배제되거나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지역'에 대한 개념 역시 '행정적 공간 범위'로 인식되고 있다. 행정 구역안의 '주민'을 의식한 지역화는 너무 협소하다. 예산과 사업의 권한이 지자체별로 구분되어 있어 쉽지 않지만 행정적 공간 범위를 넘어서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지역'을 적극 설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로컬푸드의 '로컬'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일이다. 또한 지역 정치권이 오히려 앞장서 지역을 구분하고 지역의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 역시 지역화의 걸림돌이라고 본다.

'행정·지리적 의미의 지역'에서 '생활·경제·정치적 의미의 지역'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즉 지역사회 의미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공간적·행정적 범위로 관리되는 지역이 아니라 생활 공동체로서의 지역의 의미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지역화,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서울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지방을 무조건 '시골'로 표현하듯이 지역의 사람들 역이 서울을 동경하고 스스로를 '남겨진 자'취급한다. 지역민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서적으로도 소외되었다. 때문에 지역화는 사회·경제적 영역을 넘어 지역의 자존감을 불어넣는 역사와 문화적 영역으로도 확대해 보아야 한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함으로써 지역의 자존감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 역시 지역화의 중요한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지역화 사업은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각종 위원회가 100여개 있다. 비공식적인 위원회를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위원회가 있다. 또한 전주시는 '다울 마당'을 운영 중이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는 '행정적 절차'에 머무르고 있다.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의 미래, 지역화

양적으로 거버넌스가 확대되었지만 질적으로는 '시민은 참고용'인 경우가 많다. 계획-실행-평가의 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하는 위원회는 행정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대부분 구성된다. 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었지만 참여하는 전문가는 바뀌지 않는다. 행정주도, 성과 중심의 거버넌스 문제는 지역사회의 자발성을 갉아먹는 역할을 한다. 지역의 각종 단체들 역시 이러한 행정에 길들여져 비판 기능을 점점 상실했고 시민들과 자발적으로 해왔던 사업 역시 행정에 의존하는 형태로 길들여져 왔다. 행정이 욕심을 부리는 만큼 지역사회의 역동성, 자발성은 퇴보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인식 또한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근본주의적 경향의 단체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요구에 맞지 않을 경우 '대립적 투쟁'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하거나 지역의 문제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중앙(제도적)의 문제로만 인식함으로써 지역문제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근본주의적인 태도는 최근 전주시의 생태도시 정책에서도 볼 수 있다.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 정책을 개선한다면서 도로를 줄여 녹지 공간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우회도로 등의 교통 분산 대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치적 지향을 우선 담기 바쁜 모양새이다. '자동차가 불편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다'가 아니라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 제공'하는 것을 먼저 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체들과는 또 다르게 행정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며 행정의 입맛에 맞추는 단체 역시도 문제라고 본다.

지역화는 과정에 대한 설계, 시민의 참여 등을 더욱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과정 자체가 지역화이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단체장을 공약을 완수하기 위한 성과주의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과정 그 자체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6 Jeonju**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의 미래, 지역화
Local futures, Localization

CHAPTER 06

워크숍 2세션
'로컬푸드'

- 새로운 푸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레이몬드 엡(Raymond Epp)
- 로컬푸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역먹거리체계 구축' 나영삼
-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접근 송미령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 정민철
- 로컬푸드를 위한 현실적 조건과 실행방법 정천섭

워크숍 2세션 '로컬푸드'

- 민선6기 우리 시의 중요한 가치인 생태도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해외 전문가, 국내 유관단체 및 현장기업가 등과 상호 비전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場(장) 마련
-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행복의 경제학'의 가치를 공유하고 관심을 제고하여 시민의 인식을 확산 발전시키기 위함.

■ 진행 순서

시간		구분	내용
14:00 ~ 14:10	10'	개회	개회인사, 발제 · 토론 · 사례발표자 소개, 내빈소개 워크숍 진행방법안내
14:10 ~ 14:40	30'	발제 1	새로운 푸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레이몬드 엡 일본 나가누마 메노빌리지 이사
14:40 ~ 15:10	30'	발제 2	로컬푸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역먹거리체계 구축' 나영삼 전주시청 전주푸드 팀장
15:10 ~ 15:20	10'	휴식	
15:20 ~ 16:30	70'	종합토론	송미령 농업관측센터 센터장 정민철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이사 정천섭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16:30 ~ 17:40	7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발제 · 토론 · 사례발표자와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7:40 ~ 17:50	10'	마무리	마무리 및 기념사진 촬영

좌장 소순열(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새로운 푸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레이몬드 엡
(Raymond Epp)

농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과거의 농업 정책 때문에 도시에 사는 소비자들과 농부들의 거리가 멀어지고 도시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시장의 구조는 이 시스템으로 인한 문제들을 감춰 주었습니다. 더욱 더 지역과 밀접하고 민주주의에 가까우며 생태학적으로 이상적인 식량 체계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이를 옹호하는 조직과 교육 기관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기술적인 것이 아닌 규모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를 규모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및 우리가 사는 곳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밀접하며 유기농으로 재배한 식품은 운송 및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여 화석 에너지의 사용을 감소시키고, 각 지역에서 음식을 공급하면 영양분의 순환을 돕고 탄소의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전 시스템에서는 강력한 기업이 정부에 로비하고 대중이 호의를 가지도록 인식을 조작하여,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사업에서 늘 이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 밀접한 농업을 옹호하는 조직이나 교육 기관은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지양해야 하며, 감추어진 비리를 드러내고 문제에 접근하는 좋은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은 도시와 시골 지역의 사람들에게 농장에서 식탁까지 음식을 전달하는 새로운 구조와 모델의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조직은 농부와 도시의 사람들 및 식당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식품 공급 기술에 대한 정보를 통해 지역 경제를 다원화하고 돈과 영양소가 내부에서 순환하게 하며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 식품 경제는 현존하는 구조를 단지 모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이해한 뒤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의 식량 체계를 새롭게 하려고 조직하는 일을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기울이는 노력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각 지역의 상상력을 통해, 서로 배려하는 문화에 바탕을 둔 지역 식품 체계의 세계와 국가의 식품 체계를 지지하고 조직할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역먹거리체계 구축'

나영삼
전주시청 전주푸드팀장

문제제기 : 세계화를 이기는 힘은 지역화에 있다

- ① 고장난 먹거리체계는 녹색혁명형 농업과 먹거리의 자유로운 이동 결과
 - 한국 52개국과 FTA체결, 2030년 전체먹거리의 75% 수입의존 전망
- ② 한국, 밥상과 농업의 동반위기 심화
 - 식량자급률(23%, 쌀 제외 시 5% 미만)저하, 쌀시장 전면개방(2016)
 - 가족소농의 해체, 농민의 초고령화, 가족농 재생산 구조의 단절
 - 식용GMO 최대수입국, GMO미표시제 시민알권리 침해, GMO상용화 시도
 - 약 100조에 이르는 먹거리시장 독점 : 유통(유통자본), 식품(식품자본)
 - 자본과 기술을 앞세운 대기업(상업자본)의 농업생산 진입(스마트팜, 식물농장 등)
- ③ 지역화를 견인하는 강력한 실천수단 ; 로컬푸드
 - 전 세계에 걸친 대량생산-대량소비 체계에서 지역생산-지역소비체계로
 - 미국(CSA, 농민장터), 이탈리아(슬로푸드, 슬로시티), 일본(지산지소) 등
 - 한국은 최근 로컬푸드 열풍 : 직거래 관점 접근 한계 극복, 먹거리 의사결정의 양 주체인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 시민이 협동해 만드는 관계적 경제의 창출과 확산으로 발전해야 함
 - 통합적 지역먹거리정책 : 지역 내에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일원화, 선순환구조

'전주푸드2025플랜' 추진 이유 : 세 가지 지역적 필요(need)

- ① 먹거리 선택권을 잃어버린 시민 : 생산과 소비간 극심한 괴리
 - 앵겔계수 기준 전주시 가계먹거리경제규모 연간 1조원(외식포함 시 3조)
 - 전주시 지산지소(로컬푸드) 비중 : 0.5%(연 500억원) 내외
 - 시민에게 강요되는 먹거리 : 먼 거리를 이동한 수입산, GMO 등
 - ※ 시민의 먹거리기본권, 건강권 위협 : 자본주도의 경쟁시장에 맡긴 결과
- ② 퇴출위기에 내몰리는 가족소농
 - 규모화 정책에 따른 농업구조조정 심화 : 다수 가족소농 재촌탈농 촉진
 - 연간 1000만원 미만 소득 농가 전체의 65%(2014년 국가통계자료)

- 농업을 희망하는 젊은 세대가 없다(가족소농 재생산 단절위기)
- ※ 전주농업 잠재력 : 5000ha의 농지/ 8,000가구 24,000명의 농민이 있다

- ③ 지역의 부가 지역 외로 일방적으로 유출되는 수탈경제구조
- 전주지역경제 유통재벌이 독점 : 대형마트(7), SSM(26), 편의점 등
 - 유통재벌의 유일한 목적은 이윤 : 연간 1조 벌고도 지역환원은 쥐꼬리(0.1%)
 - 지역경제 활력 저하 : 전통시장, 향토마트의 몰락 가속

'전주푸드2025플랜' 목표

- ① '시민이면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보장' 은 전주시 행정의 기본 책무(먹거리기본권, 건강권, 행복권...)
- ② 향후 10년에 걸쳐 현재 5% 수준인 지역먹거리 규모를 20%수준(연간 2000억원 규모)으로 끌어올려 시민먹거리접근성 보장, 청년 가족농 재생산, 전주독립경제기반 구축
- ③ 시민 먹거리부문을 공공 정책화하고, 먹거리의 근본 패러다임을 글로벌푸드 의존형에서 지역생산
- 지역소비 구조로 전환
 - ※ 슬로건 : '건강한 시민&지속가능한 농업&독립경제도시 전주'

'전주푸드2025플랜' 특징과 내용

- ① 시 행정이 시민먹거리문제 해결의 주체로 등장(공공 정책화)
- 행정 내 전담조직 신설, 기획력과 실행력을 갖춘 민간전문가 채용(2015.4)
 - 현장실행조직,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운영(2015.9)
 - 전주푸드2025플랜 공표(2015. 10), 7개 인근 농촌도시와 협약체결(2015.11)
- ② 통합적 정책 및 실행과제 마련(6대 전략과제, 15대 정책과제)
- 과제1)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확립 : 기획생산, 지역가공, 상생형 제휴푸드 등
- 과제2) 시민먹거리 접근성 보장 : 일반 시민, 미래세대, 취약계층, 지역상권 등
- 과제3) 통합적 관리체계 확립 : 전주푸드허브 설치, 안전성 관리체계 확립
- 과제4) 음식시민 양성 : 소비자 조직화 및 역할 증진, 다음세대 식-농교육
- 과제5) 농업6차산업화와 협동경제 육성 : 도 - 농연계형 협동경제 육성 등
- 과제6) 거버넌스 구축 : 전담부서 역할 증진, 공공형 재단법인 설치운영

액션 플랜(2015-2016)

: 조직화된 힘, 이것 없이는 결코 '자본'과 '경쟁'을 넘어설 수 없다

- ① 가족소농을 주체로 세워 지역생산력 복원

- 1000여 가족소농의 기회 증진, 종자와 품목다양성 회복
- 단일작목의 규모화 방식이 아닌 다품목 소량, 연중공급체계로 전환

- ② 시민 지역먹거리 접근성 개선 위한 상설 직매장 3개소 개설, 운영
- 운영방식 : 생산농가가 소포장 직접 진열, 농가가격결정, 1주단위 정산
 - 경영주체 :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 참여 : 839명의 중소농(917품목)/ 월평균 3만명의 시민
 - 성과 : 월평균 3억원/ 판매금액의 90% 농가환원

- ③ 전주푸드 허브,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 전주시 월드컵경기장 내 설치, 운영(2016. 10)
 - 통합적 물류시설, 농민가공시설, 전처리시설 등 1,760㎡ 규모
 - 지역 학교 및 공공급식, 복지급식, 지역음식점, 향토마트 공급 확대

미래 비전 : 독립경제도시 전주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 ① 확장 : 학교, 공공기관 및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와 전주푸드 연계
- 연간 2000억원 규모 지역먹거리 선순환시스템 구축, 5000여 가족소농 재생산
- ② 연결 : 로컬커뮤니티플랫폼 구축(전주푸드+사회적경제+핸드메이드+지역상품+지역화폐)
- 자본의 이익이 아닌 시민과 지역의 이익에 기여하는 각종 테마와 연결, 시너지 창출
- ③ 전파 : 대도시먹거리전략, 전주푸드플랜의 타 도시 전파 및 국가 의제화
- 세계화와 개방에 대응한 실질적 방어막 구축의 수단으로서의 도시먹거리전략의 수립, 도시와 농업의 새로운 관계맺음 등 사례 전파, 확산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접근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지자체 단위에서의 도전적인 미래 아젠다 설정을 응원하고 지지

- 로컬푸드의 생산-소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미 부여
- 성장 일변도의 경제에서 그 가치가 과소평가되기 쉬운 '농업과 농촌'가치를 재평가하는 되길 기대

'행복'에 대한 정의

- 경제학이 아닌 각자의 주관적 경제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실
- 부와 성장을 소망하는 개인들에게는 좋은 먹거리보다는 많은 먹거리가 중요
- 현실과 이상의 괴리 → 최선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의 대안이라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로컬푸드는 무엇이고 왜 로컬푸드여야 하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 아젠다 세팅과 전략적 실천을 끌어내기 위해 여전히 중요하고 당분간은 오히려 생산적인 쟁점으로 접근할 필요

- 로컬푸드에 대한 현실적 정의를 재음미
- 한국의 '로컬'규모 및 농업 생산 및 농산물 가공, 유통 체계
- 농산물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 변화와 로컬푸드에 대한 미래 소비자의 인식 재편

로컬푸드와 관련되는 실천 사례들이 주는 함의

- 미국의 CSA, 일본의 지산지소 운동, 이탈리아의 슬로푸드 운동 등은 왜 여전히 대안적 접근인가
- 우리나라 원주시의 새벽시장 모델은 왜 다른 지역에서는 이식되지 못하는가
- 실천 가능한 모델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 지역의 농업인과 소비자를 누가 어떻게 조직화할 수 있는가

전주시의 2025 슬로전

- 합의된 미래 비전 설정을 위한 단계별 접근
- '건강한 시민&지속가능한 농업&독립경제도시 전주'
- 독립경제도시가 가능하고 바람직한가
-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정책 계획의 목표는 무엇인가

- 비전과 목표의 차이. 향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책 계획의 목표 설정이 필요. 그래야만 농업인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

주체와 추진체계

- 지자체 단위에서 실천 가능한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점검
- 행정과 시민 조직의 역할 분담 필요(공공정책 vs. 시민운동)
- 단계별 실천 전략과 우선순위 점검
- 중앙정부의 정책, 도의 정책 수립에 요청할 내용 도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

정민철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이사

농민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이라고 이 섹션의 제목으로 읽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 다음 생각은 드디어 도시가 농촌, 농업이라는 존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만으로도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현재의 푸드시스템에서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수도 없이 반복되었는데, 이제 도시 역시 현 푸드시스템에서는 그 지속가능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의 선도적인 노력에 대해 감탄을 하면서도 또, 제가 있는 충남 홍성에서도 로컬푸드를 고려하면서 고민이 되는 몇 가지를 농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 로컬푸드에서 우선, 로컬에 강조점을 두면 어떻게 생각합니다. 로컬을 생활과 활동의 범위, 기준으로 하자는 것. 우선적으로 푸드를 로컬에서 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전에 국가 범위, 이를 넘어 세계로 그 범위를 넓혀가던 것, (모든 것에 앞선) 경제적인 측면, 효율적인 측면만을 보면서 최선의 길이라고 마구 달려온 현 시점에서, 먹을거리부터 그 범위를 로컬로 전환(축소가 아니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로컬에 기본되는 것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단지, 농산물이 아니고) 농업, 농촌이라는 것이 로컬푸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도시를 중심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역할만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어 온 농업, 농촌이 (그냥 알아서 농산물 생산하고 팔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아니라 도시의 지속을 위해서는 농업의 지속성이 그리고 농촌과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농촌의 산업화와 도시근교화, 도시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도시 자체의 발전 경로의 전환과 더불어 농업을 기반한 농촌 그 자체의 유지와 지속이 우리의 미래에 필수적이라는 것이고 로컬푸드는 그러한 시대적 전환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 로컬푸드가 기존의 푸드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과는 다른 푸드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가는 것이라면 이를 담당할 생산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푸드시스템이 경매 등을 거치는 도매시장을 중심 유통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한 생산체계는 당연히 규모화된 농업(단작, 큰 농지규모, 기계화, 표준화 등을 수반하는)이 우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농업 정책은 당연히 기존의 푸드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들을 위한 기술개발로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업화였습니다. 아마 크게 잡아도 20% 정도의 농민이 현재 푸드시스템의 중심일 것이며, 다양한 형태로 조직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화된 기업농의 스마트팜, ICT 농업 등이 스포라이트를 받고 농업 연구와 지원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대규모 농업 영역에는 “기업농”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농산물생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려 할 것이고, 기존의 산업화와 같이 농민은 농업 분야의 노동자로 배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로컬푸드 시스템을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생산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고 또, 이를 위한 생산조직과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현재 농촌지역의 고령화된 농민의 복지 차원, 생존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이는 그 후계구도, 그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과 농민의 현실 그리고 그 지속성을 위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3. 푸드시스템의 변화라는 것은 생산과 소비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전 생산과 소비가 철저히 분리되어 만나는 공간 없이, 농산물이 모여 있는 별도의 유통 공간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는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관계였습니다. 푸드시스템이 단지 농업유통경로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환경, 문화적 변 화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 소비자 조직과의 구성과 자발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두 그룹을 네트워킹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 지속을 위해서는 이 두그룹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소비자의 인식의 전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설문조사(2015, KREI, 중복선택)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이유의 83.3%가 가족건강과 안전성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보호(1.5%), 농업의 지속가능성은(3.3~4.4%)에 불과했습니다. EU의 조사 결과 (환경보호(98%), 로컬푸드(78%))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제 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농업을 “나와 나의 가족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농산물”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자연이라는 공간인 농촌, 농업을 둘러싼 환경조차도 그 파괴의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입니다. 농업을 위한 토양과 환경이 죽어가는 곳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등식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 역시 단지 나와 가족의 안전한 농산물만이 아니라 우리 로컬의 주요한 영역인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공간의 환경을 복원하고, 그곳의 지속성과 건강성이 유지되는 것이 곧 나와 나의 가족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농민은 산림을 포함한 경작지와 그 주변 자연 환경을 유지하는, 어쩌면 녹색혁명과정에서 파괴된 환경을 복원해 가는 사람으로 위치를 재배치하여 이들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로컬푸드를 위해서는 환경만이 아니라 농업 역시 그 기능의 다양성을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1차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의 산업적 기능만을 강요당해온, 그 과정에서 농산물생산이 농업의 전부라는 생각을 넘어야 합니다. 친환경농업이라 불리는 농업은 산업만이 아니라 환경복원이라는 것을 농업이 해야 할 일이라고 추가한 것이라면 이제 교육과 문화와 돌봄이라는 사회적

기능도 농업이 해야 할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도시와 농업이 통합되어지는 로컬의 방향이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아마 농업의 산업적 기능이 더욱 강조되어지고, 식물공장으로 대표되는 첨단농업 역시 로컬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이 경쟁력이 있어 살아남고, 농촌은 경쟁력 없는 농업의 일부의 기능만 하게 된다면 도시 역시 그 지속성을 담보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6. 로컬의 범위의 문제는 계속 논쟁이 벌어지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적으로는 당연히 시, 군 단위로 규정 될수 밖에 없겠지만, 로컬이라는 것은 생활 반경, 관계망을 기준으로 좀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역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폭력적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진행해려 하는 “지역” 이라는 것이 이전의 “폐쇄적” 지역에 대한 경계심과 “열린” 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창의성을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로컬은 다른 로컬과의 협력을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로컬 내의 작은 로컬들 역시 독자적인 자립성을 키워가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확장성에 의해 로컬이 그 의미를 살려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일본과 함께 누가 세계 최저인가를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그 자급율을 지역을 범위로 보면 더 명확해 집니다. 저희 홍성도 쌀, 딸기는 800%, 고추, 고구마, 소고기, 우유 400~500%, 돼지고기 2,000%, 닭고기 80,000%임에 반해 콩, 팥, 양배추, 상추, 시금치 등은 수치로 잡히지도 않을 정도(정만철, 홍성지역식량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전략, 제3회 농정발전포럼)입니다. 로컬푸드의 목표 중의 하나는 지역내 자급율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 산업화된 농업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엄청난 대도시를 주요 소비처로 바라보고 있다면, 지역에서(생산은 가능하지만)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의 자급체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고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역시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생산가능한 것을 로컬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로컬이 우리만 잘 살자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컬을 강조하는 만큼 다른 로컬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를 위한 현실적 조건과 실행방법

정천섭

재단법인 전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1. 판단의 출발점

- 지난해(2015. 통계청) 농업인구는 257만 명으로 16% 감소했고 65세 이상의 고령화율은 38.4%에 이른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업인 수와 더불어 읍, 면단위, 마을 단위로 접근해보면 실제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75%를 상회한다.
- 전주시는 총 농업인 8,604농가, 23,006명으로 71%인 5,080농가가 1ha 미만을 경작하고 있으며 겸업 농가가 4,510 농가에 이른다.(2015. 전주시 보고자료)
-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농가소득은 전국평균 37,215천원(농업소득 11,257천원), 전북평균 36,129천원(농업소득 9,850천원)이다.
- 전주시 인구 67만여명의 1년간 농식품 구매비용은(식당 등 대중이용시설 제외, 가구 구매비용, 앵겔 지수 비교분석) 1조원에 달하나 전주시 농가에서 공급되는 것은 약 500억 원 정도로 5%에 지나지 않는다.
-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전주시 농가 인터뷰 내용을 보면 고령농가의 제촌탈농이 심화되고 있으며 농업소득이 65세 이상의 고령농가의 경우 연간 소득 평균이 670여만 원 정도이다.
- 식중독 사고와 원산지 표시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잔류농약 검출 등 소비자의 식생활 위험은 많은 지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 지역일간지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주시에서 발표한 '2015년 4/4분기 전주시 대형유통업체 상생협약 이행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 매출액 2,122억6,870만6,542원이며 사회환원 금액은 8,859만3,800원으로 사회환원 비율은 0.042% 수준에 그쳤다.(새전북신문.2016. 6.)

2. 무엇이 시급한가?

- 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지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많은 흐름이 있음에도 지역 여건과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정책을 수립,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단계적, 체계적 실현방안으로 접근하는 지역은 소수로 보인다.
- 당장 농업인, 농업소득의 감소, 고령화, 겸업농의 증가, 제촌탈농, 농업인의 양극화 등에 마땅한 대응책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 농업인은 생산에 관한 문제보다는 안정적으로 팔아 낼 수 있는 유통경로와 안정적인 소득(생산비 대비 제값받기)을 통한 지속가능한 삶을 요구한다.
- 생산과 소비의 간극은(다단계 유통경로, 수입, 경쟁 등) 생산자, 소비자의 불만내용 중 핵심 요소이다.

- 소비자는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 안전한지를 알 수 있는 얼굴 있는 먹거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식중독 사고나 법 위반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
- 농산물 유통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유통물류의 매출에 비해 지역농산물의 이용과 지역 환원은 저조한 실적으로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및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3. 어떻게 할 것인가?

- 지역별 상황과 여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우선돼야 지역현실에 적합한 대응정책과 방안을 만들 수 있다. 장수군의 5.3프로젝트, 완주군의 로컬푸드,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전주시의 대도시먹거리 플랜 등이 부족한 채로의 그것이다.
-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생산에서 식탁까지의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그동안의 정책은 부분적, 파편적 정책으로 상호 시너지 효과와 지속성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지역에서 적합하게 일을 수행할 인력육성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 지자체, 농업인 단체,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등의 정직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상호 현장에서 학습하고 정책실현 과정을 체계적으로 토론, 개입하는 현장중심적 거버넌스가 진행되어야 한다.
- 따라서 거버넌스, 현장 실행조직의 법인화는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 행정은 사업들의 추진과정, 성과, 지역영향력,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피드백 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
- 정책수립, 예산편성, 시스템 구축, 실행역량(인적,물적) 강화는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통합적 정책과 통합적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지역 선순환 경제 구축의 핵심과제이다.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6 Jeonju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의 미래, 지역화
Local futures, Localization

CHAPTER 07

워크숍 3세션 '지역화폐'

-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의 확보 조나단 다슨(Jonathan Dawson)
-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망하지 않은 비결, 한발레츠 이야기 김성훈
- 지역화폐모델 개발을 위한 선행과제 이재민
- 지역화폐 및 사회적 금융의 중요성 손현주
- 돈 걱정 없는 마을 만들기 차해옥

워크숍 3세션 '지역화페'

- 민선6기 우리 시의 중요한 가치인 생태도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해외 전문가, 국내 유관단체 및 현장기업가 등과 상호 비전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場(장) 마련
-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행복의 경제학'의 가치를 공유하고 관심을 제고하여 시민의 인식을 확산 발전시키기 위함.

■ 진행 순서

시간		구분	내용
14:00 ~ 14:10	10'	개회	개회인사, 발제 · 토론 · 사례발표자 소개, 내빈소개 워크숍 진행방법안내
14:10 ~ 14:40	30'	발제 1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의 확보 조나단 다슨 영국 슈마허 대학 경제학과장
14:40 ~ 15:10	30'	발제 2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망하지 않은 비결, 한발레츠 이야기 김성훈 대전 민들레 의료생활협동조합 부이사장
15:10 ~ 15:20	10'	휴식	
15:20 ~ 16:30	70'	종합토론	이재민 웅지세무대학교 교수 손현주 전북대학교 SSK 전임연구원 차해옥 은평구 물품공유센터 센터장
16:30 ~ 17:40	7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발제 · 토론 · 사례발표자와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7:40 ~ 17:50	10'	마무리	마무리 및 기념사진 촬영

좌장 유남희(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의 확보

조나단 다슨
(Jonathan Dawson)

오늘날 돈을 마련하는 방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중 상업 은행에서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로 인해 거시경제의 성장이 강요되고, 자본을 배분할 때 최대의 이윤을 내는 사업으로만 쏠리게 되어, 지역 기반의 작은 사업은 기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자 지급으로 인해 가난한 자에게서 부자에게 부가 체계적으로 전달됩니다.

많은 사상가와 활동가는 현재 시스템으로 인한 체계적인 결과에 대항하여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문서는 결국 1)기금 및 그 외 형태의 자금을 확보하고, 2)이 자금을 지역에서 순환시켜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더 큰 경제로 즉시 빠져나가지 않고 다양한 교류 및 서로를 이롭게 하는 데 기여하도록 고안된 모델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금과 부의 확보를 위한 여러 형태의 모델이 생겨났으며, 그 중 일부는 잘 확립되어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균형 잡힌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그 기록을 보유한 공식은행(국가에서 승인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지방은행, 현지 은행, 윤리적인 은행
- 회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신용조합 및 회원 소유의 기금 협동조합이 인기를 얻으며 부활하고 있습니다.
- 지역은행 및 그 외 지역발전 기금 단체
- 커뮤니티가 재원 및 시설을 소유할 수 있게 하며, 특히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그렇게 하는 커뮤니티 공유
- 인터넷 기반 플랫폼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체계적으로 기금을 모으는 시민 기금
- 현지의 사회적 기업과 멘토 및 그 외 자원을 연결해주는 지역 투자자 모임

각 지역에서 제작한 화폐를 사용해 영업하고 서로의 신용을 보증할 수 있는 화폐를 고안 및 개발하는 혁신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금의 혁신은 오래된 가지에 성공적으로 접목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 상호신용시스템. 이 시스템은 보통 개인이 영업하는 데 사용하는 지역통화제(LETS) 및 작은 기업이 물품을 판매하고 회원 네트워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B2B는 화폐의 경기순환으로 인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촉진하고 상업 커뮤니티에서 상호지원을 촉진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 지역 화폐. 종종 기록의 형태를 띠며, 최근 몇 년간 독일 및 전 세계의 혁신적인 전환마을에서 특히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지역 화폐는 지역 내의 상업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구매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국가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해당 지역 내의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형태의 화폐는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지방세를 내기 위해 사용되거나 일반 은행에서 발행되기도 하며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시간신용시스템은 198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한 일에 대해 시간 화폐를 지급하는 것인데, 다른 회원에게 한 시간의 도움을 주었다면 한 시간의 잔고를 벌게 되며, 이를 사용해 한 시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노인 돌봄, 미국의 청소년 법원 배심원단 서비스, 영국의 버려진 지역 커뮤니티 재건 등의 사업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시간 뱅킹은 '공동생산'이라 불리며 유행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유익을 얻는 공공 지원 서비스를 고안하고 실행하는 데 더 깊이 관여하도록 돕는 면에서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현재 떠오르고 있는 혁신의 주된 교훈은 1) 지역의 자금 확보를 위한 매우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며, 여러 수단과 조직적인 형태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지역 투자'와 '지역 화폐'가 사용될 수 있고, 2) 각 모델의 정체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정의하는 필수 전제 조건은 문제를 다룰 때 매우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망하지 않은 비결, 한발레츠 이야기

김성훈

대전민들레 의료생활협동조합 부이사장

공부하는 사람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가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사물과 사람들을 접촉하기를 원하는가라는 물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 이반 일리히

지역화폐운동의 역설

우리 스스로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달라지지 않고서는 새로운 세계, 다른 세계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정보를 찾아다니고 높은 학교를 다니며, 그 이후에도 여러 교육기관을 찾아 학습한다. 그런데 정작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관계, 다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에 정성을 들이고 있을까? 다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없지 않은가?

한발레츠의 LETS는 지역교환거래체계(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의 약자이다. 이 시스템은 지역민이 스스로 발행하는 화폐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지역화폐"운동의 하나로 소개된다. 지역화폐는 법정통화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현재의 돈은 한발레츠의 오래된 일본 친구 히로다 야스유키가 말했듯이, 첫째, 은행의 부채를 통한 통화 발행, 둘째, 복리와 단기주의, 셋째 친-경기순환적 성격의 문제가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화폐발행과 유통의 이익을 특정 계급계층이 독점하여, 허구적 상품으로 시장에 나와 이자에 기반하여 유통됨으로써 우리의 살림살이와 그 관계를 승자독식의 자기파괴적 경쟁관계로 몰고간다. 그래서 여기저기 새로운 개념의 화폐를 만들어보지만 실제 이것이 잘 되는 경우는 드물다. 문제는 화폐 그 자체가 아니라 화폐가 교환되는 '관계'가 더 본질적이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방식이 사고 팔기의 상품-화폐-경쟁관계가 아니라 주고 받고 되돌려주는 호혜와 재분배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지역화폐시스템은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화폐를 통해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하지만 공동체가 복원되지 않고서는 지역화폐는 돌지 않는 역설, 새로운 대안의 시작은 항상 이렇게 자기가 극복하려는 문제를 정면돌파할 것을 요구받는다.

17살의 한발레츠는 망하지 않은 사례일 뿐, 성공사례라고 하기 어렵다. 돈이 없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지만 현재의 한발레츠 역시 성장이 정체되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에서 지역화폐를 시도했던 수많은 단체가 명멸을 거듭할 때, 유독 한발레츠만은 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점은 분명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실천의 핵심으로 다른경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시사점이 있을 것이

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망하지 않기,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도움닫기의 발판일 것이다.

다른 관계, 어떻게 만들 것인가?

1999년 한발레츠를 시작하였다. 레츠시스템과 "두루"라는 화폐명을 지은 것으로 인간의 얼굴을 한 돈이 발행된 것일까? 당시 전국 20여개의 지역화폐 단체가 출발했지만 한발레츠를 제외하고 모두 사라졌다. 많은 사람들은 시스템을 만들고 화폐명을 지었지만 화폐를 발행하는 것에는 실패한 것이다.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70여명의 회원이 거래를 시작하자고 모였지만 거래는 잘 일어나지 않았다. 거래품목의 제한, 불편한 계정관리 시스템 등이 지적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치명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알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믿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지역화폐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화폐를 발행함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사적인 행위일 수 없다. 교환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물 교환이 아닌 가치의 표현으로서의 화폐는 약속을 전제로 한다.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신용이며 화폐의 본질이기 때문에 화폐발행을 일반경제학에서 신용창조라고 부른다. 너에게 노동이나 재화를 제공한 댓가로 얻은 화폐는 장차 나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는데 같은 가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화폐는 유통될 수 없으며 유통되지 않는 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즉,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은 유예된 가치 이전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행위이다. 또한 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이 매력적이어야 한다. 여기서의 시장이란 수요와 공급의 함수관계로 작동하는 자기조정시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수요와 공급을 지역사회 공동체가 동시구축하는 이른바 호혜시장이다. 이러한 시장의 매력은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의 매력이고 필요와 열망을 충족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매력이다. 이 두 가지의 매력은 어디에나 중요하지만 특히 레츠에서는 관계의 매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2012년 1월 현재 한국에는 약 40여개의 단체들이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화폐발행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기술적 시스템의 도입만 하면 저절로 지역화폐가 유통될 것이라는 기대는 실패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지역화폐는 다르게 표현하면 사회화폐이다. 이때 사회란 특정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억압기구로서의 국가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람과 사람이 관계 통해 살아가는 터전을 의미한다. 복지국가 이전에 복지사회를 만들자는 구호는 기본적으로 제도와 법률, 억압적 기구를 통한 강제적 방식 이전에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사람과 사람의 호혜적인 결사를 근본으로 삼고자하는 의지표현인 것이다. 물론 이 둘은 상호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화폐를 사회화폐라고 이해할 때, 우리는 '지역'이란 말 속에, 호혜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지역은 지역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화폐가 발행되기에 충분할 만큼 호혜적일까? 그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은 지역화폐를 위해

충분한가?

여기에 지역화폐의 첫 번째 딜레마를 만난다. 지역화폐를 통해 호혜적인 지역사회, 자율성과 자발성의 결사체를 만들고자 하지만 그것이 지역화폐의 ‘결과’가 아니라 ‘전제’라는 것이다.

한국사회 LETS를 하는 거의 모든 단체는 한발레츠에서 시작된 3가지 호혜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처음 제안할 때, 이것은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서 지속되고 타 지역으로 확장되어 적용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보편적인 것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단지 어떤 단체가 우연적으로 시도한 프로그램의 한 형식이 아니라, 이해관계 대립의 관계를 상호연대의 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품앗이 만찬〉, 〈품앗이 학교〉, 〈품앗이놀이〉이다.

호혜시장으로서의 품앗이 만찬

시장경제체제가 사회를 시장화하는 것이었다면 호혜시장은 이를 뒤집어 시장을 사회화한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연대와 협동의 원리로 살림살이를 사회화하는 곳, 이것을 호혜시장이라고 부른다. 지역통화운동을 비롯한 협동조합 운동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전략의 핵심은 사회에 호소하고 협동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호혜적 관계원리에 따라 각자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나눌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화폐 이전에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관계로부터 서로의 살림살이를 나누어 더 풍부해지는 시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까?

우리는 우선 함께 밥을 먹기로 했다. 각자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모여 서로의 것을 나누어 먹는다. 이것은 포트럭파티이며 포트럭파티는 포틀레치로부터 연유한다. 포틀레치는 북미태평양 연안에 사는 인디언부족들이 사용하던 말로 ‘주다’, ‘배풀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부족의 우두머리가 배푸는 행사로 출산,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등에 열렸으며, 특별히 기념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열렸다고 한다. 이 행사를 위해 행사 주최자는 모은 카누, 사발과 숟가락, 조각품, 도구, 담요 같은 물건들을 손님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자신의 부와 명성을 과시했다고 한다. 이러한 포틀레치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한발레츠는 이러한 행사를 품앗이 만찬이라고 불렀다. 품앗이만찬이 문화인류학적 지식을 가지고 시도된 것은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경계심을 허물고 친해지지 않으면 호혜시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지역화폐 거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친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그 출발로 함께 먹는 일을 생각하게 되었다. 서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금새 친해졌고, 벽을 허물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으며, 춤이 있었고 노래가 있었다. 그리고 각자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지역화폐 ‘두루’로 나누었다. 처음 이 행사는 15가구 30명 정도가 참여하였는데, 이날 만남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지역화폐 시스템을 설명하기란 말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서로 어려웠고 자세히 설명하려 할수록 더 어려워지기 일쑤였다. 그런데 품앗이 만찬을 경험하면 그 어떤 설명보다 한발레츠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모임인지 잘 알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따뜻하고 편안했으며 즐거웠다. 2000년 287건의 거래는 대부분 2달에 한번씩 진행된 품앗이 만찬에서 이루어진 거래였다. 여기엔 경쟁 대신 호혜, 상품 대신 선물이 있었고 무엇보다 함께 먹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서로 식구(食口)가 되었다.

관계로서 배우는 품앗이학교

한발레츠는 처음 회원가입할 때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과 요청하고 싶은 것을 적는다. 이것은 하나의 거래목록으로 만들어져 배포되고, 홈페이지 '거래하고 싶어요'게시판에 게시된다. 이중 많은 거래요청이 무엇인가 배우고 싶다거나 가르쳐준다는 것이다. 요리, 홈패션,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다루기 등등.

그런데 막상 이러한 거래는 잘 성사되지 않는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1:1거래가 주는 불편함 때문이다. 단둘이 가르치고 배운다고 할 때,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좀처럼 거래할 맘이 나지 않는 것이다. 더군다나 비용에 대한 부담, 그것을 상호 협의하는 과정도 불편하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품앗이 학교였다. 처음 시작한 품앗이 학교는 컴퓨터 교실이였다. 당시 퍼스널 컴퓨터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할 때 주부와 노인들은 당황하고 있었고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할지 막막하고 낯설어하고 있었다. 지금이야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이 많이 있지만 당시만 해도 마땅치 않았었다. 평소 회원들에게 컴퓨터 A/S를 하던 한 회원이 선생님이 되어 교실을 열자, 그를 신뢰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컴퓨터 교실에 참여했다. 이 과정은 단지 컴퓨터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교실에 함께 한 사람들을 묶어주었다. 어쩌면 컴퓨터보다 삶의 교류의 장으로서 이 모임의 가치가 빛을 발했다. 뒤이어 뜨개질 교실, 일본어교실, 친환경 세제 만들기 교실, 요리교실, 다도교실, 요가교실 등의 품앗이 학교는 지속되었고 이 모임은 관계의 깊이를 깊게 하였다. 누구나 배워야 하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부터 온다는 것, 관계가 맺어지면 훨씬 잘 배울 수 있고, 특정한 전문역량 때문에 모이더라도 그 이상의 것을 항상 더 배울 수 있음을 경험한다. 무엇보다 돈이 목적이지 않았을 때, 학습의 효과는 더욱 높아지며, 묻지 않은 것 까지 알려주기 위해 애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돈벌이가 아니라 살림살이를 위한 경제 만들기, 품앗이 놀이

쪽지를 2장씩 나누어준다. 그리고 각각 쪽지 상단에 '-(요청할 것)', '+ (제공할 것)'을 적는다.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앉아 각 쪽지에 5가지 이상의 것을 적는다.

- (요청할 것)	+ (제공할 것)
아무개 1. 밑반찬 2. 우리 아이 중2 수학과외 3. 집안 정리정돈 4. 편찮으신 어머니 병원 모셔다 주기 5. 함께 등산할 사람.	아무개 1. 일본어 가르쳐주기 2. 문서편집 3. 자동차 운전 및 차 대여 4. 술 담그는 법 5. 주말에 아이 봐주기

막상 쪽지를 나누어주고 써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깊은 명상 상태에 빠진다. 의외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적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낀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않는가? 하루에도 수많은 것들을 구매하고 소비하며 사는 현대인들이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적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쉽게 써놓고 득의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나중에 발표를 하도록 하면, "돈"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그를 통해 알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을 얻기위해 구체적인 재화, 그 재화를 만들어내는 노동, 그것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관계를 생각할 필요 없이, 오직 돈만을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나깨나 돈벌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화폐 물신화였다는 것을.

품앗이 놀이는 그 돈을 지우고 돈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권유한다. 그순간 사람들은 그동안 잊고 있던 사람과 그 관계, 자연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을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발표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 재능을 보기 시작한다. 만난지 10년이 지나도 알 수 없었던 서로의 살림살이, 현재의 욕구가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해와 공감, 웃음과 울음이 어우러진다.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모여 두시간 정도 이렇게 만나면 이제 우리는 서로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이런 것도 모르고 각자 살기에 바빴다는 것을 자각한다. 품앗이 놀이는 탁월한 자기소개 방식이며 관계 방식이다. 이것은 비단 지역통화를 하고자 하지 않아도 공동체 관계형성을 위해서, 때로는 지역조사 방법론으로도 유효하다.

한발레츠를 기반으로 다른 경제, 다른 마을 만들기 실험, 민들레의료생협

한발레츠 초기,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양한방 의사가 가입하고 지역공동체 운동에 뜻을 둔 레스토랑이 가입하였다. 연이어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부가 가입하면서 선순환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어 먹는 품앗이 만찬을 통해 더욱 가까워졌다.

2000년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한발레츠에서는 당시 가입한 의료인들과 '국민 건강권'

을 화두로 자연스럽게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새로 가입한 내과 전문의 나준식 회원은 당시 징병검사의사로 있으면서 의사로서가 아니라 아이 둘을 키우는 직장인이자 생활인으로서 회원들과 관계하였다. 그는 아이들 옷이나 장난감 등의 재활용품이나 농사일 돕기 등 노동력을 주고받으면서 회원들과 가까워졌다. 회원 중에서 밤늦게 갑자기 아이가 고열에 시달린다고거나 본인이나 가족에게 심각한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를 찾아 상담하곤 하였다. 회원들은 믿을 수 있는 의료인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에 존재한다는 것이 큰 자부심이 되었다. 나준식씨가 징병검사의사를 마치게 되었을 때, 회원들은 그를 붙잡았다. 이제 상담만이 아니라 주사도 놓고, 약도 처방해주는 진짜 의사, 우리 공동체의 주치의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나아가 국가 의료제도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없다면, 우리는 레츠를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의 힘으로 바른 의료를 만들자고 하였다. 이런 취지에 맞는 형식으로 개인 의료기관이 아닌 모두가 조합원이 되어 함께 출자 · 이용 ·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2001년 한발레츠에 의료생협 연구모임이 만들어지고 지역사회 뜻있는 시민들을 모아 설립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관계망으로서의 한발레츠라는 어머니는 의료인과 지역주민이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협동하는 민들레의료생협이라는 옥동자를 낳았다. 현재 민들레의료생협은 조합원 2500세대를 주인으로 의원, 한의원, 치과가 두 곳의 마을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검진센터, 노인복지센터, 가정간호 사업소, 심리상담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한발레츠에서 의료생협이 만들어진 것은 품앗이에서 두레로의 진화과정이다. 품앗이를 통해 호혜의 관계를 1:1로 경험하다보면 두레라는 협동노동조직, 혹은 마을 공동작업장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 최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늘어가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회가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를 보지 않고 약간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개별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역화폐의 실험

지역독립유통플랫폼을 지향하는 품앗이생협과 품앗이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은 2015년 환전하는 지역통화 품을 발행했다. 또한 올해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두루를 통한 건강화폐 실험을 넘어 타임뱅크 시스템에 기반한 청춘은행 붐을 기획하고 클라우드펀딩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어플리케이션 개발중에 있다.

지역화폐모델 개발을 위한 선행과제¹⁾

이재민

전북사회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

빌 토튼은 『100% 돈이 세상을 살린다』에서 "세계무역에 필요한 금액은 외국환거래 전체의 불과 1%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머지 99%는 금융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이다.

경제인류학자들에 의하면 화폐는 본래 선물할 용도로 발명되었다. 화폐는 사람 사이의 호혜적 관계를 확인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위대한 발명품이었다. 전통경제학에서 화폐는 시장거래를 활성화시켜 물질적 풍요를 촉진시키는 수단이다. 시장거래에서 화폐는 인간관계와는 무관한 교환의 단순한 매개물에 불과하다. 가치의 냉정한 계산 단위이고, 거래를 청산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화폐는 존재하던 인간관계마저 단절시키는 칼과도 같다.

빌 토튼의 99% 화폐는 부를 쌓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돈이 돈을 낳는 과정"을 통해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경기가 나빠질 때 채무자들의 이자가 금융자산가들의 부로 이전되면서 빈부격차는 심화된다.

국가화폐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모든 화폐는 대안화폐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할 때 지역화폐, 공동체를 기반으로 할 때 공동체화폐, 복지서비스와 관련지을 때 복지화폐, 교육서비스와 관련지을 때 교육화폐 등 대안화폐는 다양하다. 국가화폐와 교환되는 대안화폐는 신뢰성이 담보되어 유통에 유리하지만, 경제적 약자의 사회적배제를 해결하는 데는 부적합하다. 어떤 형태로든 신용이 확보된다면 굳이 국가화폐와 태환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 종이화폐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편리성 때문에 플라스틱카드나 전자이체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는지는 목적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마다 대안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용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 때 전국적으로 대안화폐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있었다. 전주소 1998년 '전주근로자상당소'에서 사회적배제층을 대상으로 "품앗이"라는 지역화폐를 유통하였다. 그후 '전북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서 "품"이라는 지역화폐를 2013년까지 사용하였다. "품"도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재유통을 검토 중이다.

1) 이재민 (행동경제학 전공, 경제학박사, 웅지세무대학교 부교수, 전북사회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

대안화폐는 4가지 효과를 낳는다. 첫째, 통화의 역외유출을 막음으로써 지역의 순환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둘째, 사용자 간의 접촉과 동질감을 증대시킴으로써 공동체를 회복시킨다. 셋째, 시장에서 상품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유통가능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한다. 넷째, 환경윤리, 소비윤리를 일깨워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다. 대안화폐는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가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에서 대안화폐를 활성화시키고자 할 때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우선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공동체를 강화하려는 대안화폐는 좁은 지역을 유통지역으로 잡아야 하고,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대안화폐는 보다 넓은 지역이 필요하다. 지역이 좁을수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유리하지만 거래처가 적어서 유통활성화에 불리하다. 지역이 넓을수록 지역의 신뢰자본을 기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통화와 대체를 보장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적다면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실, 지금까지 넓은 지역에 유통시켜 성공적이라고 평가된 곳은 없다. 그나마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영국의 "브리스톨파운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는 객관적 근거는 없다. 국내에서는 "수원시민화폐"의 6개월간 시험유통도 실제 거래액은 미미했다. 그러므로, 지역순환경제의 활성화라는 논리는 비약되어서는 안된다. 전주소 "행복도시"를 표방한만큼 지역순환경제가 부수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째, 대안화폐 사용동기를 뚜렷하게 갖도록 해야 한다. 국가화폐에 비해 대안화폐를 사용할 유인은 크지 않다. 때로는 결제가 더 불편하고, 때로는 원하는 것을 구입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대안화폐를 사용하게 할 동기는 무엇인가? 대안화폐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사용자는 바로 그것에 일조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야 한다. 할인혜택, 포인트적립 등 경제적 동기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자발성과 자긍심을 몰아낼 수도 있다.

셋째,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지역화폐를 성공적으로 유통시킨 곳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다. 그만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치밀하게 설계될수록 노력을 줄이고 성공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사용의 편리성, 충분한 사용처, 충분한 통화유통량, 지속사용할 동기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항상 공동체성이 강화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한발LETS"가 성공한 가장 큰 원인은 정기적 파티를 통한 사용자간 유대강화에 있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신뢰를 잃어버린 사회에서 마음 터놓고 대화할 사람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이용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어떤 목표로 설계하는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활동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구성원들이 가진 자원을 조사하여 시장화되지 않은 것 중 노동투입 비중이 높은 것부터 거래대상으로 발굴해야 한다.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재발견에도 도움이 되고, 공급비용이 적기 때문에 거래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여섯째, 대안화폐는 국가화폐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종이화폐 형태로는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

다. 그러나, 전자화폐나 계좌이체 등 형태에 따라서는 법적 제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 발행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법적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 LETS로부터, Time Bank, Ithaca Hours를 거쳐, SOL로 변화하면서 대안화폐는 공동체성은 퇴색하고 국가화폐의 보완성이 강화되었고, 호혜지향적에서 시장지향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사용에서 정부주도방식으로 바뀌어 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기본소득, 청년수당, 실업, 복지, 지역순환경제 등의 논의와 맞물리면서 대안화폐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어 왔다. 경기도나 강원도 등 지자체와 연계된 지역화폐도입은 국가화폐와 태환형태를 띠며 시장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를 목표로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역순환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과장되어서는 안된다. 행복한 공동체의 강화를 무시하고 경제적 성과에만 집착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대안화폐가 성공하면 시민의식과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성공이 쉽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전주시는 봉사활동시간을 적립해서 관공서에서 증명서 발급수수료 지급에 사용하는 대안화폐를 시행 중이다. 비영리봉사단체, 자활관련조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온두레공동체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상호거래, 지역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중고장터, 마을 신문, 로컬푸드 등은 대안화폐를 유통시킬 좋은 여건을 제공한다. 특히 한옥마을은 관광화폐를 시험할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지역화폐 및 사회적 금융의 중요성

손현주

전북대 SSK 전임연구원

지역화폐 및 사회적 금융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이다. 또한 이것들은 붕괴되는 지역공동체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지역을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효용성을 중시하는 오늘날 사회의 생산과 소비는 건강과 안전의 문제, 환경 파괴, 인권과 노동 문제를 야기해왔다. 반복되는 세계적 금융위기, 제한적인 에너지자원,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는 지역사회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개인주의적 가치를 부정하면서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공동체운동이 새롭게 검토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체운동은 다양하다. 협력적 소비운동인 공유경제, 대안적 경제 시스템을 추구하는 지역화폐,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마을 만들기 운동,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사회적 금융 등이 있다. 대안경제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역화폐와 사회적 금융의 중요성을 살펴 볼 것이다.

지역화폐는 특정한 지역 내에서 지역민들이 돈이 없어도 가상의 공동체화폐를 매개로 재화와 서비스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를 체계화한 것이다. 지역화폐는 원, 달러, 엔 등과 같이 국가에서 발행되는 화폐와는 다른 것으로 보완통화, 지역통화, 자주통화, 자유통화, 회원제통화, 커뮤니티통화, 그린달러, 에코머니, 오리지널머니 등으로 불리고 있다. 지역화폐는 보완화폐 성격인 LETS, 시간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Time Dollar, 시간거래를 화폐로 발행하는 Hours 등이 있다.

지역화폐는 대안적 경제제도로써 5가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 공동체사회를 형성하여 개인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준다. 현대사회는 물질만능주의와 거대한 제도에 의해 인간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주변이 되는 개인적·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노동력을 강제로 팔 필요도 없고 억압적인 위계질서 속에서 일할 필요도 없으며 경제적 이득이나 결과에 따라 인간을 평가하지 않는다. 대신에 공동체 내부의 개인가치와 자유에 기초한다. 또한 동의, 무이자, 공유, 정보공개라는 원칙에 근거한다. 그리하여 돈보다는 인간, 상품관계보다는 인간관계를 중시하게 되어 비인간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인간이 소외 당하는 일이 적어 지게 된다.

둘째, 윤리적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 윤리적 소비란 소비자의 선택이 지역 혹은 지구촌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환경 등에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는 가를 고려하여 인간과 동물, 환경을 착취하고 해를

끼치는 비윤리적 상품에 대한 소비를 거부하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공동체 내에서 소비생활을 하면서 지역화폐거래의 직접적인 상대자와 그 결과를 확인하게 됨으로써 개인주의에 기반한 이기적인 소비대신에 이타적인 소비를 하게 되어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소비태도, 공동체와 나누는 소비행동을 보여 주게 된다. 또한 지역내에서 물건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된다. 그리하여 지역화폐는 윤리적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

셋째,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역화폐는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그리하여 지역 내 상점의 활성화와 지역생산 및 지역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내 경제순화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넷째, 공동체 구성원의 능력 개발과 실업자 구제 수단이 된다. 지역화폐는 지역내에서 일정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함으로써 재능은 있고 돈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필요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금이 없는 실업자도 교환거래를 통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실업 상황에서 소득 자체가 없어 가용할 현금이 부족한 실업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지역화폐거래를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직 시간강사였던 A는 집수리를 하여야 하는데 수리비가 걱정되고, 주택보수 공사 일을 하고 있는 B는 자녀 과외를 시키고 싶은데 과외비를 댈 여력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A는 B의 자녀 과외를 시켜주고, 대신 B는 A의 집수리를 해 준다면, A와 B는 각각 비용을 지불할 돈이 없더라도 실제 필요한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그리하여 실업자 뿐만 아니라 재능이 있는 지역주민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지역 구성원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섯째,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신뢰사회 구축에 기여한다.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때문에 참여자들 간의 소통이 활성화된다. 또한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소유만으로 부가 증식되지 않아서 경쟁과 소유에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적게 되어 불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사회적 금융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금융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과 같은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에 대한 대출과 투자에 관련된 개념이다.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 금융은 크게 미소금융, 공동체금융, 사회목적투자, 협동금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적 금융은 소외계층의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과 같은 사회경제조직의 자본조달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금융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금융은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를 하게 된다. 윤리은행이나 사회적 주식거래소 운영은 일반개인이나 중소기업도 시장금리 이하의 예금상품을 구매하거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사업위험의 일부를 부담하는 체제를 형성하게 되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또한 사회적 금융은 재생에너지, 친환경유기농, 공정무역 등 윤리적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을 준다.

둘째, 소외계층의 탈빈곤을 통해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다. 사회적 금융의 대표적인 형태인 미소금융은 저소득층에 대한 무담보 소액 대출을 가능하게 하여 소외계층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도와줌으로써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를 하게 된다. 특히 금융소외 계층인 여성가장들이나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사회적 금융의 혜택이 크게 돌아갈 예정이어서 여성과 청년을 위한 제도권 소액금융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공동체금융은 지역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지역공동체 주민들과 조직들을 위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공동체금융은 지역 기반의 소기업,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일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동체금융은 지역에 돈을 흐르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게 된다.

넷째, 사회적 금융은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된다. 사회적 금융은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 창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이나 양극화와 같은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 금융은 다양한 복지 및 사회투자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복지부분을 감당하게 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금융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 시민단체, 일반 기업과의 다각적인 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권인천(2001), "지역화폐운동 참여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서설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동배 · 김형용(2001), "지역통화운동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45권.
- 김형용(2000), "한국 지역통화운동의 성격과 참여자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니시베 마코토(西部忠) 저, 류동민 역(2000), 지역통화ETS : "화폐, 신용을 뛰어넘는 미디어", 『可能なるコミュニティ』, 太田出版.
- 바바라 브란트(1996), "공동체의 돈 만들기운동", 『녹색평론』 통권제27호 3-4월호.
- 박상현(2004), 21세기 지역통화의 패러다임, 대운출판.
- 박용남(2001), "한발레츠-나눔과 보살핌의 공동체실험", 『녹색평론』 통권 제60호 9-10월호.
- 소병철 · 유창수(2004), 지역통화 : 희망을 만드는 돈 -호주, 미국, 일본, 한국의 사례, 『녹색평론』 통권 제75호.
- 아베 요시히로 · 이즈미 루이 저, 전정근 역(2003), 지역통화 입문- 미래를 여는 희망의 돈, 아르케.
- 이창우(2002), "우리나라 지역화폐 운동의 현황 및 과제", 한발레츠실험 3년 평가워크샵 자료집.
- 천경희(2007), "지역화폐운동의 실천적 의미와 향후 전망"
- 매일신문 : 2010년 4월 29일, [지역화폐운동] 왜 안되나? 불신, 인식, 부족 가장 큰 걸림돌
- 푸른신문 : 2009년 1월 13일,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곳 '본동 푸드마켓'
- 영남일보 : 2009년 2월 4일, 아나바다 운동. 이웃온정의 보금자리
- 광주드림 : 2010년 9월 9일, [경제읽기] 지역화폐
- 부산일보 사회 : 2010년 6월 30일, "사하구의 돈 아닌 돈 '송이'아세요 물건 사고 병원도 가고"
- 부산일보 사회 : 2010년 6월 3일, "주민 밀착 '생활정치'일등공신"
- 네이버 블로그 : 2008년 8월 20일, "부산 사하품앗이"
- 다음 블로그 : 2010년 4월 13일, "돈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현대판 품앗이, 지역화폐"
- 다음 블로그 : 2007년 9월 11일, "사하품앗이 벼룩시장 '송이송이'기사 경제공동체 '지역 화폐'아시나"

돈 걱정 없는 마을 만들기

차해옥
은평공유센터장

은평e품앗이는 2011년 5월부터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돈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신뢰의 결핍을 해소하고, 정이 오고가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과거 선조들이 정을 나누던 품앗이와 두레 등의 전통적 서비스 노동경제 활동에 대안적 화폐 시스템인 지역화폐를 도입해, 지역 안에서 가정경제 이익뿐만 아니라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품앗이 공동체를 시작하였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공재능을 시작으로 이웃의 문을 열었고, 모여진 사람들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이웃주민 및 소상공인 모임으로 공유하면서 은평 지역 안에서 지역화폐를 매개체로 경제 선순환을 시작 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을 도모하기 위해 1명으로 시작된 회원이 2,400명을 이루었고, 그 회원이 재능 은행으로 등록해 소그룹으로 운영되는 것이 53그룹이 되었고, 직접 실생활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점을 가맹점으로 만들어 병원을 비롯해 생활에 필요한 상점들이 10-30%의 지역화폐를 받는 가맹점이 58개로 확장되면서 은평 지역 안에서 다자간 경제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고 싶은 것'과 '받고 싶은 것'을 올려 인터넷상 다자간 거래를 실시하며온 라인과 오픈라인의 회원을 관리하기 위해 월1회의 품앗이 장터를 만들어 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벼룩시장과, 재능발표, 스포츠게임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역화폐 경제체험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공유경제 품앗이 놀이학교"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해 초, 중, 고등학교 방송교육 및 정규 수업시간을 통해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지만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을 가지고 와 지역화폐를 통해 서로 시장경제 놀이 체험을 하며, 서로의 재능을 발표함으로 격려하며 인정함으로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는 공유의 힘을 경험했기에 서울시에 주민제안 사업으로 신청하게 되었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선정이 되어 지난해 2015년 7월대한민국의 최초로 은평공유센터가 개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정된 규모로 1층 물품공유, 2층 지식공유, 3층 재능공유, 4층 공간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의 미래, 지역화

를 통해 1년 동안 이용한 회원은 1,400명이 었고, 지식과 재능 참여는 1,233명, 물품을 공유한 건은 1,615건으로 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얻어간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이익 효과는 2억4천만원이 었습니 다. 매년 이 금액만큼의 가치는 공유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얻어가는 경제적 효과입니다.

재능은 있지만 사회적 기반이 없어서 활동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활동가로 배출이 되고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활동가들이 양성이 되어 매달 모보수로 집수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선 순환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여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는 각자의 소유를 함께하는 공 유로 저변 확대하는 공유문화가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품앗이 활동으로 신뢰하는 공동체를 만든 것이 1기였다면 2기의 공유센터 활동은 민관협력을 통하 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공유할 수 있는 장비와 물품들을 준비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운영 관리 하 므로 가정이 회복하는 경제의 도움을 통해 제2, 제3의 공유센터가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 생각 합니다.

우리는 "자연과 사람이 가장 귀중한 자본 이다"라는 신념으로 가장 귀한 자원을 사람에게서 발견하 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꿈꾸는 세상을 현실로 실현해 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장과 가정을 오고가며 작은 경제를 운영하는 경영인이 되면서 본의 아니게 잃어버린 소중한 자신의 재능 과 존재감을 되찾아 주어 일상에서의 행복한 삶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행복한 세상은 평등의 분배가 아닌, 아름다운 나눔이고, 앞으로의 자본은 돈이 아닌, 관계와 신뢰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자신 속에 잠자고 있는 재능을 발견해주어 경제 가치와 연결시켜주고, 서로 필요한 물건과 공간을 공유해 경제 선 순환을 지역 안에서 꾸준히 일궈낼 것 입니다.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하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을 알아 가며 공감한 것을 함께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기에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그 나눔의 힘은 지속가능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6 Jeonju**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의 미래, 지역화
Local futures, Localization

CHAPTER 08

워크숍 4세션

'행복담론, 지역의 힘'

- 「지역의 힘」 진단도구와 워크숍 하세가와 마사코(Hasegawa Masako)
- 종로구 행복드림이끄미 활동 사례 배안용
- 뭐가 중헌디.... 그것은 행복! 엄성복
- 행복담론을 위한 선결과제 허문경

워크숍 4세션 '행복담론, 지역의 힘'

- 민선6기 우리 시의 중요한 가치인 생태도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해외 전문가, 국내 유관단체 및 현장기업가 등과 상호 비전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場(장) 마련
-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행복의 경제학'의 가치를 공유하고 관심을 제고하여 시민의 인식을 확산 발전시키기 위함.

■ 진행 순서

시간		구분	내용
18:30 ~ 18:40	10'	개회	개회인사, 발제 · 토론 · 사례발표자 소개, 내빈소개 워크숍 진행방법안내
18:40 ~ 19:10	30'	발제 1	「지역의 힘」 진단도구와 워크숍 하세가와 마사코 CSO Network Japan '지역의 힘' 프로그램 기획자
19:10 ~ 19:40	30'	발제 2	종로구 행복드림이끄미 활동 사례 배안용 종로행복드림이끄미 단장
19:40 ~ 19:50	10'	휴식	
19:50 ~ 20:30	40'	종합토론	엄성복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정책실장 허문경 전주대학교 연구교수
20:30 ~ 20:50	2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발제 · 토론 · 사례발표자와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20:50 ~ 21:00	10'	마무리	마무리 및 기념사진 촬영

좌장 구자인(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지역의 힘」 진단도구와 워크숍

하세가와 마사코 長谷川 雅子
(Hasegawa Masako)

1. 「지역의 힘」 진단도구

1-1. 배경

2011 년 3 월 11 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과 그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일본사회의 나아갈 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다음 세대에 물려줄 사회는 구조적으로 지금 이대로 괜찮은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뒤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지진 이전부터 환경과 생태와 주민들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의 노력은 일본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지역자원의 활용과 1차 산업의 경제적 자립, 도시민과의 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외부지원금이나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내발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CSO 네트워크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지역의 힘 포럼」이라는 연구회에서는 이러한 각지의 선진적인 대처를 2013 년부터 2 년 반에 걸쳐 발굴해내고 여기에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에 풍요로운 관계가 살아 숨쉬고 있으며, 주민이 주체가 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 지역에 공통되는 요소를 「지역의 힘」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힘」이야말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도를 높이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인정받으며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삶의 질을 평가하는 다양한 행복지표의 개발이 도쿄 아라카와구 등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힘」진단도구는 이러한 흐름을 감안하면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의 힘」을 지표화하고 알기 쉽게 제시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발적인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 주민들이 지표를 활용하여 자신의 지역을 검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 진단 도구의 목적과 대상

「지역의 힘」진단도구는 그 지역이 얼마나 지속가능한지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진단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 진단을 통해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단도구의 적용대상은 과소화, 고령화, 지속가능한 1차 산업의 추진, 자연환경보전, 지역경제순환 등 지역의 과제에 대해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활동을 모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 만들기 활동 범위가 「지역」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 진단 지표의 구성

「지역의 힘」진단 지표는 「공생 사회」 「경제 · 금융 · 산업」 「자연과의 공생」 「살림살이와 생활」 「공공 시설 · 설비」 「문화 · 전통」의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표의 질문에 답변하면 답변을 분야별로 집계하여 정육각형의 그래프에 결합하여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지역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지표와 함께 지역에 대한 개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합니다. 그 결과와 지표의 답변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요소를 밝혀냅니다. 각 분야의 지표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진단 지표의 구성은 「지속가능한 생계 어프로치(Sustainable Livelihood Approach)」의 구조를 참고로 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인적자본」, 「사회관계자본」, 「자연자본」, 「물적자본」, 「경제금융자본」의 5가지 요소에 일본의 지역의 힘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전통문화의 계승을 「문화자본」의 요소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위의 각 자본을 보유한 결과로서 지역주민의 「주관적 행복도」를 측정했다.

2. 「지역의 힘」 진단도구 활용 워크숍

2-1 워크숍 개요

진단도구는 진단도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진행자의 설명을 따라서 지역의 분들이 워크숍형식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지역의 힘」의 개념과 지표의 개요, 답변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지표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워크숍 운영자는 그 결과를 집계하여 하나의 차트로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참가자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도출합니다.

2-2 워크숍 사례

2015 년에는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를 시행하는 후쿠시마현 니혼마쓰시 토와 지구(福島県 二本松市 東和地区)와 후쿠시마현 기타카타시 야마토지구(福島県 喜多方市 山都地区)에서 실시했고, 2016 년에는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스루가구 마리코지구(静岡県 静岡市 駿河区 丸子地区)에서 「지역의 힘」진단도구를 활용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1. 후쿠시마현 니혼마쓰시 토와지구

토와지구는 산기슭에 계단식 논과 뽕나무 밭이 펼쳐지는 농촌이며 인구는 6,500 명입니다. 2005 년 토와마을(東和町)이 니혼마쓰시(현재 인구 56,600명)로 합병될 당시 행정의 각 사업에서 주변부가 되는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에 의해 주민협의체가 조직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은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가 합병을 계기로 「토와마을 고향만들기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의 미래, 지역화

협의회에서는 농산가공품개발 및 신규 귀농귀촌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농촌관광사업에 힘쓰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보다 긴밀한 협조를 위해 공무원과 사회복지단체 직원들도 「지역의 힘」 진단도구를 활용한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주민참여와 협력을 추구하는 「공생사회」 분야의 평가가 가장 높았고, 「자연과의 공생」 분야에서도 유기농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경관보존 활동, 재활용 및 재사용의 노력 등이 토와지구의 강점으로 인식되고 공유되었습니다. 「경제 · 금융」 분야에서는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자급자족적인 경제활동이 활발한 점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높았고, 지역순환경제를 추진하는 데는 상업과 농업의 보다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2-2-2. 후쿠시마현 기타카타시 야마토지구

야마토지구는 후쿠시마현과 야마가타현(山形県)의 경계에 위치한 아름다운 산촌이며 인구는 3,300명입니다. 2006년에 기타카타시(현재 인구 49,000명)에 합병되어 주변부가 되었습니다만, 이 지역은 메밀국수로 지속적인 성공을 거뒀고, 여전히 이주자가 많으며, 도시와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워크숍에는 야마토지구의 여러 지역조직과 사무국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참여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공생 사회」와 「살림살이와 생활」 분야의 평가가 다소 높고, 「자연과의 공생」 「공공 시설 · 설비」가 다소 낮은 수치였습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귀농귀촌인구가 많은 점이 장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전개할 사업으로는 세대와 분야를 초월한 커뮤니케이션센터의 설립, 노인들이 보유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지역특산물인 메밀국수의 활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2-2-3.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스루가구 마리코지구(静岡県 静岡市 駿河区 丸子地区)

마리코지구는 시즈오카시(현재 인구 71만명)의 남부 스루가구(현재 인구 21만2천명)의 서쪽 끝에 위치한 인구 약 12,000명의 유서 깊은 곳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면서도 살기 좋은 지역을 주민의 힘으로 만들기 위해 2011년 「마리코마을만들기협의회」를 설립하여 지역축제의 개최, 경작포기지의 교육적 활용, 노인 및 장애인 외출지원 등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 결과 「공생 사회」 분야의 평가가 높았고, 특히 지역사회조직이 다양한 점, 지역소방대 활동 등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한편, 평가가 낮았던 것은 「경제 · 금융」이었습니다. 농림수산업의 후계자 부족 또는 기업환경의 미비, 상품개발 부족 등이 구체적인 과제였습니다. 한편, 마리코마을만들기협의회는 지금까지 정보교환 등 행정과의 관계가 어려웠으나 최근 공익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지방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 워크숍을 돌아보며 : 「지역의 힘」과 행복도

주관적 행복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토와, 야마토, 마리코 모든 지역에서 지역애착, 자부심, 앞으로 이곳에 살고 싶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애착과 자부심을 느끼는 가장 뚜렷한 이유는 지역사람들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6 Jeonju

의 인간성이 좋다는 등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힘이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그 지역에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의 상관 관계는 극히 높았으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 지역에 살고 싶다고 느낀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행복한 지역이란 어떤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상부상조, 주민이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답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고, 행복하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조건이란 이웃과의 강한 유대, 주민의 주도적 역량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로구 행복드림이끄미 활동 사례

배안용

종로행복드림이끄미단장

1. 행복한 상상의 시작

종로는 조선 500년의 궁궐들이 있는 역사적인 장소이고, 현재도 많은 박물관과 역사적 유물들이 묻혀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또한 서울의 교통 중심지이며 관광지로, 매일 수많은 사람과 차량들이 드나드는 복잡한 곳이기도 하다. 이런 종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고풍스러운 분위기와는 달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2014년 종로구에서는 "행복"이라는 키워드에 관심갖는 직원 동아리가 생겼다.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공부하는 구청의 행복동아리이다.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발전되어 '행복'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를 제안하게 되고, 실제로 2015년 1월에 "행복드림팀"이라는 전담팀이 생기게 되었다. 이 행복드림팀에서는 밑그림부터 주민주도의 행복을 만들기 위한 주민참여 방식으로 "종로행복드림이끄미"를 공개 모집하게 되었다.

개인적인 행복의 차원을 넘어 종로라는 마을과, 같은 골목길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세계 하위권이라는데,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문제를 주민과 행정이 함께 풀어나가려 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을 위한 여정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교통 환경과 주민 안전의 문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과 의료 서비스와 노후대책의 문제, 주민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와 함께 나누는 문제 등을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행복드림이끄미'는 활동을 시작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여정은 지루하게 느껴지는 작은 일부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일들까지 다양하고, 이 모든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하기에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작은 벽부터 하나씩 무너뜨리고, 없어진 벽 너머로 보이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할 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2. 행복한 여행의 시작

2015년 3월 10일에 드디어 "종로 행복드림이끄미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여기에는 행복

드림이끄미 활동을 자원한 37명의 주민들과 이들을 도와줄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함께 했고, 자문을 위해 종로구의회 의원들(2명)도 함께하여 기대에 가득한 출발을 할 수 있었다. 참여한 주민들은 요구르트 배달부, 주부, 변호사, 과학자들도 있었고, 은퇴 하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주민들이었고, 모임 이름이 예뻐서 참여하셨다는 분, 개인의 행복을 찾아보겠다는 분, 본인의 재능을 지역 사회와 나누겠다는 분 등 참가 이유도 다양했다.

행복드림이끄미들은 스스로 사무국을 구성하여 단장과 간사, 그리고 부단장들을 선출하였고, 매월 1회 모이는 정기적인 모임과 SNS 네이버밴드를 통한 상시적인 소통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기모임에서는 '행복'과 관련된 사례를 학습하고, 개인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담론을 나누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의 정책과 일상적인 사업들과 연계되기도 하였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늘 존재하지만, 30년 후의 행복한 종로를 상상해 보고, 그 상상을 실현하기 위해 "나는, 우리는, 행정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독특한 워크숍 '종로행복상상테이블'을 2015년 4월 21일 종로구 무계원에서 열었다. 여기에서 행복드림이끄미들의 무한한 상상력은 종로형 행복지표를 만드는데 유용한 자료로 축적되었고, 그 행복을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런 상상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종로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가진 행복한 상상을 지켜나가는 문제와 다른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 5월 7일 행복드림이끄미 정례회에서 4개의 분과를 구성했다.

그 첫 번째 분과는 '행복조례제정분과'이다. 행복조례제정분과는 행복드림이끄미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분과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분과는 인증샷캠페인 분과를 종로의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활동하는 분과이다. "행복을 찾아서 인증샷캠페인"은 행복한 순간을 자유롭게 찍은 사진과 내용을 적어 행복드림이끄미 SNS에 올리거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공유하는 캠페인으로 종로에 사는 것에 대한 행복을 나누는 시민운동이 되었다. 여기에 함께 나눈 자료들은 플랫폼에 구축되어 종로형 행복지표 개발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행정과도 연계하였다. "행복을 찾아서 인증샷캠페인" 참여자에게는 '행복이야기상(가장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행복표정상(가장 아름다운 표정의 사진)', '행복다다익선상(가장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찍은 사진)', '행복행운상(00번째 참여자 등)'의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여기에 쓰인 시상품은 행복드림이끄미들의 기부물품을 통해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깊었다. 그리고 네 번째 분과는 SNS홍보분과이다. 홍보분과는 행복드림이끄미들이 진행하고 있는 "행복을 찾아서 인증샷캠페인"과 "주민발의 조례"활동을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을 활용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분과이다.

2015년 종로구에서는 행복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행복한 종로를 부탁해"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적극

참여 하여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180여 건이 넘는 아이디어들을 주민의 눈과 마음으로 심사자가 되어 참여하기도 하였다.

3. 행복한 사업의 시작

종로의 행복한 정책들이 단순한 구호나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화'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은 후, '종로구 행복조례'를 주민들이 직접 만들게 되었다. "종로행복조례"는 특별히 주민들의 발의로 준비한 것은, 종로 곳곳에서 '종로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꽃피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주민들이 서로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이른 아침이나 휴일에 모여 조례를 공부하고, 전문가와 행정의 조언을 들으며, 수없이 고치고 토론하여 준비한 '종로행복조례'의 초안을 만들었다.

2015년 9월 10일, 전문가들과 주민들을 초청하여 "종로행복조례 대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과 바람을 담은 조례는 큰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조례를 만들기 위해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드디어 2015년 10월 21일, 8개월간의 크고 작은 모임을 통해 확정된 "종로구 주민행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완성하고 구청에 '조례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종로구의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며, 행복조례 서명운동을 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서명을 위한 자원봉사자 60여명은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졌다.

종로구 행복조례는 '행복증진사업', '주민참여형 행복지표 개발과 측정 환류', '행복영향평가', '주민참여형 행복포럼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이를 통해 세계 하위권이 될 수밖에 없는 행복지수가 아니라, 우리만의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주민들이 종로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로 삼는 내용이었기에 많은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셨다.

주민서명을 마치고, 2016년 2월 4일 주민제정청구에 필요한 3,500명의 서명을 훨씬 넘는 5,342명의 서명용지를 종로구에 제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을 때, 행복드림이끄미들과 함께 고생한 자원봉사자들은 감격했다. 하지만, 주민참여를 정치적으로 오해한 구의회와의 갈등에 직면하였다. 2016년 5월 23일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절차도 없이, 법률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상정된 주민발의 '행복조례'를 절차상의 이유로 부결시켰고, 현재는 종로구의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서명에 참여한 주민들은 항의 기자회견과 질의서를 종로구의회에 전달하면서, 종로구청의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종로행복조례에 대한 내용 검토와 주민과의 토론회 등을 촉구하였다.

4. 행복한 생활의 시작

우리 행복드림이끄미들은 비록 종로행복조례가 구의회 계류라는 난관이 있었지만, 지난 3월에 행복드림이끄미 2기를 모집하여 새로운 상상과 사업을 통해 '종로에 사는 행복'을 만들려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주민참여 방식의 각종 시책과 제도에 과감히 도전하여 주민참여로 이루는 행복을 나누고 있다.

4-1. 주민 참여형 종로구 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종로구만의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하기 위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응모하여 예산을 확보했으며, 2017년도에 종로구에서 시행 예정이다.

4-2. 행복드림 게릴라 가드닝(종로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종로의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게릴라가드닝 사업으로 꽃을 통해 이웃들과 만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을 통해, 골목길에 함께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행복들을 키워가고 있다.

4-3. 돈의동 새뜰마을 "희망밥상"에서 행복을 노래하다.

종로3가에는 대낮에도 어두침침하고 좁은 공간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돈의동 쪽방촌이 있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새뜰마을'이라는 공동체로 모여 저녁식사도 같이 하고,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과도 나누는 '희망밥상' 모임이 있다. 여기에 종로행복이끄미들이 함께 하여, 기타 치며 노래도 함께 부르고, 꽃도 심고, 벽화도 그리고 있다. 이 사업으로 새뜰마을 주민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행복드림이끄미가 서로 이웃이 되는 과정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다.

4-4. 누구나 행복강사(종로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작은 강의실이 열렸다. 누구나 행복했던 경험이나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나도 행복강사'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삶의 지혜를 서로 나누는 과정과 다른 사람의 의견과 지혜에 경청하는 과정을 통해 행복은 작은 나눔을 통해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4-5 행복드림부메랑(민간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

종로구의 '행복부메랑' 사업은 '이웃 알기'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릴레이로 주민들의 행복실천을 확산하고 동참하는 시민운동으로 행복드림이끄미들이 적극 참여 하여 진행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고, 친하지 않았던 이웃에게 손편지와 음식을 나누고, 평소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던 주변의 봉사자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누는 '행복부메랑'사업은 행복드림이끄미들이 하나의 행복을 실천한 후에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행복에 동참하는 행복의 연결고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행복의

연결고리는 종로구 전체에 여러 개의 가지로 갈라져 여기저기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행복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5.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행복하자.

우리는 행복드림이끄미로 활동하면서, 주민참여가 단순한 사업의 들러리의 동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이웃과 나누고, 함께 참여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정책이나 법률과 같은 어려운 것은 잘 모르지만, 이웃 간의 소소한 이야기들과 나눔이 결국 나와 내 가족의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행복은 가까이 있다지만, 찾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 행복드림이끄미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해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내 가족들을 다시 보게 되고, 내 이웃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내가 사는 종로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작은 행동이 나비의 날개 짓처럼 행복으로 전해지고, 결국 나에게도 돌아 올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행복 사업'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이 곧 '행복'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좀 더 행복해지고 싶다.

뭐가 중헌디.... 그것은 행복!

엄성복

행복을 사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우리는 그렇다고 믿고 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런 착각에 살고 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돈은 하나의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일정 정도 물질적 욕구가 충족된 상태에서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비하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과 돈의 관계가 정비례한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

돈과 행복이 정비례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GNP라고 하는 사회발전 척도일 것이다. 돈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나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발전척도는 GNP가 아니라 GNH가 되어야 한다.

GNP가 아니라 GNH가 발전척도로 사용된다면 우리사회도 행복한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해 왔었다. 그러나 일본의 '지역의 힘'사례와 '종로구행복드림이끄미'사례를 접하면서 그동안의 생각이 얼마나 짧은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사회발전척도가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그 발전척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생각해 보면 많은 시민들이 행복지수에 대하여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생각은 여전히 돈이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행복지수 자체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이 변화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지역의 힘'사례와 '종로구행복드림이끄미'사례처럼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는 노력의 1/10만 행복하기 위해 투자한다면 시민들의 삶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돈이 삶의 기준인 사회에서 행복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다. 그러하기에 행복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함께 하여야 한다. 일본의 '지역의 힘'과 '종로구행복드림이끄미'사례에서도 많은 영감을 얻었다.

발표사례를 보면서 궁금한 점은 첫째, 시민들이 아니라 '지역의 힘'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과 '종로구 행복드림이끄미'에 참여한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궁금하다. 둘째, 일본의 '지역의 힘'활동이 행정과 얼마나,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셋째, '지역의 힘'활동과 '종로구 행복드림이끄미'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구체적인 반응이 궁금하다.

행복담론을 위한 선결과제

허문경

전주대학교 연구교수

행복개념의 정의

세션의 제목을 살펴보면 '행복담론, 지역의 힘'이라고 정해져 있다. 행복을 논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를 범위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범위를 정하는 것은 논의에 앞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행복에 대한 논의는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각각의 학문분야에 따라 인지의 기반과 문제해결의 방법이 다르므로 행복에 대한 개념의 정의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실제로 드러나는 사회현상에서는 문제점들이 다면적, 다층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마련이다. 본 세션에서 다루는 '행복담론'이란, 예를 들어 '공동체의 행복증진을 위한 거버넌스 활동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는 것'이며, '행복'이란 용어는 '주민행복'을 의미한다는 등 행복개념의 정의와 공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첫 번째 논점은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 찾기가 아니라 논의의 범위를 어떻게, 어디까지 좁혀서 다루기 쉽게 할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행복개념의 공유범위

1발제, '지역의 힘'에서는 내발적 발전의 요소가 지역의 힘이며, 지역의 힘이 주민의 행복도를 높이고, 타지역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는 요소로 작용하며, 또한 지역의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지역의 힘 진단도구'의 적용대상은 과소화, 고령화, 지속가능한 1차 산업의 추진, 자연환경보전, 지역경제순환 등 지역의 과제에 대해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활동을 모색하고 있는 지역이다. 즉 지역만들기 활동범위가 '지역'의 범위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2발제, '종로행복드림이끄미'를 살펴보면, 종로구에서는 2017년 종로구 고유의 행복지표를 개발할 예정으로서 아직 행복도를 측정하는 도구인 행복지표는 만들어지지 않은 단계이다. 현단계에서는 종로구민 행복증진에 관한 사업을 주민에게 알리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는 지리적으로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정치 1번지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종로구에 위치한 120년 역사의 초등학교들의 재학생이 각 학교마다 200명정도이고 신입생이 30명정도라고 한다. 도심공동화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과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의 50%정도가 되며 주거지역은 앞으로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어떠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활동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서울연구원에서는 세계적인 행복도 측정의 흐름에 발맞추어 서울시민의 행복도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거주민의 삶의 만족도'(변미리, 2013)라고 정의했다. 또한 행복에 대한 정의로서 토론자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에서는, '객관적 삶의 조건과 주관적 만족감(Diener et.al., 1985)'이란 사회심리학에 기초한 정의가 가장 가치중립적이고 명료한 정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OECD가 개발한 행복의 측정지표인 Better Life Index(BLI)에서도 크게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2개의 차원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지역의 힘'과 '종로행복드림이끄미'를 비교했을 때, 전자는 '객관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역량'이 강조된 반면, 후자에서 논하는 '행복'에는 비교적 잘 정비된 조건에 대한 '수동적인 수용'의 태도가 '주관적인 만족감'이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게 된다.

따라서 두 번째 논점은 '객관적 삶의 조건'과 '주관적 만족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객관적 삶의 조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이다. 한편 '주관적 만족감'을 높이는 방법은 사회심리학에서 다루는 문제이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지역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복합적인 조건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 전주와 같이 대도시의 특성과 중소도시의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지역, 게다가 65만 인구가운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2만5천명을 포함하는 도시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다루어지는 일본과 종로구의 사례에서 관찰되는 문제점을 함께 지니고 있다. 토론회의 성과가 현장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언급한대로 GDP를 대체하는 삶의 질의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흐름이며, 2014년 기준으로 일본에서는 22개 지자체에서 각각의 지표를 개발하였다(Tsuji, 2014). 행복지표는 개발과 측정보다 지속적인 적용과 개선이 중요하다.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6 Jeonju**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의 미래, 지역화
Local futures, Localization

CHAPTER 09

주제강연 2

-
- 새로운 경제를 위한 뉴미디어 잔 보아그(Zan Boag)
 - 지역발전을 위한 자금확보 조나단 다슨(Jonathan Dawson)

새로운 경제를 위한 뉴미디어

잔 보아그
(Zan Boag)

우리는 소통하고 기술을 사용하며 미디어를 소비하는 데 있어, 그리고 환경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 믿기 힘들 만큼 큰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위대한 진보의 시기로 칭송하나, 이는 우리의 정신적, 사회적 건강과 자연을 대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국경을 초월한 협력의 시기로 묘사하나, 이 때문에 우리는 여러 세기에 걸쳐 꽃피워 온 문화 다양성을 대가로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의사소통의 혁명으로 여기고 있지만,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블로그 포스트의 광풍 속에서 우리는 더 적게 말하고 있으며, 분명 과거보다 무의미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진보'의 결과로 사람들은 수많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으며,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에 더해, 당분 및 인공 재료가 지나치게 많이 사용된 음식을 소비하는 일이 늘어나고 신체활동이 감소하면서 다양한 신체적 질병을 겪고 있는 인류는 의문의 여지 없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세기에 이 '진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득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러한 형태의 '진보'는 인류 대다수 그리고 이 행성에 사는 다른 종들에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큰 변화의 시기에 수많은 도전을 마주하고 있지만, 의심의 여지 없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논제는 환경의 파괴입니다. 더는 물을 마실 수 없고, 토양에서 식물이 자라나지 않으며, 공기가 숨쉬기에 부적절하다면, 기술의 발전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지식의 증가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이 지구에서 내가 속한 지역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도전은 종종 대처하기 너무 어려운 것처럼 보이며,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엔 너무 늦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제게는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모두 일어서서 지금 믿고 있는 것들과 싸워나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희망은 미래 세대가 변형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및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러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은 제 개인 사업을 윤리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윤리적 틀 뿐만 아니라, 목적이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언급하는 데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이윤 추구를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 개의 국제적인 잡지로, 전 세계 18개국에서 16,000개 이상의 이야기를 담은 출판물이 광고 없이 배부되었으며, 둘 다 상을 받았습니다.
- 지식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 서점
- 윤리적인 생산 과정을 거친 유기농 차 라벨

두 잡지는 상업적인 시각이 아닌 생태학적 및 사회적 관점에서 우리 시대의 중요한 논점을 논의하는 포럼을 제공하며, 각호는 기술의 역할, 교육의 목적, 행복 추구, 진보에 대한 현대의 관점과 같은 어려운 논제를 동시대의 시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수준의 논의와 토론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광고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독립 서점은 지식인이 모이는 장소이며, 과거 및 현재 사상가의 책을 제공하여, 고대 로마 학자인 세네카(Seneca)와 피터 싱어(Peter Singer) 최신 책이 공존하며, 데이비드 스즈키(David Suzuki) 옆에서 라오 츠(Lao Tzu)의 저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서점은 보유하고 있는 책들 및 이 서점에서 구할 수 없는 책들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연애소설, 최신 스릴러, 증명도 되지 않은 최신 유명인사의 전기 등 독립 서점에서 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윤리적인 생산 과정을 거친 유기농 차 라벨을 생산하며, 이 라벨은 우리 서점 및 우리와 협력 관계를 맺은 다른 독립 서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차와 좋은 책이 훌륭한 조합이라 생각합니다.

세 가지 사업 분야에서 모두, 우리는 얼마를 벌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업을 하는가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이들처럼, 우리는 옳고 그름을 명확히 나누는 경향이 있으며, 공정과 불공정을 판단하고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연계와 그 안에 깃들인 생명체를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저는 세 개의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언급하고자 하며,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해 이러한 정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이야기는 사랑, 격노, 불공정에 맞서기 위한 불타는 욕망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어머니와 친구분들이 테니스 치는 것을 제가 구경하곤 했던 세 살 무렵 있었던 일에 대해 가끔 얘기하십니다. 이따금 제가 코트에 뛰쳐들어가 안아달라고 보채면 테니스 게임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아이의 사랑이 가진 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성인이 되었고 여전히 제 어머니를 깊이 사랑하지만, 어머니로서의 지구(Mother Earth), 또는 제가 이렇게 부르길 좋아하는데 우주선 지구(Spaceship earth)에 대한 제 사랑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크게 자라났으며, 이 지구는 저와 제 커뮤니티, 그리고 그 표면을 장식하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품고 있는 행성입니다.

두 번째는 파괴주의와 훼손에 대한 격노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름답고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잘려 버섯정류장이 되어 버렸을 때 처음으로 격노를 느꼈습니다. 그때 나무를 잘라버린 일은 사소한 편의를 위해 아름다움을 없애버리는 정말이지 매우 파괴적인 일이었습니다. 현재 버섯정류장은 철거된 상태이며,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나무도 없고 편리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야기하고 있는 파괴주의와 훼손에 대한 제 격노는 사소한 편의를 위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든 불필요한 파괴와 자연환경의 오염에 이르기까지 더욱 커졌으며, 훼손으로 인한 편리함은 내일이면 사라지고 잊혀집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불공정에 맞서기 위한 불타는 욕망에 대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이러한 욕망은 네 명의 자녀가 있던 우리 집에서 수없이 발생했으며, 사탕이나 인형이 동일하게 분배되지 않았던 일이거나, 여러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오지 않았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제 불공정에 맞서기 위한 제 불타는 욕망은 모든 인간, 모든 생명체, 지구상의 모든 부면에 이르기까지 더욱 커졌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사랑, 격노 그리고 불공정에 맞서기 위한 불타는 욕망에 대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성인으로서 우리가 어릴 적 가졌던 바람을 계속 의미 있게 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며, 우리가 믿는 것을 위해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자기 자신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적, 사회적 도전 및 소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려면 우리 모두가 당면한 논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9세기에 덴마크 철학자인 소렌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는 인간이 심각한 문제를 경솔하게 다루는 경향에 대해 걱정을 표했으며, 이는 인간이 전례 없는 범위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인 소위 인류세(Anthropocene) 시대라 불리는 현 세상에서 인간이 가진 심오하고 영속적인 효과에 있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험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광대와 관

객에 대한 우화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부를 인용하자면 "극장 뒤편에서 불이 났다. 광대는 사람들에게 화재를 알리기 위해 뛰쳐나왔지만, 사람들은 농담인 줄 알고 박수를 보냈다. 광대는 다시 한 번 경고했지만, 갈채는 더욱 커질 뿐이었다. 나는 세상이 이렇게 종말을 맞이할 것으로 생각한다.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의한 박수갈채로."

키에르케고르는 19세기에 이 점을 지적했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환경파괴는 농담이 아닙니다. 수도관이 오염되고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것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점을 진정 필요한 정도로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인한 환경 문제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세대는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듯 농담이라 여겨 "불이 났음에도 갈채 박수를 보낸" 세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여전히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는 복잡한 논제이며, 단 한 마디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경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려면 응당 고민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면에 침투해 있는 미디어의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생기는 '주의를 빼앗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간접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며 누구를 존경하는지 결정하는 데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는 것도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디어는 우리의 삶, 영웅과 악당, 성공과 가슴 아픈 순간을 정의합니다.

따라서 미디어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의 질문은 미디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 사고의 틀을 잡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연구 분석 자료는 21세기에 사람들의 삶이 미디어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보여줍니다. 이 수치는 미국을 배경으로 조사한 것이지만, 호주와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데 쏟는 시간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닐슨(Nielsen)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성인은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데 하루 평균 11시간을 사용합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 중 거의 70%를 화면 앞에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수치를 살펴보면 훨씬 더 놀랄 것입니다. 미국의 카이저 가족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에 의하면, 8세에서 18세의 자녀들이 평균 네 대의 TV, 두 대의 CD 플레이어, 세 대의 라디오, 세 대의 DVD 플레이어, 두 대의 비디오 게임기, 두 대의 컴퓨터가 있는 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매 주 미디어를 소비하며 보내는 52시간은 취미를 위해 보내는 시간보다 7.5배 많으며,

신체 활동을 하는데 사용하는 시간보다 6배나 많고, 숙제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아 아이들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의 9배를 미디어를 소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이들은 취침 시간을 제외하면 미디어를 시청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교육 체계와 가족들이 아이들의 삶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한 시간을 보낼 때마다 미디어를 소비하기 위해 네 시간을 사용합니다. 달리 말하면 미디어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부모들보다 네 배나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닐슨 연구소에 따르면, 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형태는 아이들이 받는 전체적인 교육에 비취웠을 때 역할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닐슨 연구소는 미국 아이들이 학교 교과과정으로 일 년에 900시간을 사용하지만, 미디어를 소비하는 데는 매년 2,500시간을 사용하여, 거의 세 배의 시간을 소비한다고 보고합니다. 이 수치는 아이들이 일 년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의 거의 두 배 가까운 시간인 1,500시간을 TV 앞에서 보내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TV를 필두로 하는 미디어는 오늘날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영향력이 큰 교육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논점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미디어를 소비하는가가 아닌,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아이들은 TV에서 평균 8,000회의 살인 장면을 봅니다. 13세가 되기 전에 8,000번이나 되는 살인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18세가 되기까지 16,000회의 살인과 200,000회의 폭력을 시청하게 됩니다.

살인 장면에 더해, 미디어가 주로 다루는 것은 성관계입니다. 미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2/3는 성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14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 중 58%는 음란물 웹사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20년 전에 닐 포스트먼(Neil Postman)은 그의 베스트셀러 서적인 '교육의 종말'에서 이 충격적인 유행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 일부를 인용하자면 "미국 아이들은 3세에서 18세 사이에 평균 500,000회의 텔레비전 광고를 시청하게 될 것이며, 이는 아이들이 노출되는 주된 가치관의 원천이 텔레비전 광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워싱턴대학교는 미국의 십 대가 전체 광고의 20%인 100,000회의 광고를 시청할 것이며, 이는 대부분 맥주 광고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합니다.

따라서 술, 성관계, 살인이 오늘날 아이들의 주요 과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없을 때는 집에 마약중독자가 있거나 폭력적인 이웃이 있는 사람들만 이러한 폭력, 약물남용, 살인, 무분별한 성관계를 목격했으나, 이제는 모든 아이가 이와 같은 충격적이고 해로운 장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가치의 침식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더는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에 있지 않고 자연과 유리된 모습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화면을 보는 대신 자연과 서로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벨기에 철학자인 루스 이리가레이(Luce Irigaray)가 말했듯, "정원에서는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

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화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미국의 생태학자인 토마스 셸링(Thomas Schelling)은 마음을 "소비하는 신체 조직"이라 부르며, 우리는 소비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음식을 저장하고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지만, 지금은 대형마트와 음식점이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줍니다. 따라서 시간에서 자유로워진 인류는 다른 것들을 소비하기 시작했는데, 정신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부분 추상적인 것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념과 정보를 소비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미디어의 최신 헤드라인을 훑어보면 우리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들을 소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현시대의 개념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의문의 여지 없이 기술의 진보를 목격하고 있지만 이러한 진보는 우리를 오로지 '주의를 빼앗는 것', 파괴, 자연환경과 그 주변의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 이끄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결여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과 안식처를 제공하는 단 하나의 원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진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미디어가 조장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춰 말씀 드렸지만, 미디어가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과 표현하는 내용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미디어 관련 문제의 중심은 광고에 있으며, 미디어는 광고 때문에 소통의 수단에서 회사 선전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가 죽고 난 뒤 지구에 거주할 사람들 및 지구라는 행성에는 꽤넘치 말고 가능한 한 많이 소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저는 미디어에 광고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출판물에 어떤 광고든 실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람들을 이따금 제게 "하지만 잡지에 광고를 실으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제 대답은 제가 광고를 거부함으로써 인해 윤리를 더 잘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윤

리가 새로운 가치로 인식되어 많은 사람이 지금보다 윤리적이고 현명해지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과 유리되어 이미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몇 번 재생산되지만 하면 '유명' 해 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광고판이나 버스 옆에 상품이 몇 번만 더 노출되면 더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정치행사 관련 사진이 미디어에 노출되면 더욱 파급력이 강해집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넘쳐나는 사진들이 싱겁고 가벼운 오락 정도로 여겨질 때 사실 사람의 눈을 현혹하기 위해 이 사진들을 재생산하는 회사들은 이 사진들이 권력, 부, 아름다움, 명성과 같은 환상과 속임수, 장난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이론가인 기 드보르(Guy Debord)는 우리가 이러한 극적인 이미지에 중독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한때 실재했던 모든 것은 이제 단순한 표현이 되어버렸다."고 썼습니다. 드보르에 있어 사회적 삶은 실제 세계의 존재라는 위치에서, 소유한 뒤 그저 표시하는 것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미지를 내재화함에 따라 우리 주변의 실제 세계에 대한 이미지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의한 장난질과 속임수가 우리의 정신건강에 심각하고 위험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디어 비평가인 진 킬본(Jean Kilbourne) 박사는 미국인이 매일 평균 3,000회 이상의 광고에 노출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어떻게 걷고 공을 가지고 노는 지 배우는 것만큼이나 성인들도 반복에 의해 배웁니다. 스크린을 통해 투영하는 반복된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느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진 킬본 박사의 말을 인용하자면 "광고는 상품보다 더 많은 것을 판매한다. 광고는 가치관, 사랑과 성에 대한 개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판매한다. 광고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친다."

대부분 사람은 광고가 무익하며, 자신들은 광고의 영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킬본 박사는 "광고의 영향은 잠재의식을 파고들며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실수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킬본 박사는 광고 산업계의 주요 잡지인 애드버타이징 에이지(Advertising Age)의 이전 편집장 랜스 크레인(Rance Crain)의 말을 빌려 "우리는 광고 메시지의 8%만을 의식한다. 나머지는 뇌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깊은 곳에서 발현되고 또 발현된다."고 합니다.

킬본 박사의 결론을 인용하자면 "유독한 공기를 마시고 오염된 물을 마시는 물리적으로 유해한 환경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이윤을 위해 우리의 건강 및 안녕에 대한 감각을 계속 희생하며 불건전한 이미지에 둘러싸인 문화적으로 유해한 환경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저는 새로운 생각의 방식을 위한 뉴미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의 방식은 현재 상황에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책을 통해 오락이 더 중요한 것들로부터 사람들의 정신을 빼앗기 위해 과거에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인 미하이 칩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는 역사를 살펴보면, 음식과 오락이 잘 제공된 사회에서는 무언가를 성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기록을 보면, 사회는 의미 있고 생산적인 직업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때 여가생활 특히 수동적인 여가 생활에 크게 의존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빵과 서커스'라는 표현은 사람들의 배를 불리거나 오락을 통해 어리석게 만들어 그들의 만족감을 채우는 전략을 가리킵니다. 칩센트미하이 교수의 말을 인용하자면 "서양의 첫 번째 역사가인 그리스의 헤로도토스(Herodotus)는 페르시아 전쟁 중 흥작이 이어져 굶주리는 사람들이 발생하자 리디아와 소아시아 왕인 아티스가 국민의 주의를 돌리려는 방편으로 3천년 전에 구기 종목을 도입했다고 묘사한다. 비잔틴 제국이 기울던 시기의 콘스탄티노플에서도 비슷한 형태를 볼 수 있다.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거대한 전차 경주가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오늘날도 흥작이라는 사실만 제외하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파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듯이, 대부분의 사람이 잘 먹고 오락을 즐기는 동안 다가오는 어두운 운명에 대한 경고도 많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선택 및 우리가 사업하는 방식, 우리가 속한 사회를 통해 이러한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회적 마인드를 가진 사업이 계속 떠오르고 있으며, 협력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6주 전, 허문경 교수는 제게 이메일을 보내 전주시가 관내의 사회적 기업 및 협력업체 개발 정책을 시작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Hodge)는 행복의 경제학 회의 및 다양한 회의를 여는 것에 더해, 제가 사는 지역에서 유기농 식품점 협력업체를 세우는 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식품은 윤리적인 재료에서 시작해 유기농으로 재배되었으며, 우리 지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큰 반대 없이 협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는 '진보'와 소비에 있어 더 어려운 영역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영역은 제가 사는 지역 및 여기 전주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민은 새 쇼핑몰 때문에 분열되어 있는데, 시민 중 절반은 거대한 쇼핑센터가 지역 경제를 망친다 주장하며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단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며 윤리적인 질문으로 보입니다. 정말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는 쇼핑몰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

적, 사회적, 문화적 안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유지시켜 주는 것에 대한 사랑, 파괴주의와 훼손에 대한 격노 및 세계에 편만한 불공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뿌리 깊은 열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모두가 어린 시절 느꼈던 것을 잘 반영할 것으로 생각하여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머니로서의 지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파괴에 격노를 나타내며, 불공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하는 어린 아이들이 되고, 지구와 그 안에 거주하는 모든 생명체가 앞으로 수 세기 동안 번영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또한 이 어린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언급했던 벨기에 철학자인 루스 이리가레이(Luce Irigaray)를 인용하며 제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리가레이는 자연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자연은 우리가 거주할 훌륭한 장소를 제공해준다. 단 하나이자 유일한 장소이며, 계절과 지리에 따라 항상 변화하고 바뀐다. 자연은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모든 감각을 동원해 사색하고 공유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제때 공급해준다. 달력과 비교해보면 계절은 얼마나 변화무쌍한가! 계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셀 수 없는 다양성과 비교하면 달력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회색이며 돈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과 휴식을 계속 번갈아 하고, 무언가를 팔고 연회를 위해 장보는 일을 계속 번갈아 한다. 잠시 멈추어 우리의 자연환경에 대해 사색할 시간도 없이 이쪽저쪽으로 뛰어다니며, 삶을 즐기고 계발하고 공유하지도 못한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 행성의 생명, 그 위에 거주하는 모두의 생명은 그렇게 조금씩 희미해져 간다."

우리는 생명이 사라지도록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개발하고 즐기고 공유해야만 하며, 자연계에 남은 것들 및 우리의 강력하고 생동하는 인간의 문화를 보호해야 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바로잡아 줄 일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을 위해 일어서서,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지구라 부르는 이 신비한 장소에 살아 숨 쉬는 경외감을 아직 즐기지 못한 태어나지 않은 것들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보고,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고대 서양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바꿔 말하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시작하기 좋은 곳을 하나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윤리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윤리적인 틀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개인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고 사업을 윤리적으로 수행하며, 가장 중요한 것으

로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개인들과 기업체들에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자녀와 그들의 손자녀를 위해 바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워나가야 합니다.

미래 세대는 우리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판단할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받고 싶다면 현재 지구에 사는 생명체뿐 아니라 우리 뒤를 따라 생겨날 모든 생명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자금확보

조나단 다슨
(Jonathan Dawson)

'저축이 아니면 여행 가방을!' 이 말은 가톨릭 사제인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가 1950년대에 몬드라곤의 젊은이들이 직업을 찾기 위해 짐을 싸서 스페인의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던 바스크 공동체 주민들에게 던진 저항이자 도전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냉철하고 명확했으며, 우리도 자금 및 그 외 자원의 공동출자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공동체와 문화도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60년 뒤, 바스크 사람들이 초석을 놓았던 그 일로 인해 스페인에서 6번째로 큰 산업 단지가 조성되었고, 현재 250개의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으며 7만 5천명이 재정, 산업, 소매, 지식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¹⁾

이는 부가 기업에 더욱 집중되고 있는 시대에 주목할만한, 그리고 매우 드문 성공 스토리입니다. 몬드라곤이 독자적인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것처럼, 각 지역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자금과 그 외 형태의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어떻게 그 자금을 지역에서 순환시켜,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더 큰 경제로 즉시 빠져나가지 않고 다양한 교류를 가능하게 하며 서로를 이롭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영역에 있어 중요한 혁신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자본의 체계가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 따르면 자본은 시스템 내에서 중립적인 유틸리티 역할을 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저축과 교류의 대체 시스템 또는 유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자본이 맨 처음 발생하는 방식이 모든 문제의 중심인데, 대부분의 경우 상업은행에서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대출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본의 발생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시스템은 성장을 강요하므로 돈을 빌린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활동을 증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스템은 자본을 배분할 때 주로 사회 및 생태학적 비용의 객관성에 기반해 이윤을 낳는 가장 파괴적이며 글로벌화된 자들에 의해 최대의 이윤을 내는 사업으로만 쏠리게 되어, 지역에 기반을 둔 소규모의 사업이 자본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이 시스템은 이자 지급을 통해 가난한 자에게서 부자에게 부가 전달되게 하는 체계적인

1) <http://www.mondragon-corporation.com/eng/about-us/>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뒷면의 도표 1은 2004년 독일에서 이자 지급으로 벌어들인 소득 및 지출을 보여줍니다. 인구를 250만 명씩 10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최저 빈곤층 10%를 왼쪽에, 최고 부유층은 오른쪽에 두고 보면, 가난한 80%는 본인이 벌어들인 이자 수입의 거의 두 배를 이자로 내고 있으며, 그 다음 10%는 지급하는 이자에 비해 조금 더 벌어들이고 있고, 가장 부유한 10%는 본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거의 두 배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보면, 2000년에 돈을 벌기 위해 일한 사람들로 부터 '나를 위해 돈이 일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10억 유로가 이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²⁾

현재 시스템이 보여준 결과를 살펴보면, 자본은 중립적인 유희유 역할을 넘어, 이미 부유한 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수많은 사상가와 활동가가 대안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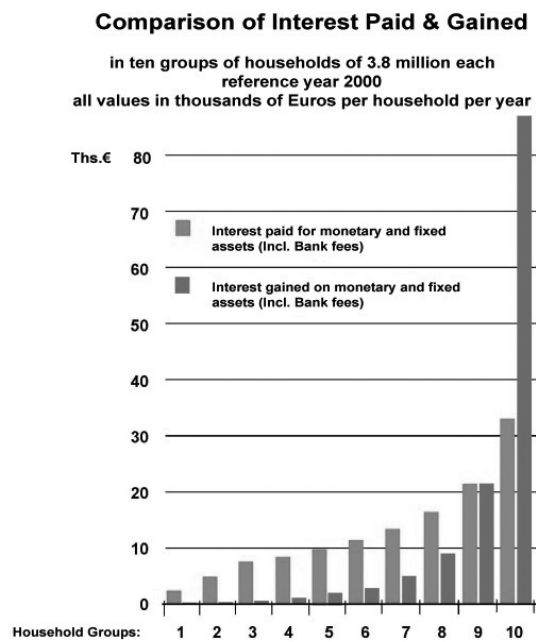


도표1 : 이자 수입과 지출 비교, 2014년 독일

지역 자본 확보 도구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역의 윤리적이며 협력하는 경제 주체는 어떻게 자본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2) M. Kennedy, Interest and Inflation Free Money, Seva International, 1995, <http://userpage.fu-berlin.de/~roehrigw/kennedy/english/Interest-and-inflation-free-money.pdf>

이러한 기업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년간 노력을 기울여 완성한 자본의 구조가 많이 있으며, 그 중 다수는 호응을 얻으며 부활하고 있습니다.

몇몇 나라는 오랫동안 정부가 지방의 윤리적인 은행을 지원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는 2차 세계대전 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개발은행의 역할을 하도록 설립된 독일부흥금융공사(KfW)가 오늘날까지 존재하며 독일의 탄소 감소와 녹색경제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990년대부터 EU 내에서 녹색경제를 선도하고 있으며, KfW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현재 해당 분야에 37만 명이 넘는 종사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http://www.energiwende2015.com/wp-content/uploads/2015/03/Factsheet-Renewables-from-Germany.pdf>.³⁾

KfW는 자본의 1%를 독일의 소규모 은행에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시영 저축은행과 신용조합이 이 대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상업을 전제로 하는 중소기업과 주거를 위한 주택 소유자에게 2.65% 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독일 지역경제의 유연성과 힘의 주된 원천은 각 지역에서 높은 비율의 대출을 권장하는 구조를 가진 지역 은행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입니다.⁴⁾

미국의 국영은행인 노스다코타은행(BND)도 비슷한 경우인데, 이 은행은 지역 경제의 다원화를 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모델은 미국의 다른 여러 주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BND는 노스다코타주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으로 학생, 소상공인, 농부, 합리적인 주택 개발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윤의 반 이상은 노스다코타주의 일반 기금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노스다코타주의 세금을 벌충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출의 재원이 됩니다.⁵⁾

신용조합은 오래되었고 협력하는 또 다른 자본의 구조로서, 현재의 재정 위기의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1852년에 생겨난 신용조합은 회원이 소유한 자본 협동조합으로 회원들에 의해 민주적 형태로 운영되며, 회원들에게 경쟁력 있는 신용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05개 나라에 5만 7천 개의 신용조합이 있으며 2억 1천 7백만 명의 회원이 적절한 재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⁶⁾

공동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은 전 세계에서 생겨나고 있는데, 회원의 저축에 의해 자본의 일부를 확보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 또는 재단의 여러 기금과 보조금을 통해 나머지 자본을 확보합니다. 이

3) P. Conaty, Co-operative Commonwealth: De-commodifying Land and Money, The Commons Transition, 19 January 2016 <http://commonstransition.org/co-operative-commonwealth-de-commodifying-land-and-money-part-1/>

4) Ibid.

5) E. Brown, Public Banks are Essential to Capitalism, New York Times, 2 October 2013 <http://www.nytimes.com/roomfordebate/2013/10/01/should-states-operate-public-banks/public-banks-are-essential-to-capitalism>

6) <http://www.abcul.org/credit-unions/international-movement>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브라질의 방코 팔마스로, 등록이나 소득증명, 채무자의 신뢰도를 보증하는 보증인 없이 낮은 이율로 자본을 공급해 미소금융이 지역의 생산 및 소비에 기여할 수 있도록 199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방코 팔마스는 연방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브라질 전역에 52개의 공동체 은행을 열 수 있었습니다. <http://imaginationforpeople.org/en/project/banco-palmas/>.

많은 지지를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공동체 기금의 또 다른 오래된 모델은 공동체 매입으로, 공동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과 시설을 공동체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수단입니다. 이렇게 하여 내핍 상태에서 수익성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네 상점, 술집, 커뮤니티 센터부터 시영 에너지 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동체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는 모든 재생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공동체의 소유이며, 베를린과 함부르크는 시영 에너지 사업을 공동체가 소유하도록 하여 새 지평을 열었고 다른 여러 독일 도시들도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⁷⁾

폴뿌리 공동체 투자는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강세이며, 사람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투자자가 되어 시민으로서의 가치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 분야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곳은 배스와 서부 공동체 지원 협동조합(BWCE)입니다. 지난 6년 동안, BWCE는 9개의 공동체 주식과 채권을 통해 거의 1천 3백만 파운드를 모을 수 있었으며, 31MW의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5천 개 이상의 주택에서 일 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일부를 소유하는 개발 협동조합을 만들고 다른 공동체 에너지 그룹과 함께 BWCE의 개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⁸⁾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군중 펀딩으로 알려져 있는 모델인 개인 간 투자 채널을 통해 공동체에 기반을 둔 조직과 활동에 자금을 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중 펀딩은 온라인에 상세내역을 올려 투자를 받는 것으로, 소규모 투자자에게 대출이나 기부를 요청합니다. 고테오와 같은 군중 펀딩 형태의 플랫폼은 확실히 윤리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생태학적 영향과 소유권의 기준을 충족하는 조직 및 단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중 펀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모금한 금액은 2003년 미화 51억 달러에서 2014년 16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340억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9) 10)}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 재원 모금의 마지막 모델은 트랜지션 타운스 운동으로, 지난 십 년 동안 국제적으로 오염되어 온 공동체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트

랜지션 프로젝트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리코노미(REconomy <http://www.reconomy.org/>)로서, 경제의 유연성을 증대하기 위해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사업을 창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리코노미의 공개적인 연례행사 중 하나는 지역 사업자 포럼(LEF)으로, 각 지역의 사회적 기업가들이 투자자와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LEF 조직자들은 '우리는 모두 투자자!'라는 구호 아래 활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보면 단지 돈을 투자하는 것에 더해 자원봉사, 아이돌봄 멘토링 등 지역 사업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¹¹⁾

미국에서는 살아있는 지역경제를 위한 전국 비즈니스 연합(BALLE) <https://bealocalist.org/attracting-investment>이 지역 투자자 단체를 만들고 각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가들이 멘토 및 그 외의 자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왔습니다.¹²⁾

공동체 화폐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 내에서 사용되는 자원이 세계화된 경제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보존할 수 있습니까? 런던의 새로운 경제 재단에서 고안한 개념인 새는 바가지(leaking buckets)는 우리 지역 경제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부면으로, 월급이나 복지기금, 송금 등의 형태로 우리 공동체에 돈이 흘러 들어오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역에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부족으로 이러한 돈은 곧바로 다시 흘러나갑니다. 대형마트에서 사용된 돈의 90% 이상은 즉시 지역 경제를 떠나 버립니다.¹³⁾

여기서, 국가 화폐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으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교환의 수단을 도입한다면, 지역 경제의 힘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부면이 특별한 주목을 받아 왔는데, 공동체 화폐 혁신은 일반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특히 힘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으며, 오늘날 빠르게 퍼지고 있는 여러 사업은 1920년대 후반에 월가가 겪었던 충격적인 시기 이후로 여러 실험에서 계속 증명되어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국가 화폐가 현재 어떻게 생산되고 있으며 시스템상 어떤 다양한 결함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충격에 빠지게 되어, 공동체와 밀접한 교환 방식을 대안으로 만들어내는 실험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매우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현실에서 공동체 화폐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우며, 실행에 옮긴 것 중 비교적 적은 수만이 오랫동안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 공동체에는

7) <http://energytransition.de/2013/10/hamburg-citizens-buy-back-energy-grid/4>) Ibid.

8) <http://www.bwce.coop/about-us/our-achievements-to-date/>

9) <http://en.goteo.org/>

10) Barnett, Chance (June 9, 2015). "Trends Show Crowdfunding To Surpass VC In 2016". Forbes.

11) <https://reconomycentre.org/home/lef/>

12) M. Shuman, Local Dollars, Local Sense: How to Shift Your Money from Wall Street To Main Street and Achieve Real Prosperity, Chelsea Green, 2012

13) <http://pluggingtheleaks.org/about/>

공동체에 기반을 둔 교환 방식의 부족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공동체에서 교류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 서비스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상호 신용 시스템 공동체인 파인드혼은 공동체 상점이 2만 개 이상의 자금을 쌓았으나 공동체 화폐 사용자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육체노동 서비스(페인트칠, 목조, 배관 등)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어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로, 포괄적 용어인 '공동체 화폐'를 사용하는 다양한 분야의 모델이 있으며 각 모델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많은 경우 화폐를 고안하는 사람들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히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공동체 화폐를 만들어 실행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지폐로 사용하는 공동체 화폐가 우상화되는 경향 때문에 더욱 악화됩니다. 공동체 화폐는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강력한 교육 도구이자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며, 공동체는 각 지역의 경제적인 문제를 명확하며 강력하게 다루려는 의지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폐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환경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공동체 경제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도구라기보다는 하나의 상징으로 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잉글랜드 데본의 토트네스 파운드(Totnes £)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 화폐는 매우 사랑 받고 칭송 받았지만, 해당 지역의 상점 주인들이 아닌 여행객들에게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위조 방지를 위한 방법 및 디자인의 특징을 만들어 화폐를 고안하고, 필요하다면 제작하여 인쇄하고,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이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지역 경제에서 병목에 쌓여 있지 않고 순환하게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화폐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는 많은 작업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Bristol £)는 디자인을 고안하고 출시하기 위해 10명에 달하는 연구가, 고용인, 자원봉사자 팀이 2년간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는 이타카를 신뢰한다'는 문구를 자랑스럽게 새긴 우상화된 이타카 시간-달러(Ithaca time-dollar)를 고안하고 원칙을 세운 폴 글로버가 떠난 뒤 그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던 경우를 보면 자원봉사에 얼마나 의존하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¹⁴⁾

간단히 말하면, 공동체 화폐는 공동체 경제의 활동가에게 있어 여전히 엄청난 매력을 지니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어려운 문제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게다가, 비용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표현된 의구심은 이를 화폐로 만들든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든, 건강한 공동체가 가진 비이기적이며 이웃에게 나타내는 관대함이 약화될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보상이 있을 때만 남을 돕는 습관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제 공동체 화폐에 대한 비평과 도전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이제 밝은 면을 함께 살펴보면, 몇몇 주목할 만한 성공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공동체 화폐가 어떻게 공동체 및 경제를 이롭게 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더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지 교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 화폐에는 세 가지 주된 형태가 있는데, 상호신용시스템, 종종 지폐 형태의 지역 화폐, 시간신용시스템이 그것입니다.

상호신용시스템

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개인 및 중소기업이 자신들이 만든 화폐로 거래할 수 있게 합니다. 현대 공동체 화폐의 첫 번째 물결이 여기에 해당되며, 지역통화제(LETS) 모델을 캐나다의 마이클 립톤이 처음 소개하였습니다. 지역통화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화폐를 사용해 거래할 수 있게 합니다.¹⁵⁾

대부분의 경우, '화폐'는 물리적인 형태를 띠지 않고, 보통 전자 회계 제도라는 이름으로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누가 얼마나 채무를 지고 있고 잔고를 가졌는지 회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통화제 시스템은 정기(종종 월간) 뉴스레터를 발행해 회원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고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모든 회원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이 시스템은 1) 회원이 지나치게 많은 잔고를 갖거나 채무를 지지 않고, 2) 화폐를 사용해 매일의 필요를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회원이 존재하며, 거래 단계를 통해 여러 기술과 서비스가 제공되면 잘 운영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경우는 흔치 않으며 앞서 언급했던 파인드혼 파운드가 실패한 예와 같이, 한 회원(공동체 상점)이 많은 잔고를 가지고 있지만, 시스템 내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인드혼 파운드는 이러한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민 각 개인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상호신용시스템이 가장 잘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 모델이 개인 사업에 접목된 경우에는 더 좋은 결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모델은 일반적으로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systems)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태동은 1934년 스위스에서 Wirtschaftsring-Genossenschaft(WIR)이 생겨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WIR은 현재 6만 2천 개의 중소기업이接客, 건설, 제조, 소매, 전문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회원 간 WIR 화폐 사용은 연간 65억 스위스 프랑(미화 68억 달러)에 달합니다.

WIR은 거래 시 국가 화폐는 더 적게 사용하도록 하면서 중소기업 간 거래를 장려하는데, 회원간 거래는 대부분 WIR과 스위스 국가 화폐를 동시에 사용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회원은 재화와 서비스를 네트워크에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계산해 시스템 관리자가 허용한 최대치 내에서 시스템으로부터 잔고를 꺼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 단계를 통해 다른 회원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입니다. 잔고는 회원의 자산으로서 보호됩니다.

¹⁴⁾ http://realitysandwich.com/88181/ithaca_hours/

¹⁵⁾ <http://www.investopedia.com/terms/l/local-exchange-trading-systems-lets.asp>

WIR은 "우리"에 해당하는 독일어 Wirtschaftsring의 약자이며, 경제 단체도 공동체라는 것을 회원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협동조합 법규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목적은 참여하는 회원들이 내놓은 것을 서로 구매할 수 있게 하고 그 안에서 순환하게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 모든 회원이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평적으로 말하자면, 이 화폐는 경기 순환 경향과 반대되는 것이며, 주요 경제가 위기에 빠져 유동성이 줄어든 경우 지역의 독립된 사업체는 공동체 화폐의 잔고를 서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은 스위스 경제가 20세기 후반부에 놀라운 안정성을 유지한 하나의 이유라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¹⁶⁾

이 모델은 최근 몇 년간 꽤나 성공적으로 모방되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 케냐 몸바사에서 이 화폐가 사용되는 방글라데시 빈민가의 이름을 딴 방글라-페사라는 화폐가 생겨났는데, 공식 화폐를 대체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동시에 지역 사업을 장려하도록 자극을 주었습니다.¹⁷⁾

네 명의 보증인에 의한 승인 절차를 통해 거래 네트워크에 받아들여진 후, 각 사업체는 무료로 동일한 금액의 방글라-페사를 종이 쿠폰 형태로 할당 받았습니다. 회원은 가능한 곳에서 지역 화폐로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파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75%가 음식을 팔고, 재단하고, 신발을 만들고, 수작업을 하고, 미용 사업에 종사하는 등의 일을 하는 여성으로 이루어진 참가자들이 서로 남아도는 능력을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도 방글라-페사를 사용해서 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공동체 밖의 여러 서비스와 건강, 교육을 위해 국가 화폐를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방글라-페사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3%의 참가자들은 쿠폰을 사용한 결과 전체 판매량이 증가했으며,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22%의 추가적인 판매량이 방글라-페사를 사용한 거래를 통해 증가했습니다.¹⁸⁾

최근 B2B의 두 번째 좋은 사례는 사르데냐의 시스템인 사르텍스입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에서 2009년에 시작되었으며, 경제 위기 때 지역 경제 활동을 다시 활발하게 하기 위해 시작된 사르텍스는 전자회계시스템으로 네트워크 회원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고, 가치를 인정받아 유로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시스템 관리자가 결정한 각 자금의 한도에 따라 교환 네트워크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을 매년 결정합니다. 이 시스템은 일반 은행 계좌의 마이너스 통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매년 급증하여 2013년 후반에는 1천 3백 명이 넘는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1천만 사르텍스를 거래하고 있습니다.¹⁹⁾

지역 화폐

최근 몇 년간 각 지역의 거래를 활발하게 하려고 공동체에서 지역 화폐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독일의 리기온겔드와 영국의 트랜지션 화폐가 있습니다. 이 두 화폐가 아마도 현재 사용되는 공동체 화폐 중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두 화폐는 이따금 예술적으로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형태를 띠며 지역의 주요 특징을 담고 있으며, 종종 공동체의 참여 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브릭스톤 파운드는 런던의 동남부 지구에서 사용되며, 그 이름은 사망한 팝스타인 데이비드 보위와 환경운동가인 제임스 러브록에서 따 온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 솔트 스프링 섬의 달리는 해당 지역의 예술가가 그 지역의 야생 동물을 묘사한 아름다운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²⁰⁾



도표 2 : 브릭스톤 파운드

이러한 화폐는 분명 지역 내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매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국가 화폐와 동일하게 거래되며, 명확하게 구별된 지역의 개인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 매사추세츠주 버크셔의 지역 화폐인 버크셔어스는 400개가 넘는 참여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화폐로 구매할 경우 할인을 해 줍니다.

하나를 더 언급하자면 효율적인 마이너스 금리로 일수 초과료를 적용하여 화폐 사용 빈도를 빠르게 증가시킨 독일의 김가우어가 있습니다. 모든 김가우어 지폐는 분기마다 가치의 2%가 감소하며, 지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는 2%의 가치를 표시하는 특정 스티커를 지폐에 부착해야 합니다.

도표 2 : 솔트 스프링 섬 달러

¹⁶⁾ J. Stodder and B. Lietaer, The Macro-Stability of Swiss WIR-Bank Spending: Balance, Velocity and Leverage (April, 2012) http://www.ewp.rpi.edu/hartford/~stoddj/BE/WIR_Panel.pdf ¹⁷⁾ <http://grassrootseconomics.org/bangla>

¹⁸⁾ <https://www.brookings.edu/blog/up-front/2013/07/17/bangla-pesa-slum-currency-and-implications-for-the-poor-in-developing-countries/>

¹⁹⁾ Community Currency Knowledge Gateway, Sardex.net, <http://community-currency.info/en/needs-translation/sardex-net/>

²⁰⁾ <http://www.bing.com/search?q=regiogeld&src=IE-TopResult&FORM=IETR02&conversationid=https://cop21.transitionnetwork.org/the-rise-of-local-currencies/>

해당 지역의 600개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화폐는 일 년에 평균 18회 사용되며, 유로보다 세 배 더 많이 사용되어 지역의 장인들과 상점 소유자들이 더 많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²¹⁾

흥미롭게도, 공동체 화폐는 수익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우리는 이러한 형태를 지닌 화폐의 잠재적이며 실제적인 효과로 더 일반적인 부면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크셰어스 화폐는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네 개의 주요 은행의 16개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브리스톨과 브릭스톤에서는 지역 화폐로 지방세를 낼 수 있습니다. 두 화폐 모두 휴대폰을 사용한 지급 시스템이 포함된 전자결제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방코 팔마스가 제작한 팔마스 화폐를 만든 사람들을 연방정부가 화폐 제정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하려고 두 번이나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브라질 연방정부는 여기서 배운 교훈을 거울삼아, 방코 팔마스의 설립자인 호아킴 데 멜로에게 전국을 아우르는 모델을 다시 만들도록 했습니다. 현재 브라질 전역에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60개의 공동체 은행이 있습니다.²²⁾

이러한 형태의 화폐에 대한 경험을 통해 몇몇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화폐 사용의 범주가 중요한데,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를 활발하게 하며 유연성을 갖추는 데 성공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하려면 상당한 수의 인구 및 거래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브리스톨의 인구는 거의 50만 가까이 되지만 토트네스의 사용자가 8,000명이었음을 생각해 보면, 두 화폐의 상대적 성공에 비견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화폐는 독립된 개체가 아닌 지역 경제 세대의 더 큰 포괄적인 프로그램에 추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부면에서 브라질의 팔마스 화폐의 성공이 특히 주의를 끄는데, 소비자의 요구와 지역의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 중 하나로 이 화폐를 사용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용력을 끌어올리는 일 없이 지역의 잠재적인 구매력만 증대시켜버리면 새롭고 다양한 거래로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 사실은 특히 다음의 경우에 잘 적용되는데, 국가 화폐를 공동체 화폐로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이미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구매해 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방정부를 설득해 공동체 화폐로 지방세를 받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강력한 돌파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공동체 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 위험을 거의 상쇄할 수 있습니다.

시간신용시스템

미국의 법학교수인 에드거 칸은 1980년대에 '시간 뱅킹' 개념을 고안해 냈습니다. 칸 교수는 미국의 대도시에서 공동체 관계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칸 교수는 노약자를 돌보고 환경을 가꾸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질이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등 공동체 관계에서 필요한 여러 훌륭한 일들이 있으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젊고 직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만, 이 두 계층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없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칸 교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 일에 대해 시간 화폐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다른 회원에게 한 시간 선행을 했다면 한 시간의 잔고를 얻게 되며, 한 시간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화폐를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²³⁾



이렇게 그리 어렵지 않은 간단한 방법을 통해 공동체를 돕는 다양한 종류의 활동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후레이아 키푸(돌봄 쿠폰) 시스템이 20년간 운영되어 왔으며, 공동체의 노인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시간 잔고를 제공했습니다 <http://community-currency.info/en/currencies/asia/fureai-kippu/>. 현재 일본의 374개 비영리 단체는 두 개의 자동화된 어음 교환소를 통해 전국에서 후레이아 키푸 교류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²⁴⁾

지난 10년간 워싱턴 D.C.에서는 시간 달러 청소년 법원에서 십 대들이 폭력 사건 외의 범죄 혐의가 있는 친구들의 사건을 살펴보고 배심원으로 활동하여 시간 잔고를 획득해 왔습니다. 재심 청구 비율은 10%도 되지 않으며, 일반 법원 및 시 기관에서 사건을 듣고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의 일부이기 때문에 워싱턴 D.C.는 일반 법원이 아닌 청소년 법원으로 가는 한 명의 범죄자당 9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²⁵⁾

그 동안, 웨일스 카디프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잉글랜드의 몇몇 지역에서도 실행하고 있는 스파이스 시간 은행은 공동체에서 봉사활동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일대일로 서로 도와주는 것에 보상하기 위해 협력 관계에 있는 조직들과 협상을 지속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건강, 레저, 스포츠, 오락 시설

21) <https://wiki.p2pfoundation.net/Chiemgau>

22) M. Pozzebon, The Expansion of Community Banks in Brazil: Discovering Palmas' Methodology, GVCasos, 4:2, 2014,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77621214_The_expansion_of_community_banks_in_Brazil_discovering_Palmas%27_methodology_Notas_de_ensino

23) E. Cahn, No More Throwaway People

24) Gratis Basis, Fureai Kippu: Compassion is the New Currency, July 2013 <http://gratisbasis.com/?p=498>

25) E. Cahn, 'Time Banking: An Idea Whose Time Has Come?', Yes Magazine, November 17, 2011 <http://www.yesmagazine.org/new-economy/time-banking-an-idea-whose-time-has-come>

과 행사가 포함됩니다. 스파이스 시간 은행이 달성한 것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응답자의 77%는 시간 은행에 참여한 것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으며, 66%는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가 많이 있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²⁶⁾

시간 बैं킹은 '공동 생산'으로 알려진 더 넓은 영역의 활동에 있어 건강 및 그 외 사회적인 지원 서비스를 민주화하는 노력이 결합할 때 최고의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멀리 떨어져 있는 '전문가'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건강, 노인 돌봄 등 자신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고안하고 전달하는 데 더 깊이 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됩니다.²⁷⁾

예를 들어, 동부 런던의 러시 그린 의사 진료소(Rushey Green doctor surgery)는 지난 15년간 시간 은행 역할을 해 왔으며, 사람들이 차를 태워 주거나 정원을 가꾸고 전화로 도우며 어린이를 돌보는 등의 지원을 통해 이웃을 도와 시간 자금을 벌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맞본 공동체에서는 건강과 행복이 증진되었으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필요는 줄어들었습니다.²⁸⁾

25년간의 실험, 배움, 확장을 통해 미국에는 현재 300개의 시간 은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은행은 회원이 15명이며, 가장 큰 은행은 3천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현재 시간 은행은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3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전 세계 34개 나라에 10만 명의 회원을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²⁹⁾

결론

오늘날 우리는 자금의 확보 및 공동체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자원의 혁신이라는 강력한 물결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각 지역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부가 지역에서 순환할 수 있게 하는 교류를 통해 이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몇몇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공동체에 기반을 둔 투자 기회를 확인하고, 남아있는 능력을 필요한 사람에게 더 간편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훨씬 더 오래된 전통적인 상호 협력의 지원에도 접목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와 기술의 혁신은 잘 접목되어 공동체에 근거한 투자와 교환 수단에 있어 수많은 방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간의 한계라는 말은 빙산의 일각을 묘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정의에서 매우 강력한 두 가지 형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존재하는 이질성의 정도

가 매우 높다는 것인데, '공동체 투자'와 '공동체 화폐'는 수많은 다양한 수단과 조직적 형태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비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 분야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논의하고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 자세하고 주의 깊게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논의한 각 모델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잘 준비된 모델입니다.

국가 화폐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금 구조를 지배해 왔으며,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경제적 이득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성장 기반의 궤도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오늘날의 필요와 기회는 화폐 해결가인 버나드 리타어가 재정적 도구와 화폐의 생태계라 부른 것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각각 우리 사회와 경제의 다양한 요소를 활발하게 하는 데 적합합니다. 우리는 오늘 살펴본 다양한 모델을 지금부터 발전시켜야 할 시스템의 뼈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26) <http://www.justaddspice.org/our-work/scale-impact>

27) Boyle D. and Harris M., The Challenge of Co-production: How equal partnerships between professionals and the public are crucial to improving public services, NESTA, 2012 http://www.nesta.org.uk/sites/default/files/the_challenge_of_co-production.pdf

28) Boyle D. How time banking is making a difference to patients' lives, Guardian, 6/2/2015 <https://www.theguardian.com/healthcare-network/2015/feb/06/time-banks-patients-lives-long-term-conditions>

29) E. Cahn, 2011, Op. Cit.

